

는다. 이런현실을바꿔보려는페미니즘전략은아직까지는그다지먹히지 않았다.

사랑의결속과정치적연대가생성되는공간을마련하기위해고난을극복해온백인여성과유색인종여성들에게우리가성공적으로활용했던기법과전략들을공유해야한다. 인종이다른여성들간의관계는거의알려진바없다. 백인여성들이유색인종여성들보다성차별주의적인주변환경에더상처받기쉽다는사실을입증하려는편향적인페미니즘연구가있다. 이는다른어떤집단보다백인여성의관심사와고통에더관심을쏟아야하고그렇만하다는백인우월주의자들의주장을연구화할뿐이다. 확실히유색인종여성들이백인여성들과다르게행동할수있지만, 그것은유색인종여성들이성차별주의적인조건을내면화하고있다는의미일뿐아니라둘이킬수없을정도로성차별주의의희생자가되기훨씬쉽다는뜻이기도하다.

특히선구적인흑인활동가들의노고가담긴페미니즘운동은, 인종과인종차별주의를재고하는길을열어우리사회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다. 주류사회비평가들은좀처럼이사실을인정하지않지만말이다. 페미니즘운동내부의인종과인종차별문제에대해꽤다양한글을써온페미니즘사상가로서, 나는페미니즘운동내에여전히문제를제기하고뜯어고칠부분이잔뜩이라는사실을잘알고있다. 하지만지금까지거둔엄청난성과를기리는일또한중요하다. 우리가거둔승리의의미를반추하고그것을본보기로삼는일은반인종차별주의페미니즘운동의대중적기반을다지는데있어든든한토대가될것이다.

11 장: 폭력종식하기

현대페미니즘운동이개입해가장광범위하고긍정적인성과를거둔분야는단연‘가정폭력’으로페미니즘운동은가정폭력을끝장내기위해사람들의사고방식과행동을바꾸려는노력은물론, 가정폭력에대해보다폭넓은문화적인식을쌓아가고이를지속하기위해노력을기울여왔다. 요즘은대중매체부터초등학교에이르기까지각계각층에서가정폭력에대해이야기하지만지금도현재진행형인가정폭력의현실을극적으로폭로하고수면위로올린주역이바로현대페미니즘운동이었다는사실은물혀버리곤한다. 페미니즘운동이가정폭력에처음으로관심을기울였을무렵에는주로여성에게가해지는남성의폭력만을다루었으나운동이진전될수록동성간에도가정폭력이존재한다는사실이밝혀졌다. 여성이다른여성에게학대당했거나당하고있고아이들은남녀를불문하고성인인가장이휘두르는폭력에희생되기도했다.

모두를위한페미니즘

벨룩스

2000 년

차례

개정판에부쳐	3
서문: 페미니즘에한발더가까이	4
1 장: 페미니즘정치 — 우리가서있는곳	8
2 장: 의식화 — 꾸준한회심回心	11
3 장: 자매애는여전히강력하다	15
4 장: 비판의식을키우기위한페미니즘교육	18
5 장: 우리의몸, 우리자신 — 임신선택권	22
6 장: 내면의아름다움과외모의아름다움	26
7 장: 페미니즘계급투쟁	29
8 장: 글로벌페미니즘	34
9 장: 일터의여자들	37
10 장: 인종과젠더	41
11 장: 폭력종식하기	44
12 장: 페미니즘남성성	48
13 장: 페미니스트부모되기	51
14 장: 결혼과동반자관계를해방하기	55
15 장: 페미니즘성정치 — 상호자유의윤리학	59
16 장: 완전한행복 — 레즈비언리즘과페미니즘	64
17 장: 다시사랑하기위하여 — 페미니즘의심장	69
18 장: 페미니즘적영성	72
19 장: 페미니즘의미래	75

을다른곳으로돌리려한다고생각했다. 사실, 우리는여성이처한상황을 현실적으로바라볼것을요구하며그런현실적인이해야말로진정한페미니즘정치의토대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 우리는자매애의이상을훼손하려던것이아니었다. 우리는진정한자매애를키워낼구체적인연대의정치를세우고싶었다. 우리는백인여성들이백인우월주의에서벗어나수없다면, 그리하여페미니즘운동이근본적으로인종차별주의에맞서지않다면, 백인여성과유색인종여성사이에진정한자매애가피어날수없다는사실을잘알았다.

인종문제와관련한비판적인개입은결코여성운동을무너뜨리지않았다. 도리어더강하게만들었다. 인종문제를외면하는태도에서벗어나자여자들은모든층위에존재하는차이라는현실을직면할수있었다. 그제야우리는특권계급여성, 특히백인여성의계급이익을다른모든여성들의이익보다앞세우지않는페미니즘운동을만들어나갈수있었다. 우리는모두가각자가처한현실에대해이야기할수있는자매애의상을새롭게제시했다. 페미니즘사상가들사이에서벌어진인종논쟁은변증법적이었다. 운동에참여한개개인들이의견을나눠페미니즘의이론과실천을재고하게만들어갔던것이다. 이는동시대의어느사회운동에서도찾기힘든광경이었다. 페미니즘운동의참여자들이비판과도전을받아들이면서도정의와해방의비전을실현하기위해전적으로매진한다는사실로이운동의강점과힘을알수있다. 이는페미니즘사상가들이과거얼마나그릇된판단을했건, 변화하려는의지와더불어투쟁과해방을이끌어낼조건을만들어내려는의지만있다면그릇된신념과전제에매달리는일은일어나지않음을잘보여준다.

수년간나는인종문제의중요성을인정하려들지않는백인페미니즘사상가들의모습을목격했다. 그들이백인우월주의를내려놓지않으려는모습도, 반인종차별주의페미니즘운동이야말로자매애를현실로만들어줄유일한정치적토대라는사실을받아들이려하지않는모습도목격했다. 개별여성들이백인우월주의사고에서벗어나인종문제를비로소인정하는순간 겪은의식의혁명또한목격했다. 이런멋진변화들로페미니즘운동에대한나의믿음은되살아났고모든여성들을향한연대의식은더욱강력해졌다.

페미니즘사상과페미니즘이론은전반적으로인종문제를통한비판적인개입에힘입은바가크다. 유일한골칫거리는이론이실천으로 옮겨지는과정이었다. 백인여성연구자들이인종문제를페미니즘에반영하기위해노력해왔지만, 이러한통찰이백인여성과유색인종여성사이의일상적관계에는그리영향을미치지못했다. 인종차별이여전한사회에서여자들이리만반인종차별적으로교류하기란쉽지않다. 다양한직업을가질수있는환경임에도불구하고사람들은여전히자신이속한부류하고만교류한다. 인종차별주의와성차별주의가결합된해로운장벽들이여자들을갈라놓

지한다름에대한정치적의식이현대페미니즘운동의이론화과정에도반영되었어야한다.

그들은페미니즘운동을시작하면서인종과젠더를나란히놓고고려한것이아니라전체그림에서아예인종을제거하여차이를지우고부인했다.젠더를알세운다는말은, 백인여성들이무대중앙을차지할수있다는뜻이자여자라면누구든페미니즘운동에참여할수있다고하면서또그운동을자기네것이라고주장할수있다는의미였다. 초기페미니즘운동은인종간격차나인종차별철폐를위한투쟁을진지하게고려하지않았기에그들이그리는자매애라는유토피아는대다수의흑인/유색인종여성들의공감을얻지못했다. 페미니즘운동이태동할때부터활동했던흑인여성들대부분의처지는별로나아지지않았다. 페미니즘운동이시작됐을때도여전히인종통합은거의이뤄지지않았다. 많은흑인들이난생처음으로백인과동등한위치에서소통하는법을배우기시작했던터라, 페미니즘을받아들인흑인여성들이인종에대한자신의인식을선불리털어놓지않았대도그리놀랍지않다. 백인여성을착취자와압제자로만경험했던세상에서백인여성들이자매애를외치는모습을보다니얼마나감격스러웠을까.

1970년대후반에서1980년대초반, 젊은흑인/유색인종여성들은백인여성의인종차별주의에이의의를제기했다. 윗세대흑인여성들과달리우리는대부분여전히백인위주이긴하나백인들과한교실에서함께교육도받았다. 백인여성과의관계에서예속된지위에놓인적도없었다. 우리는대부분취업전선에내몰린적도없다. 우리는결코주어진자리에서취족은듯가만히있지않았다. 우리는여성운동내에서발생하는인종차별과백인우월주의를비판하는데있어적임자였다. 여성이일종의카스트같은성별계급에속해있다는개념을제시하며여성에대한억압을깨는운동을조직하려했던백인여성들이오히려, 모든여성의공통된경험이면에자리한여성들간의차이에대해서는인정하기를꺼렸다. 그중에서도인종은가장명백한차이였다.

1970년대에나는『나는여자가아닌가요 — 흑인여성과페미니즘』의초고를완성했다. 열아홉살때였다. 나는상근직으로일해본적이없었다. 나는남부의인종분리지역작은마을에살다가스탠퍼드대학에진학했다. 자라면서늘가부장제적사고에저항했으나대학에와서야페미니즘정치를받아들였다. 나는여성학강의를듣는유일한흑인여성이었고, 의식이고양되는과정에서인종과젠더문제의이론화작업을시작하게되었다. 인종차별적편견이페미니즘사고를형성하는데미치는영향을인정할것과이에대한수정을추구한것도그시절대학에서였다. 그무렵다른곳에서도나와같은생각을지닌흑인/유색인종여성들의비판이터져나왔다.

그당시인종차별과인종간격차가엄연히존재하는현실을좀처럼직시하려하지않았던백인여성들은페미니즘에인종문제를끌어들였다며우리를배신자라고비난했다. 부당하게도그들은우리가젠더에맞춰진초점

개정판에부처

40년넘게페미니즘이론과실천을연구해온나는, 페미니즘운동에헌신하고가부장제에도전해변화를일궈내기위해해를거듭할수록더치열하게살아왔다고자부한다. 요즘들어나는그어느때보다도적극적으로, 여성이든남성이든, 변화를위해늘노력하고성차별주의 sexism 와그에근거한착취와억압의사슬을끊어내리라는희망을포기하지않는사람들의삶에페미니즘투쟁이선사한해방의기쁨을나누려애쓰고있다.

페미니즘운동에발을들었을때나는페미니즘운동을대중화하는일에가장열성적으로참여했다. 스무살의나는우리삶을바꾸기위해, 사회정의를바로세우는페미니즘운동에뛰어들기로다짐했고, 이에페미니즘이론과실천이지닌의미를더많은사람들, 즉대중에게전달할수있는다양한방법에대해고민했다. 나는주로페미니즘에대해한번도생각해본적없는사람들, 특히흑인친구들을위해글을 썼다. 하지만대체로학생시절이나강단에선후야야그런글들을썼음을고려하면내글이늘많은독자를만난것은아니라는점을쉽게짐작할수있다. 독자들이‘이런책이있다’는사실을알려면, 무엇보다서점에서책을실제로보거나서평을읽을기회가있어야한다. 그런데반체제적이고급진적인책일수록주류의서평을많이못받을가능성도커진다.

그런점에서는운 좋게도, 내책들은서평을받는일은드물었지만독자들을만날수는있었다. 확실히, 강의교재로채택되니주류의눈에는들지않았어도독자들이생겨났다. 물론“이책이제인생을구했어요”라고독자가찬사를보낼만한책을쓰면입소문때문에책이날개돋친듯팔릴것이다. 페미니즘이론서를써온지난40년을되돌아보면, 독자들이여전히내책을찾으며비판의식을키우는교재로여전히활용되고있다는사실에경외감마저든다.

지난수년간페미니즘이론과문화비평이여성과남성의다양한목소리에점점더귀를기울여온만큼, 학술적인논의공간은페미니즘이전파되는기본적인장으로자리매김했다. 이러한경향덕분에페미니즘적사고와실천이지닌의미와힘을배울기회가더생겼으니학생들의입장에서는긍정적인일이다. 하지만이는페미니즘운동에더많은대중을끌어들이는데는부정적으로작용했다.

학창시절받은여성학수업과거기서읽은책이나를바꿔놓아페미니즘에대해완전히각성하게됐다. 그러나딸이여섯이고아들이하나인집안에서태어난나는엄마와형제자매, 내가아는모든사람들이나처럼페미니즘사고에도취되기를원했다. 이책의표지속두여자는바로나와내가여대 1

학년시절에사권절친한친구에이프릴이다. 노동계급문제에대해야기 나누며가까워진우리사이에인종장벽은들어설여지가없었다. 사진속우리는스무살을코앞에둔십대후반이었다. 내가페미니즘에흠뻑빠지면서에이프릴도함께페미니즘컨퍼런스에참가해페미니즘전반에대해배웠다. 그로부터 40 여년이흐른지금까지도우리는함께페미니즘강의를들으러다닌다. 인생이라는여정을함께배우고경험하면서우리는‘자매애는 강력하다 sister is powerful’는진리를깨우쳤다.

무엇을쫓지고민스러울때면늘구체적인경험에서글감을찾아내인생은물론주변남성과여성의삶에서일어난일들에대해써내려갔다. 오랫동안안학교안팎에서만난사람들은내게페미니즘의이론과시천이무엇인지잘모르겠다고털어놓았다. 여성학수업을통해비판의식을키운학생들이가족과친구들에게자신의새로운사고방식에대해설명하면서어려움을겪는경우도드물지않았다.

페미니즘이론이“너무학문적”이라거나“일반인이이해하기어려운단어투성”이라는불만을듣다보니, 어떻게든모두에게페미니즘정치를이해시킬수없다면이운동은실패한것이다싶었다. 나는가가호호찾아다니며페미니즘적사고가무엇인지알려야한다고말하곤했다 (물론실행에옮긴적은없다). 그런고민을하던차에이런생각이떠올랐다. 사람들에게페미니즘적사고에대해설명하면서페미니즘정치를받아들이도록구슬릴만한쉬운책을써보면어떨까.

단한번도페미니즘운동이여성들만의것이라고도, 그래야만한다고도생각해본적이없다. 여성이든남성이든, 소녀든소년이든모두가페미니즘에한발더다가오게설득하지못하면페미니즘운동이성공할수없다는사실을마음깊이확신했다. 나는내학생들에게페미니즘적사고에대해설명하고집에가져가서친척과부모님, 조부모님, 교회신자들과함께읽을만한책을쓸작정이라고말하곤했다.

『모두를위한페미니즘』이라는제목은이책의성격을한눈에보여주는일종의구호다. 명료하고, 간결하고, 쉽게읽히는책. 그런점에서내꿈이실현된책이다. 이책이야말로우리모두를페미니즘에한발더가까이초대하기때문이다.

서문: 페미니즘에한발더가까이

어디서든내가누구이며무슨일을하는지궁금해하는사람에게자랑스럽게이렇게대답한다. 나는작가이며페미니즘사상가, 문화비평가라고말이다. 그리고는여러매체에영화나대중문화에담긴메시지를분석한글

한삶을꾸릴수있는전략뿐만아니라빈곤층에서벗어날수있는방법까지모두다루어야한다.

초기페미니즘운동은여성의경제적자립을주목표로삼지않았다. 그러나앞으로는여성이처한경제적어려움에대하고민이야말로궁극적으로페미니즘운동대중화의강령이될것이다. 이는모든여성들을하나로모으는공동의문제이자대중조직화로나아가는장이될것이다.

10 장: 인종과젠더

페미니즘사상가들에게인종차별주의의현실을인정하라는요구만큼미국페미니즘의면모를혁신한개입은없었다. 미국내백인여성들중자신의지위가흑인/유색인종여성보다드다는사실을모르는사람은없다. 어릴때부터텔레비전을봐도백인들만나왔을테니이러한사실을잘안다. 백인여성들은이렇게비백인이부재하거나투명인간취급을받는게순전히그들이백인이아니라서라는사실도잘안다. 미국의백인여성이라면누구나흰피부만으로특권을가진범주에든다는사실을안다. 백인여성이이런사실을숨기고부정한대도그들이그사실을몰라서그러는게아니다. 다만인정하지않을뿐이다.

민권운동에적극적으로가담했던, 정치적으로각성한백인여성들의단체는백인여성들이만든그어떤단체보다자신들의지위가흑인여성의지위와드다는사실을잘이해했다. 미국사에있어이시기에백인여성이쓴일기와비망록들이이를증명해준다. 그런데이들중다수가민권운동에서여성해방운동으로옮겨갔고자신들이민권투쟁당시직접보고들었던그명백한차이에대한인식을숨기고부정하면서페미니즘운동의선봉에섰다. 그들이인종차별철폐를위해투쟁했다고해서그들이백인우월주의에서벗어난것은아니었다. 다시말해자신들이흑인여성보다우월하고, 더박식하고, 더잘배웠고, 더운동을‘이끌어나갈’만하다는의식에서벗어난다고보는것은오산이었다.

이들은많은면에서 (백인여성과흑인을포함한) 모든사람에게투표권을줘야한다고주장했던노예해방론자선조들과비슷했다. 하지만성별이다르다는이유로자신들에게투표권이주어지지않는데도, 흑인남성들은투표권을얻을듯보이자백인여성들은백인남성들과연합해백인우월주의의기치아래모여들었다. 더많은권리를호전적으로요구하는흑인들의모습을지켜본백인여성들은이를발판삼아자신들의권리를요구하고자했다. 이들중일부는민권운동때문에성차별주의와그에근거한억압을인식하게되었다고주장한다. 하지만이주장이맞다면, 그들이새롭게인

커집에서도 동영상으로 대학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이를 강의실에서 보내는 시간과 병행해 늘려야 한다. 정부가 군비가 아닌 복지에 예산을 배정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때 모든 시민이 1~2년 가량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면 복지제도에 불능 부정적인 오명은 사라질 것이다. 또한 남자도 동등하게 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복지제도가 역차별적이라는 오명도 씻길 것이다.

계급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다수 인빈곤층 여성과 특권 계급 여성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진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집단 여성들, 특히 부유층 여성들의 계급 권력은 상당 부분 다른 여성의 자유를 담보로 한다. 이미 계급 권력을 권 몇몇 여성 집단에서는 소외 계층 여성들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지원을 제공하는 식의 경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런 상황을 중재하고 있다. 페미니즘 해방 운동에 헌신하는 이들 가운데 부유한 개별 여성들, 특히 재산을 상속 받은 여성들은 계급 권력을 갖지 못한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들과 연대하기 위한 참여 경제 전략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당장은 이러한 여성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노력이 널리 알려지면 참여자들도 늘어날 것이다.

30년 전 당대 페미니스트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 부문에 어떤 변화가닥 칠지 예측하지 못했다. 그들은 대량 실업 사태가 일상화 되고 여성들이 있지 않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구직 준비를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그들은 보수주의자들과 그리고 일부 진보주의자들마저 돈 없는 미혼모들의 경제적 곤궁을 비난하고 악마화하는 식으로 복지제도를 공격하리라고는 내다보지 못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현실로 닥치자 선구적인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여성 해방과 일의 관계에 대해 재고해야 했다.

오늘날 일터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자아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려주는 페미니즘 연구는 많지만 일하는 여성 인구가 증가하면서 남성 중심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는지 살펴 연구는 많지 않다.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실직의 원인,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저 허울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가부장제 하에서 가장의 위치가 보장해주는 확고한 정체성이 사라지게 된 원인으로 일하는 여성을 지목한다. 그러므로 미래를 위한 중요한 페미니즘의제는 남성들에게 여성과 일의 관계에 관한 실제 상황을 보여주고 그들이 일터에서 여성을 적으로 돌리지 않게 해야 한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직장에서 일해왔다. 임금이 많건 적건 페미니스트들이 이상적으로 제시한 비전만큼 일에서의 의미를 찾는 여성들은 많지 않다. 여성들이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경제적 자급자족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행복을 배양하는데 쓰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일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작업은 앞으로 페미니즘 운동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페미니즘 운동이 성공하려면 설령 대단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행복

을 기고한다고 덧붙인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은 흥미로워하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한다. 누구나 영화를 보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잡지를 뒤적이고, 그 과정에서 읽어낸 메시지와 직접 본 이미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갖는다. 그렇기에 내가 만나는 이런 저런 사람들에게 문화비평가라거나 글쓰기에 열정을 품고 있다는 말을 이해시키기는 쉽다 (많은 이들이 글을 쓰고 싶어하고 실제로 쓰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페미니즘 사상이란 지점에 이르면 질문이 뚝뚝 끊긴다. 대신 사람들은 페미니즘의 폐해와 나쁜 페미니스트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들’이 얼마나 남자를 혐오하는지에 대해, ‘그들’이 얼마나 만물의 본성, 즉 신을 거스르는지에 대해, ‘그들’은 전 부레즈비언이고, ‘그들’이 일자리를 몽땅 채가는 바람에 백인남자들이 기회를 빼앗겨 얼마나 살기 어려워졌는지 아느냐고 늘어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는다. 페미니즘에 관해 어떤 책이나 잡지를 읽어봤는가. 페미니즘 담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페미니즘 활동가들에 대해 무엇을 아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면, 그들이 아는 페미니즘은 심중팔구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것일 뿐이며 페미니즘 운동이 실제로 무엇인지 거기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대개 사람들은 페미니즘 하면 남자 처럼 되고 싶은 한 무리의 성난 여자들을 떠올린다. 그들은 페미니즘에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다시 말해 여자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아는 페미니즘에 대해 조곤조곤 이야기해 주면 그들은 기꺼이 내 말을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이야기를 마칠 즈음 곧장 이런 반응을 보인다. 당신은 남성을 혐오하고 늘화가나 있는 ‘진짜’ 페미니스트 같지 않다고, 당신은 다른 것 같다고 말이다. 이에 나는 야마로 누구보다 진자고 급진적인 페미니스트이며, 페미니즘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덮어놓고 짐작했던 모습과는 다를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상대에게 추천할 만한 책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페미니즘이 뭔지, 페미니즘 운동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권하게 말이다. 그 순간에 축약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잘 읽히는 책이 손에 쥐여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령부득한 학술 용어만 가득한 두껍고 난해한 책이 아니라, 간결하고 명확해서 이해되는 부분만 대충 건너뛰면서 읽지 않아도 되는 그런 쉬운 책 말이다. 페미니즘 사상과 페미니즘 정치, 그리고 그 실천이 내 인생을 바꾼 순간부터 나는 그런 책을 원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책을 권해내 정치 적 삶의 근본인 페미니즘의 대의와 내가 깊이 신봉하는 이 페미니즘 정치에 대해 더 잘 이해시키고 싶었다.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사람들이 공포나 환상에 비로하지 않은 해답을 얻기 바랐다. 사람들이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끝내려는 운동이다’라는 간결한 정의를 읽고 또 읽어

서그의미를깨우치기를바랐다. 나는이런식으로페미니즘을정의하는게 마음에들어 10 년도더전에『페미니즘 — 주변에서중심으로』¹에서 처음으로그렇게정리했다. 페미니즘운동이남성을혐오하지않는다고확실하게못박는정의라마음에든다. 또한이정의는성차별주의가문제라고 분명하게밝힌다. 이렇게꼭집어서말해주는덕에여자는남자든태어날때부터성차별주의적사고와행동양식을받아들이게끔사회화되었다는사실을명심하는데도움이된다. 이런사회화때문에여자도남자만큼이나성차별주의자가될수있다. 그리고이는남성중심주의를두둔하거나정당화한다기보다페미니즘사상가들이이운동을단순히남녀대립구도로인식하는건순진하고착오적인발상이라는점을상기시킨다. (제도화된성차별주의의또다른이름인) 가부장제를철폐하기위해우리의사고방식과정신부터바꾸지않는한, 다시말해성차별주의적사고와행동을버리고그자리에페미니즘적사고와행동을들이지않는한, 우리모두가성차별주의를영구화하는과정에참여한다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일반적으로남성은가부장제, 그러니까남자가여자보다우수하므로여자를지배해야한다는전제의수혜자다. 그러나여기에는대가가따른다. 남자들은가부장제의열매를모두챙기는대신그제도를지키기위해서라면폭력을사용해서라도여성을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도록요구받는다. 대부분의남자들은가장으로서의삶이녹록치않다는사실을알게된다. 그리고여자들이남자들에게느끼는증오와공포, 여성을향한남성의폭력모두를혼란스러워한다. 심지어이런폭력을영구화하는남자들조차도마찬가지다. 하지만정작손에권이득을포기하려들지는않는다. 그들은가부장제가다른무언가로변하면자신에게친숙한세상이어떻게달라질지몰라불안해한다. 그래서머리와가슴으로는남성중심주의가잘못되었다는사실을알면서도무저항적으로이를지지하는편이더낫다고여긴다. 남자들은몇번이고내게페미니스트들이뭘원하는지모르겠다고말한다. 나는그들을민는다. 그들이변화하고성장할능력을갖췄음을민는다. 그리고그들이페미니즘을더잘알게되면더이상페미니즘을두려워하지않으리라고민는다. 페미니즘운동을통해그들역시가가부장제의속박에서풀려나리라는희망을보게될테니말이다.

이런책이있으면얼마나좋을까하고 20 년넘게생각만하다가결국이얇은안내서를직접쓰며여두에돈독자가바로앞서언급한젊고늙은남성들, 그리고우리모두다. 이런책을계속기다렸지만아무도써주지않았기에결국내가쓸수밖에없었다. 매일같이반페미니즘의역풍이휘몰아치고, 잘알지도못하는페미니즘운동을증오하고그에저항하라는메시지가쏟아지는상황에서이런책이없으면수많은사람들에게말을걸수없다. 페

중요하지않다) 이야말로직업을가짐으로써가장자유로워졌다. 대부분의여성은좋은일자리를찾을수조차없었으며노동인구에편입되면서가정에서그들삶의질은오하려떨어졌다.

페미니스트들이직장내젠더차별을바로잡자이전에는취직하지않았거나몇몇만에외적으로취직했던고학력자특권계급여성들이경제적으로자족할수있는직장을전보다훨씬더쉽게구하게되었다. 그러나이들의성공이대다수여성의운명을바꿔놓지는못했다. 몇해전나는『페미니즘 — 주변에서중심으로』에서이렇게 썼다.

“일터에서여성의노동조건을개선하려는노력이, 여성이더높은임금을받을수있게하고계급을막론하고구직자여성들의취업을도우려는노력과더불어서페미니즘운동의핵심의제를이루었더라면, 페미니즘은모든여성의관심사를아우르는운동으로받아들여졌을것이다. 그러나페미니스트들은출세에혈안이되어여성의고임금전문직진출에만관심을쏟아대다수의여성들을페미니즘운동에서멀어지게했다. 또한페미니즘활동가들은노동시장에진입한부르주아여성이증가했다고해서여성전체가경제력을획득한것은아니라는사실을자꾸외면했다. 그들이빈곤층과노동자계급여성들의경제상황을제대로살폈다면, 여성실업문제가심각해지고있다는사실은물론이고계급을불문하고빈곤층으로추락하는여성들이증가하는추세도포착했을것이다.”

가난은핵심적인여성문제가되었다. 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가우리사회의복지체계를와해하려들수록가난하고힘없는여성들에게서삶의기본적인필수요소인실곳과음식마저도빼앗을것이다. 상황이이런데도보수적인정치인들은남성이든여성이든대부분실업상태인현실과일자리가아예없다는사실, 그리고설령별이가있다해도많은남성들이아내와아이들을경제적으로부양하길원치않는다는사실을무시하고는해결책이랍시고남성이가족을부양하는가부장적인남성중심주의가정으로의회귀를여성에게내세웠다.

좀더완벽한경제적자립의길은, 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를뒷받침하는대중매체가우리에게제시하는행복한삶의이미지와는다른, 대안적라이프스타일에있을것이다. 생활임금¹⁴을받으며충만하고행복하게살고, 자부심과자존감을복돋아주는일을하려면일자리나높프로그래미필요하다. 교사들과모든서비스업종사자들은더많은임금을받아야한다. 집에서육아에전념하고싶은여성과남성은, 집에서고등학교과정을마치고대학학위를탈수있게꿈홈스쿨링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어야하며그기간동안주에서보조금도받을수있어야한다. 기술을발전시

¹ 원제는 Feminist Theory: From Margin to Center. 로원서초판은 1984 년에 출간됐다. 한국어판은 2010 년모티브북에서출간되었다.-역자주

¹⁴ living wages. 최저생계임금의개념을발전시킨것으로, 대개미국에서는주 40 시간노동으로양질의주거, 음식, 교통, 건강보험, 통신, 여가등을누릴수있는수준의임금을 말한다.-역자주

많지만그들역시남성중심주의가일상인곳에서남성들과관계를맺고있다. 다행스럽게도, 경제적으로자립한여성일수록남성중심주의가당연한관계에서벗어나해방을택할확률이커진다는사실도우리는잘알고있다. 떠날수있기에그녀는떠난다. 페미니즘사고를받아들이고해방되고싶어도, 수많은여성들이경제적으로가부장제남성들에게매여있기때문에원천적으로불가능한일은아니라해도홀썉떠나기는힘들어한다. 페미니즘운동초기에만해도우리중일부만알았지만이제여자라면대부분다아는사실이있다. 일이여성해방의필요조건은아니지만, 해방되기를원한다면경제적자립이꼭필요하다는현실은바뀌지않는다는사실이다. 우리가경제적자립을일과연관짓기보다는해방의수단으로본다면, 한걸음더나아가어떤종류의일이여성해방을가져다줄지생각해봐야한다. 분명탄력근무제와좋은보수가보장된일이라면노동자에게최대한의자유가허용될것이다.

페미니즘사상에용기를얼어취직을하면해방될수있을것이라민었던수많은여자들은분노했다. 여자들은가정에서도일터에서도장시간일해야했던것이다. 페미니즘운동의영향으로여성들이직장에나가일하는상황을긍정적으로받아들이게되기전부터도경기침체때문에이런변화는생길수밖에없었다. 현대페미니즘운동이아니였어도수많은여성들이마찬가지로노동인구에편입됐겠지만, 페미니스트들이젠더차별에의의를제기하지않았다면지금우리가권권을누렸을가능성은희박하다. 여성이페미니즘때문에직장에서일할수밖에없게됐다고‘탓하는’것은, 비록이렇게생각하는여자들이많다고해도잘못이다. 점점더많은여성들이일자리를찾게끔이끈건사실소비자본주의다. 경기침체인상황을고려하면한때전업주부를꿈꾸었을지도모를여자가직장을구하지않고서는이제백인중산층가정이누리는계급적지위와라이프스타일을유지하기힘들게됐다.

페미니즘연구는여성들이직업을갖게되면서자존감이높아지고사회공동체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게되는긍정적인성과를거두었다는사실을자료로입증했다. 어느계급에속하는여성이건전업주부가정에만머무는경우고립감이나외로움을느끼고우울해했다. 여성이든남성이든대부분의노동자는일터에서안정감까지는아니더라도어딘가에속해있다는소속감을느끼게 마련이다. 가정에서는문제가발생하면스트레스가상당하고해결책을찾기도까다롭지만일터에서는문제가발생하면모든구성원들이이를공유하며해결책도혼자서찾지않는다. 대개남성들이바깥일을도맡았을때여성들은남성을위해집을안락하고휴식을취할수있는공간으로만드는일을맡았다. 여성에게집이란남편과아이가없을때만설수있는공간이었다. 가정내에서여성이온종일다른사람을수발하느라바쁘다면집은그녀에게쉬면서편안함과즐거움을얻는공간이아니라일터일뿐이다. 독신여성 (대부분혼자살고그들이이성애자인지아닌지는

미니즘의모든것을알려주는쉽고짧은입문서가쏟아져나와야한다. 그래서지식을얻은사람들이페미니즘에관한글이나전문서도쉽게읽을수있어야한다. 그러면이책도페미니즘정치를대변하는열정에찬또하나의목소리에불과해질것이다. 이세상에페미니즘을더많이알려야한다. 옥외광고판을세워야하고, 잡지에도광고를실어야하며, 버스과지하철, 기차에서도광고해야한다. 텔레비전으로우리의메시지를널리퍼뜨려야한다. 우리는아직거기까지는이르지못했다. 하지만앞으로이런노력을통해페미니즘을널리알려야하고, 이운동이모두의머리에가닿고마음을울리게해야한다. 페미니스트들은이미우리일상을긍정적으로변화시키고있다. 그러나페미니즘에대해부정적인이야기만듣는다면긍정적인측면은더이상눈에들어오지않을것이다.

내가처음으로남성중심주의에저항하고, 가부장제사고에반기를들었을때 (또한내삶에서가장강하게가부장제를드러내는목소리였던어머니와맞았을때) 나는자살충동과우울증에서달리며삶의의미와내자리를찾고싶었던십대였다. 내겐단단히닫고설수있는, 평등과정의의토대가되어줄페미니즘이필요했다. 엄마는뒤늦게페미니즘에눈을뜨셨다. 엄마는나를비롯해당신의딸들 (우리는모두여섯이다) 이페미니즘정치덕분에더 나은삶을사는모습을지켜보셨으며, 페미니즘운동에서가능성과희망을보셨다. 내가이책에서당신과, 나아가모두와나누고싶은게바로그가능성과희망이다.

아무도지배받지않는세상을상상해보라. 여자와남자가무조건똑같거나평등한곳이아니라서로에대한존중이사람과사람사이관계의틀을만드는기준인세상말이다. 누구나타고난모습그대로살수있는세상에서, 평화와가능성의세상에서산다고상상해보라. 페미니즘혁명만으로는그런세상을만들수없다. 인종차별과계급엘리트주의, 제국주의도함께종식해야한다. 하지만페미니즘혁명을통해, 우리는여자로서그리고남자로서완전한자기실현을할수있을것이다. 그리하여사랑의공동체를건설하고그안에서함께살아가며자유와정의를향한우리의꿈을실현하고모든인간이‘평등하게창조되었다’는진리를실천할수있을것이다. 한걸음더다가오라. 페미니즘이당신과우리모두의삶에어떤영향을미치고어떤변화를이끌어내는지지켜보라. 더가까이다가오라. 그러면더잘보일것이다. 모두를위한페미니즘이.

1 장: 페미니즘정치 — 우리가서있는곳

페미니즘이란간단히말해서성차별주의와그에근거한착취와억압을 끝내려는운동이다. 10 년도더전에쓴『페미니즘 — 주변에서중심으로』에서페미니즘을이렇게정의했었다. 그때만해도누구나이렇게페미니즘을정의했으면 좋겠다고싶었다. 나는이정의가턱마음에들었는데, 남성을적으로돌리지않는듯했기때문이다. 성차별주의를문제로지목하면상황의본질을곧장파고들게된다. 실제로페미니즘을이렇게정의하면성차별주의를공고히하는주체가여성이든남성이든, 아이든어른이든상관없이성차별주의적사고와행동이문제라는걸일깨워줄수있다. 게다가이는구조적으로제도화된성차별주의에대한이해까지포함할정도로포괄적이기도하다. 그런점에서볼때이정의는일종의열린결말과도같다. 페미니즘을이해하려면성차별주의부터알아야한다고이정의는시사하고있다.

페미니즘정치의옹호자라면다알겠지만, 사람들은대부분성차별주의가뭔지잘모르고설사안다고해도이를문제시하지않는다. 대중은페미니즘을항상남성과동등해지려는여성들에관한것이라고만생각한다. 그래서페미니즘을반남성주의로여기는사람도부지기수다. 사람들이주로가부장제적인대중매체로부터페미니즘에대한정보를얻는현실에서페미니즘정치에관한오해가비롯된다. 대개그들은주로젠더평등에헌신하는여성들의페미니즘을가장많이접한다. ‘동일노동동일임금’이나여성과남성이가사노동과육아를공동으로분담해야한다고주장하는식의페미니즘말이다. 그들이보기에이렇게주장하는여성들은대개백인이고물질적으로특권층에속한다. 대중매체에서접한바에따르면, 여성해방운동은임신중단을선택할자유, 레즈비언일자유, 성폭력과가정폭력에항거할자유를위해싸운다. 많은이들이이런문제들중에서도직장내젠더평등, 즉동일노동동일임금주장에는공감한다.

‘그리스도교’문화를바탕으로하는미국사회에서는신이정한바에따라가정에서는여성이남성의뜻을따라야한다는인식이퍼져있다. 취직을하는여성들이아무리많아도, 가정내에서실질적가장인여성들이아무리많아도, 미국사람들은가정에성인남성이있건없건남성중심주의논리가고스란히유지되는가정생활을이상적인것으로간주한다. 페미니즘운동이반남성주의라는그릇된인식은모든여성의공간은필연적으로가부장제와성차별주의가끼어들여지가없는장소일수밖에없다는그릇된생각과결부되었다. 심지어페미니즘정치에관련된사람들을비롯해수많은여자들이이렇게민었다.

남성중심주의에분노로대항했던초기페미니즘활동가들사이에서반남성정서가팽배했던것은사실이다. 여성들이해방운동을시작하게된게기가바로남성중심주의라는불의를향한분노였으니말이다. (다수가백인

자유, 그리고평등을인정하고북/서와남/동의담론들을관통하고이를넘어서는페미니즘이다.”

글로벌페미니즘의성장에대해공부한사람이라면우리의자유를확보하기위해여성들이중요한업적을성취했다는사실을아무도부인하지 못할것이다. 미국여성을필두로서여성들이이러한투쟁에상당부분기여해왔으며앞으로더그려야한다는사실도부인할수없다. 글로벌페미니즘은성차별주의와그에근거한착취그리고억압을종식하기위한전지구적투쟁에손내밀어하나로이어져야한다.

9 장: 일터의여자들

미국전체여성인구중절반이상이노동자다. 현대페미니즘운동이싹들때이미노동자중 3 분의 1 이상이여성이었다. 내가아는여자들은대부분아프리카계미국인이자노동자계급출신으로, 직장에다니고있었기에나는페미니즘운동초창기에직업이남성중심주의로부터여성을해방해줄것이라는개혁주의페미니즘사상가들의주장을격렬하게비판했었다. 10 년도더전에나는『페미니즘 — 주변에서중심으로』에서이렇게 썼다. “여성해방의열쇠로일을강조한결과, 수많은백인페미니스트활동가들이일하는여성들을두고‘이미해방되었다’고주장하게되었다. 그들은사실상일하는여성들에게‘페미니즘은당신들을위한것이아니다’라고말한셈이다.”하지만나는저임금노동이남성중심주의로부터빈곤층과노동자계급여성들을해방해주지않는다는사실을경험을통해알고있었다.

특권계급출신으로같은계급의남성과동등한사회적권리를얻는것을우선적인의제로삼은개혁주의페미니즘사상가들이일자리와해방을동일시했을때, 그들에게일자리란높은임금의직업을의미했다. 일에대한그들의생각은대다수여성의삶과무관했다. 페미니스트들이모든여성들의삶에영향을미치는일과관련한의제로동일노동동일임금보장을중심에뒀다는것은중요하다. 페미니스트들의저항으로여성들은봉급과직급면에서전보다는더많은권리를손에넣었으나젠더차별이완전히사라진것은아니었다. 오늘날수많은대학강의실에서여학생남학생할것없이학생들은이제여성이평등을쟁취했으니페미니즘운동은시효를다했다고주장할것이다. 그들은일반적인대다수여성들이동일노동동일임금을보장받지못한다는사실도, 남자가 1 달러를받을때여자는 73 센트밖에못받는다는사실도전혀모른다.

이제우리는일이여성을남성중심주의로부터해방시키지못한다는사실을잘안다. 실제로, 고액연봉을받는전문직여성도많고부유한여성도

성들과 우리의 급진주의 백인 자매들이 계속해서 벽에 몸을 던지며 저항해
야 했다.

수많은 페미니즘 활동가들이 인종과 젠더, 계급, 국적을 포괄하는 관점
을 채택했음에도, 백인 '파워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평등이 제국주의와
결부되어 있다는 식의 페미니즘 이미지를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여성 할레
의 강요, 태국의 섹스 클럽, 아프리카와 인도, 중동, 유럽에서 여성의 하잡
착용 문제, 중국의 여아 살해 같은 전 세계 여성들이 처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
하다. 그러나 서구의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페미니즘 사고와 실천을 탈식민
화해야 할 같은 문제들을 마주함에 있어서 제국주의가 다시금 끼어들지
못하도록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많은 서구 여성들이 아
프리카와 중동의 여성 할레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떠올려 보라. 대개 이
지역들은 '야만적이고 미개한' 곳으로 묘사되고 그곳에서의 성 차별주의는
미국에서의 성 차별주의보다 여성에게 더 인정사정 없고 위험천만하다는
식으로 그려진다.

탈식민지화된 페미니즘은 다른 무엇보다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성 차별
주의가 어떻게 전지구적으로 연결되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가령, (다른
몸을 이상적인 아름다움으로 간주하는 문화의 직접적인 산물인) 생명을 위
협하는 섭식 장애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성형 수술을 여성 할레와 연결지으
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관행에 자리한 성 차별주의, 여성 혐
오 misogyny 가 바로 여기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파악 (미
러링) 할 수 있다. 서구 제국주의의 개입 없이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페미니
즘이 초국적 자본주의에 의해서 구에서 전해진 또 하나의 명품처럼 왜곡되
지 않을 때까지 다른 문화권에 속한 여성들은 이를 소비할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

미국 내 급진주의적 여성들이 계급 상승을 노려 페미니스트 인척하는 기
회주의적 여성들과 맞서 싸우지 않는 한, 서구 글로벌 페미니즘의 기조는 진
부한 편견을 품은 채로 막강한 계급 권력을 진이들의 손에 좌우될 것이다. 급
진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인종과 민족, 국적의 경계를 넘어서 여성들 간의 정
치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매일 애쓰고 있다. 그러나 주류 연
론은 페미니즘의 이런 긍정적인 개입 사례에 좀처럼 주목하지 않는다. 질
라 아이젠슈타인¹³은 『증오들 — 21 세기의 인종 차별과 성 차별로 얼룩진
분쟁들 Hatreds: Racialized and Sexualized Conflicts in the 21st
Century』에서 다음과 같은 통찰력을 보여줬다.

“인종/젠더의 그릇된 경계와 잘못된 구축된 ‘타자’를 거부하는 초국적 페미
니즘 (들) 은, 남성화된 민족주의와 왜곡된 국가주의적 공산주의, ‘자유’
시장 세계화를 향한 중대한 도전이다. 초국적 페미니즘은 개인의 다양성과

이었던) 초기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은 대부분 페미니즘 운동에 뛰어들기 전
남성들과 함께 계급주의와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해 싸운 이들이었다. 그런데
이 남성들은 세상을 향해서는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정작 동료
여성들은 무시했고, 이런 환경에서 여성은 남성 중심주의의 본성에 대해 뼈
저리게 깨닫게 됐다. 사회주의를 위해 싸운 백인 여성이든, 인권과 흑인 해
방을 위해 싸운 흑인 여성이든,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싸운 아메리카 원주민
여성이든 이 사실만은 확실히 알게 됐다. 남성들은 자기네가 직접 운동을 이
끌고 여성들은 잡자고 뒤따라 오기를 원했다. 이러한 급진적 자유 투쟁을 경
험하면서 진보적인 여성들의 내면에서 반란과 저항의 정신이 깨어났고 마
침내 그녀들은 동시대 여성의 해방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현대 페미니즘이 진보하면서,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서 남성 만 성 차별
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성들이 깨달으면
서 반 남성주의는 더 이상 운동의 이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성 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후 운동은 젠더 평등
을 이루기 위한 전면적인 노력으로 그 중심이 옮겨갔다. 하지만 함께 연대해
페미니즘을 진전시키려는 여성들의 발목을 그녀들 내면의 성 차별주의적
사고가 붙잡았다. 여성들이 경쟁하듯 반목하는 한, 자매애는 강력해 질 수
없었다. 모든 여성은 어떤 식으로든 남성 중심주의의 피해자라는 현실 인식
만을 토대로 세워진 유토피아적 자매애는 계급과 인종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되자 무너져 버렸다. 현대 페미니즘에서는 초기부터 인종 논의에 앞서 계급
차별에 대한 논의부터 등장했다. 다이애나 프레스 출판사는 이미 1970 년
대 중반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적 대를 꿰뚫어 보는 혁명적인 통찰이
담긴 『계급과 페미니즘 Class and Feminism』이라는 에세이집을 출
간했다. 결코 ‘자매애는 강력하다’는 믿음을 무시해서 이런 논의를 한 게 아
니다. 이 책은 오히려 우리가 젠더와 계급, 그리고 인종을 통해 여성이 다른
여성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방식에 맞서야만 비로소 투쟁으로 맺어진 자매
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더불어 이러한 차이들을 다루는 정치적인 장
을 마련한 셈이었다.

현대 페미니즘 운동의 초기부터 흑인 여성들은 개별적으로 적극적 인 활
동을 했음에도 운동의 ‘주역’으로 대중 매체의 관심을 끌지는 못했다. 대개
페미니즘 운동에서 활동한 흑인 여성들은 (다수의 백인 레즈비언들과 마찬
가지로) 혁명적 페미니스트 revolutionary feminist 들이었다. 이들
은 이미 페미니즘의 미래를 기존 사회 체제 내에서 여성이 남성과 평등해 지
는 것으로만 그리려는 개혁주의 페미니스트 reformist feminist 들과 불
화 중이었다. 그러나 페미니즘 운동의 여러 그룹에서 인종 문제를 널리 논
하기 전부터 이미 흑인 여성들은 (그리고 그들의 혁명적 동맹자들은) 기존
의 백인 우월주의 자본주의-가부장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절대 남녀가
평등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환히 꿰뚫고 있었다.

¹³ Zillah Eisenstein, 1948~ . 미국의 급진주의 페미니즘 이론가이자 활동가. -역자주

페미니즘운동은초기부터양극화되었다. 개혁파들은젠더평등을더 중시했다. 혁명파들은기존체계를조금손보는것으로여성이좀더권리를 차지하는일에는관심이없었다. 아예그체계를뜯어고치고가부장제와성 차별주의를무너뜨리고싶어했다. 그러나가부장제하의대중매체는이런 혁명파의주장에는별관심이없었고당연히이주장은주류언론의관심을 전혀받지못했다. 예나지금이나대중의상상력을지배하는‘여성해방’의 이미지는남성의것을여성도가지는것이다. 그리고이런목표는혁명파의 주장과달리수월하게받아들여졌다. 경기침체와실업등미국경제에불어 닥친각종변화들로서민들이일터에서젠더평등개념을받아들이기좋은 상황이조성되었기때문이다.

인종차별이만연한현실을감안하면, 백인남성들이여성에게권리를 보장함으로써백인우월주의를유지하는데득이된다면여성의권리확대를좀더전향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주장은납득가능하다. 인종차별이법 적으로금지되고흑인이, 폭집어말하자면흑인남성이일터에서백인남성과동등한대우를받을수있게된민권운동의성공이후백인여성들이자유의확대를주장했다는사실을절대잊어서는안된다. 일터에서의젠더평등에주로초점을맞춰야한다는개혁적페미니즘은, 개혁을요구하면서도동시에사회구조를총체적으로재편해나라전체가근본적으로성차별주의에맞서게해야한다는현대페미니즘의급진적인토대에그림자를드리웠다.

특히특권층백인여성들을중심으로여성들이기존사회구조내에서경제력을획득하게되면서혁명적페미니즘의비전은고려대상에서멀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이혁명적페미니즘을가장잘포용한곳은학계였다. 학계에서는혁명적페미니즘을이론으로정립해발표했지만, 정작대중은이이론에쉽게접근할수없는경우가태반이었다. 결국이이론은우리중에서도학식이뛰어나고, 교육수준이높고, 대개경제적으로윤택한사람들이접할수있는특권층의담론으로자리잡았으며그런경향이지금까지도 이어지고있다. 페미니즘으로의변혁에관한해방적인비전을제시하는『페미니즘 — 주변에서중심으로』와같은작업은결코주류의관심을끌지못한다. 대중은이런책이존재한다는사실을들어본적도없다. 따지고 보면대중은이런책에담긴메시지를거부한적이없다. 그게무슨메시지인지도모르니말이다.

주류세력인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의입장에서는반남성주의노선을취하지않거나여성이남성과같은권리를누려야한다는주장에중점을두지않은페미니즘이론을억압하는편이득이었고개혁적페미니스트들도이들의목소리를지우려애썼다. 개혁적페미니즘은그들에게층이동의수단이였다. 그들은일터에서남성중심주의의속박에서벗어났고좀더주체적인라이프스타일을누릴수있게되었다. 성차별주의가여전히만연한상황에서도그들은기존체계내에서최대한자유를누리고자

계급관계가현대신식민주의에존재하는인종과민족, 젠더문제를더어버렸다. 물론페미니즘도이런역학관계와그리떨어져있지않았다.

미국페미니즘지도자들이자국내젠더평등의필요에대해처음으로목소리를드높였을때, 그들은비슷한운동이전세계여성들사이에서일어나고있는지에대해서는알아보려하지않았다. 대신에그들은자신들이해방되었기에이제자기네보다운없는자매들, 특히‘제 3 세계’여성들을해방할수있다고선언했다. 이러한신식민주의적온정주의는보수건진보건백인여성들만이페미니즘의실질적인대변자가되게끔유색인종여성들을일찌감치뒤편으로보내버렸다. 급진주의적백인여성들은잘‘언급’되지도않았고, 설령그런대도대개운동의주변부를맴도는과소한여자로묘사되었다. 그러므로 1990 년대의‘파워페미니즘’이부유한백인이성애자여성들을성공한페미니스트의예로들었다대전혀놀랍지않다.

사실그들의헤게모니는평등에대한페미니즘의레토릭을멋대로가져다쓰으로써, 그들이지배계급과결탁해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에머물고있다는사실을교묘하게감추었다. 급진주의페미니스트들은(인종을불문하고) 수많은여성들이페미니즘용어를구사하면서로서구제국주의와초국적자본주의에부역하는모습을보고는경악했다. 미국내페미니스트들이전세계여성의평등을위해싸우고자한것은옳은일이었지만, 계급권력을가진개별페미니스트들이제국주의적환상을전세계여성들에게투사해문제가발생했다. 이들은미국여성들이지구상의어떤여성들보다더많은권리를누리고있으며원하기만하면얼마든지‘자유로워질’수있으니페미니즘운동을이끌고전세계여성들, 특히제 3 세계여성들을위해페미니즘의제를정할권리가있다는환상을유포했다. 이러한사고는서구남성들로이뤄진지배집단의제국주의적인종차별주의와성차별주의의단순한미러링에불과하다.

대부분의미국여성들은식민주의나신식민주의라는용어를모르거나아예사용하지도않는다. 그렇긴하나대부분의미국여성들, 특히백인여성들이미국이나전세계에서자신들보다임지가좁은여성들을대하는태도를보면식민주의에기반한인종차별주의와성차별주의, 계급엘리트주의가배어있음을알수있다. 페미니즘사상가들이이문제에대해각성하지 못한채, 전지구적차원의젠더착취와억압문제를다루는한그들의관점은예나지금이나신식민주의를벗어나지못한다. 그런점에서『야간시력 — 신식민지에서의전쟁과계급고찰 Night-Vision: Illuminating War and Class on the Neo-Colonial Terrain』에서급진주의백인여성들이“신식민주의를이해하지못한다면이시대를충실하게사는것이아니다”라고지적했음을눈여겨보아야한다. 각성하지않은백인페미니스트들은미국인으로서는의심, 그러니까그들이예나지금이나제국주의-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와결탁해행동하고있다는현실을좀처럼인정하기꺼렸기에, 이러한부인의벽을허물기위해서는흑인/유색인종여

계급을 둘러싼 현실이 바뀌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여기에 더해 가난의 여성화가 진행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릇된 길로 가는 페미니즘에 중요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과거의 강점을 기반으로 하고 개혁에 따른 긍정적인 성과를 포함하며 대중을 대상으로 삼는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페미니즘 운동의 전망은 노동자 계급과 빈곤층 여성과 같은 구체적인 기반을 토대로 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계급 권력을 가진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저소득자를 위한 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비판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페미니즘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조합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페미니즘 투쟁이 모든 여성의 삶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계급 권력을 가진 여성들이 기회주의적으로 페미니즘을 이용하고 한편으로 페미니즘 정치의 기반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그들을 다시 종속시킬 가부장제의 유지를 도왔다면 그들은 페미니즘만 배신한 게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배신한 셈이다. 페미니스트라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계급 문제 제로 되돌아가 거기서 다시 연대를 위한 토대를 쌓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계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원을 공유하고, 개인적 성장을 위한 기회를 얻어 미래를 더 생생히 그릴 수 있을 것이다.

8 장: 글로벌 페미니즘

자유를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싸웠던 여성 투사들은 가부장제와 남성 중심주의에 맞서 홀로 고군분투했다. 지구에 최초로 출현한 인류는 백인이 아니었으니 남성 중심주의에 최초로 반기를 든 여성도 백인은 아니었으리라.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서구 문화에서 신식민주의 사고는 다양한 문화적 관행을 관통하는 어떤 기조를 확립한다. 이를테면 신식민주의 사고는 언제나 누가 영토를 정복했는지,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누구에게 지배권이 있는지에 주목한다. 현대 페미니즘 정치의 신식민주의에 대한 급진적인 대응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다.

특권 계급 백인 여성들은 페미니즘 운동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각색 선언함으로써 페미니즘 운동을 지지하는 노동자 계급 백인 여성들과 빈곤층 백인 여성들 그리고 모든 유색인종 여성들을 추종자로 전락시켰다. 노동자 계급 백인 여성이나 개별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흑인 여성들이 여성 운동이 급진화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지는 중요치 않았다. 결국 계급 권력을 전 백인 여성들이 페미니즘 운동을 자기네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자신들은 지도자이며 나머지는 추종자일 뿐이라고 못박은 셈이었다. 기생적

했다. 그리고 그들이 거부한 곳은 일은 착취당하는 종속된 하층 계급 여성들이 떠맡을 터였다. 그들은 노동자 계급과 가난한 여성들의 종속을 수용하고 오히려 이와 결탁함으로써 기존 가부장제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성차별주의와 동맹을 맺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남성 과대 등한 대우를 받으며 일한 대도, 가정에서는 대등하길 원할 때만 권리를 요구하는 이중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바란다. 레즈비언이라면 직장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대우받는 특혜를 누리면서, 한편으로는 계급 권력을 이용해 남성과 거의 혹은 전혀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 생활을 꾸릴 수도 있다.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성의 수만큼 다양한 페미니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개념을 낳았다. 불안한 페미니즘에서 정치 성이 서서히 없어졌다. 그리고 정치 성향이 보수건 진보건 여성이라면 페미니즘을 평생 라이프스타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분명 이런 식의 사고 덕분에 페미니즘은 좀 더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었는데, 여성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문화에 도전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않아도 페미니스트일 수 있다는 전제가 그기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임신 중단 문제를 예로 들어 보자. 페미니즘이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억압을 종식하려는 운동이고 여성에게서 임신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시도가 그런 억압의 한 형태라면, 임신 중단권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페미니스트가 될 수는 없다. 자신은 임신 중단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여성은 다른 여성의 선택권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페미니즘 정치를 옹호할 수 있다. 임신 중단권을 반대하면서 페미니즘을 옹호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타인을 착취하고 억압하여 얻은 권력에 서파생했다면 '파워 페미니즘'이라는 개념도 있어서서는 안 된다.

페미니즘 운동이 선행한 뜻을 상실했기 때문에 페미니즘 정치의 그기세를 잃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겐 그러한 뜻이 있다. 그것을 되살리자. 널리 알리자. 새롭게 시작하자. 페미니즘이 무엇인지 세상에 제대로 전하자. 티셔츠를 입고 자동차 범퍼에 스티커를 붙이자. 엽서를 쓰고 힙합 음악으로 만들자. 텔레비전과 라디오 광고며 곳곳에 자리한 광고판으로 페미니즘을 알리자. 갖가지 인쇄물로 페미니즘을 전파하자. 이로써 페미니즘이 성차별주의적인 억압을 종식하려는 운동이라는 메시지를 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이 운동에 다시 불을 붙이자.

2 장: 의식화 — 꾸준한 회심 회心

페미니스트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덮어놓고 페미니즘 정치를 옹호하는 건 아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으레 그렇듯이 페미니즘 신봉자도 선택과 행동으로 페미니즘 정치를 택한다. 성차

별주의와남성중심주의에대해이야기나누기위해처음으로모임을조직했을당시여성들은, 여성도남성처럼성차별주의적인사고와가치를밧도록사회화되었다는것, 그리고남녀간에차이가있다면여성보다남성이성차별주의때문에더많은혜택을보고그렇기에가부장제로인한특권을쉽사리포기하려들지않으리라하는사실을똑똑히인식하고있었다. 여성들은가부장제에앞서우리자신부터바꿔야했다. 우리자신부터의식화해야했다.

혁명적페미니즘의의식화교육에서는지배체계로서의가부장제에대해꼭배워야한다고강조했다. 다시말해, 가부장제가어떻게일상화되었으며어떻게유지되고영구화되는지알아야한다고했다. 남성중심주의와성차별주의가일상에서어떻게표출되는지를이해하면우리여성들이어떻게희생되고, 착취당하고, 더나쁜경우학대받는지에대한의식을일깨울수있다. 현대페미니즘운동초기에조직된의식화모임에서여성들은희생자가되는상황에대해억눌렀던적대감과분노를표출하곤했고중재와변화를위한전략을세우는일은거의또는전혀할수가없었다. 상처받고착취당하는수많은여성들에게의식화모임은기초수준에서의심리치료과정이었다. 그곳에서그들은아무에게도내보이지않았던내밀하고도깊은상처를터놓고드러냈다. 이런고백은마치치유의식같았다. 여성들은의식화되면서일터와가정에서가부장제폭력에맞설힘을얻었다.

여기서주목해야할점은, 이일로여성들이자신의성차별주의적사고를되돌아보게되었고, 그결과페미니즘적사고로전환하고페미니즘정치에전념함으로써우리의태도와믿음을바꿀수있는전략을세워의식화의토대를만들었다는사실이다. 근본적으로의식화모임은사고전환의장이었다. 대중적인페미니즘운동을만들기위해서는여성들을조직화해야했다. (빌리거나공짜로제공받거나해야하는공공장소보다) 대개누군의집에서열린의식화모임은만남의장소였다. 여기서노련한페미니즘사상가들과활동가들이새로운개심자들을모집하기도했다.

무엇보다의식화모임에서는소통과대화를중요의제로여겼다. 여러모임에서모두의목소리를존중한다는방침을세웠다. 여성들은순서를정해발언함으로써모두가목소리를내게했다. 위계없는토론모델을만들기위해참석자모두에게적극적으로발언기회가주어졌지만그때문에대화가맥락없이이뤄지는경우도찾았다. 그럼에도대부분의경우보통모든참가자가적어도한번씩발언한뒤토론과논쟁이이어졌다. 의식화모임에서논쟁은흔했는데, 이는남성중심주의의본질에대해집단차원에서명료하게이해하기위해서였다. 오로지토론과의견충돌을통해서만젠더착취와억압에대한현실적인관점을모색할수있었다.

참석자들이끼리서로잘아는(그들은직장동료혹은친구사이였을것이다) 소규모모임에서페미니즘적사고가처음그모습을드러냈는데, 이를더광범위하게전파하고자문서화하고이론화하는과정에서의식화모임

들어여성이기존사회구조와결탁한대가로얻은것이바로‘여성해방’이다. 결국계급권력이페미니즘보다더중요한것으로판명되었다. 그리고이런결탁이페미니즘운동의약화에한몫했다.

여성들이남성과다를바없이활동하게되고더높은계급지위와더큰권력을손에넣자페미니즘정치는약화되었다. 수많은여성들이배신감을느꼈다. 페미니즘열풍에휩쓸려느닷없이노동자가된중산층과중하위층여자들은집밖에서일을해도배우자가집안일을공동으로분담하지는않는다는잔인한진실을깨닫고더이상해방감을느끼지못했다. 무귀책이혼¹²은여성보다남성에게경제적으로더유리하다는사실도알려졌다. 수많은흑인·유색인종여성들은개혁주의페미니즘이거둔결실이나, 차별철폐조치 affirmative action 에더해진젠더차별철폐등을통해다른어떤그룹보다도특권계급백인여성들이더많은경제적이득을얻는모습을보며페미니즘이결국백인의권력을강화해줄뿐이라는것을새삼확인했다. 특히정부가미혼모를공격하고복지제도를와해시켜도페미니즘운동이대중적저항의움직임을보이지않았다는사실을페미니즘의제들에대한가장심각한배신행이었다. 스스로를페미니스트라자칭한특권계급여성들은‘가난의여성화’라는문제에간단히등을돌렸다.

‘파워페미니즘’의목소리는, 특권계급이아닌그들들을향한연대를배신하지않고도계급권력을확대한여성페미니스트들의목소리에비해훨씬더자주언론의관심을받는다. 우리의목표는예나지금이나페미니즘정치에충실하면서한편으로는경제적으로자립하고다른여성들이더윤택한삶을살수있도록도움방법을모색하는데있다. 여자들이기존자본주의·가부장제와결탁해야만경제적이득을얻을수있다는전제가참이아님을우리는경험으로안다. 미국곳곳에서페미니스트들은혁명적인사회변혁의비전을지지하며, 계급권력을갖고서도계급에상관없이모든여성의삶을개선할개혁을도모하기위해우리의힘을이용하고자원을공유하고있다.

여성해방의유일한진짜희망은, 계급엘리트주의에맞서사회를변화시키려는상상력에달려있다. 서구여성들은계급권력을손에넣었지만전세계적으로백인우월주의·가부장제가제 3 세계여성들을노예화하거나그들의예속을지속시키기때문에젠더불평등은더욱심화되었다. 미국은호황을구가하는교도소산업과노동연계복지지를지향하는복지정책을, 보수적인이민정책과결합해계약노예제가생성될조건을형성하고이를용인하고있다. 복지제도가종식되면기존지배의구조에서학대와착취를당하는여성과아이들로구성된새로운최하층계급이등장할것이다.

¹² 한국의협의이혼과비슷한개념으로, 일정기간별거한후별거를사유로한쪽이법원에이혼신청해법원의결정에따라이혼하는방식.-역자주

권계급여성들은페미니즘운동내에서특권없는여성들의도전에부딪히며구체적인계급투쟁의정치를배웠고, 또한그과정에서자기주장을말하는기술과갈등에대처하는건설적인방법도배웠다. 그러나수많은특권계급백인여성들은건설적인개입에도아랑곳하지않고페미니즘을자기네전유물인양, 자기네가리더인양굴었다.

이사회를지배하는가부장제는특권계급여성들의이해관계만주목할가치가있다는식의인식을강화했다. 개혁주의페미니즘은기존구조를유지하며여성의사회적평등을실현하고자했다. 특권계급여성들은같은계급내의남성들과동등한권리를원했다. 자신이속한계급내에성차별주의가만연함에도그들은노동자계급남성들과같은운명에처하기는원하지않았다. 같은계급의남성과사회적평등을이루려는페미니즘의노력은비백인에게도경제력과특권을손에넣은기회가동등하게주어지면백인의힘이약화될것이라는백인우월주의-가부장제-자본주의의두려움과교묘히겹쳤다. 개혁주의페미니즘은사실상백인권력을지지함으로써, 주류인백인우월주의-가부장제가권력을강화하는상황을방조했으며동시에급진주의페미니즘정치를약화시켰다.

페미니즘운동이보인이러한야합적인행태에분노한것은혁명적페미니즘사상가들뿐이었다. 대안언론은우리의비판과분노에귀를기울여줬다. 급진주의백인활동가메리바풋 (Mary Barfoot) 은자신의에세이집『흑인대학살의도래 The coming of Black Genocide』에서대담한주장을했다.

“1970 년대의여성운동이자매애를의미한다고믿었기에, 에스컬레이터를탄여성들에게배신감을느낀상처입고분노하는백인여성들이있다. 가부장제가지배하는집으로돌아가는여성들에게말이다. 그런데여성운동은단한번도아버지‘딕 (Dick)’을떠나본적이었다. ... 전쟁은없었다. 그러므로해방도없었다. 우리는대학살의이익을나눠가졌으며거기에만족한다. 우리는가부장제의자매들이자국가와계급억압의진정한지지자들로, 가부장제가가장발전한형태가전세계적규모의유럽제국주의다. 만약우리가아버지딕의자매이고그가가진것을원한다면, 결국우리는그가모든것을갖게만들어준체제를지지하는것과다름없다.”

정말이지자신이계급엘리트주의보다백인우월주의를벗어던지는편이훨씬수월하다는사실을깨닫는페미니스트여성들이점점더늘고있다.

특권계급여성들이같은계급의남성들처럼경제력을철기회가커지면서페미니즘운동내에서계급에대한토론은더이상쉽게접할수없게됐다. 대신여성들은부유한여성들이거둔경제적성공을모든여성들을위한긍정적인징표로삼으라는압력만받았다. 실제로이런성공이빈곤층과노동자계급여성들의삶을바꾸는경우는드물었다. 게다가특권계급남성들은가정에서아내와가사노동을똑같이분담하지않았기에인종을불문하고특권계급여성들의종속상태를유지해야만했다. 그렇게 1990 년대에접어

은와해되었다. 여성학이학문으로정립되자여성들이페미니즘사상가이론에대해배울수있는또다른통로가생겨났다. 여성학수업이대학에개설되도록알장선여성들은대부분민권운동과동성애자인권운동, 초기페미니즘운동에나섰던급진적활동가들이었다. 그들은대부분박사학위가없었는데, 그말인즉그들이다른학과의동료들보다더낮은임금과더긴노동시간을감수하며학교로들어왔다는뜻이다. 여성학을정식학문으로공식화하려는움직임에젊은대학원생들이합류했을즈음, 우리는더높은학위를따는게중요하다는사실을인지하고있었다. 우리대부분은여성학연구에매진하는게페미니즘정치를위한실천이라고생각했다. 페미니즘운동을위한학문적기틀만다질수있다면언제든지희생할작오가되어있었다.

1970 년대후반, 여성학은어엿한정식학과로자리잡아갔다. 이러한승리는여성학제도화의길을닦은여성들이대부분박사가아니라석사라는이유로해고됨으로써무색해졌다. 우리중일부는박사학위를다기위해학교로돌아갔지만가장명석하고뛰어났던사람들은끝내그리지않았다. 상아탑에몸시환멸을느끼기도했거나와과로로탈진하기도했고여성학을듣는게받쳐주었던급진적인정치가진보적개혁주의로대체될것에실망하고분노했기때문이다. 얼마가지않아여성학강의실이누구나참가할수있는의식화모임을대체했다. 전업주부나서비스업종사자, 일류전문직여성처럼각양각색의여성들이광범위한의식화모임에참석했던시절과달리학계에는어나지금이나계급특권의장이다반드시현대페미니즘운동을이끌었던급진적지도자들과고할수없는데도수적으로다수였던중산층백인여성들이자주유명세를탔는데, 대중매체가투쟁의대변자로그들에게초점을맞추었기때문이다. 혁명적페미니즘의식을가진여성들은다수가레즈비언이고노동자계급출신이었는데, 운동이주류의관심을받을때면이들은있어도보이지않는존재로간주됐다. 여성학이보수적인합의기구인대학에자리를틀자비로소이런식의추방이완성됐다. 여성학강의실이페미니즘사교로의전환이이루어지는주요장이자사회변혁을이끌어낼전략인의의식화모임을대체하자, 페미니즘운동은대중적기반을다질가능성을잃고말았다.

갑자기자신을‘페미니스트’라고칭하거나경제적지위를바꾸기위해젠더차별적인표현을이용하는여성들이점점더 많아졌다. 여성학이제도화되자학계와출판계에여러직업군이등장했다. 페미니즘이경력을 쌓는 도구로변질되면서, 정치적으로대중적인페미니즘투쟁에참여해본적없는여성들이자신의계급상승에유리하다면기꺼이페미니즘의입장과용어를수용하는기회주의가이어졌다. 의식화모임이와해되면서페미니즘의옹호자가되려면페미니즘에대해배우고그에근거해페미니즘정치를수용할지말지선택해야한다는의식도희미해졌다.

의식화모임으로여성들이자신만의성차별주의적시선으로다른여성들을바라본다는사실과대면하게됐으나이런모임이와해되면서페미

니즘운동은 직장에서의 평등과 남성중심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운동방향을 전환했다. 여성을 (차별적인 법률을 개정하거나 차별철폐 조치를 통해) 보상받아야 할 젠더평등의 '피해자'로 해석하는데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여성들이 페미니스트가 되는 과정에서 우선 내면화된 성차별주의부터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잃고 말았다. 여성들은 연령을 불문하고 남성중심주의나 젠더평등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분노하기만 하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듯이 행동했다. 내면화된 성차별주의를 직시하지 않은 채 페미니즘의 가치를 든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페미니즘을 배반하곤 했다.

1980년대 초가 되자 페미니즘 운동 초기에만 해도 몹시 중요시했던 정치화된 자매애가 희미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여성이라면 정치적인 입장에 상관없이 누구나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의 그림자가 급진적 페미니즘 정치에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사고방식은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 페미니즘 정치를 약화시켰다. 페미니즘 운동이 우리 모두를 위해 성차별주의와 그에 근거한 억압과 착취를 종식시키는 대중운동으로 거듭나는 전략들을 끊임없이 강화해 가면서 다시 태어날 때, 의식화는 다시 한번 본래의 중요성을 되찾을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을 효과적으로 본떠서 페미니즘의 식화 모임이 공동체마다 열린다면, 계급이나 인종, 젠더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페미니즘에 담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체성을 공유하는 특정 집단이 속속 나타나 매월 말이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게 될 것이다.

혁명적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남성의 페미니즘의식화가 여성의 의식화만큼이나 중요하다. 만약 우리가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남성에게 성차별주의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바꾸나 갈 수 있는 지역점을 두고 가르쳤다면 대중매체가 지금처럼 페미니즘 운동을 반남성운동이라고 묘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반페미니즘을 표방하는 남성들의 운동도 미연에 방지했을 것이다. 정작 성차별주의와 남성중심주의는 제대로 건드리지 않았던 현대 페미니즘의 뒤를 쫓아 이런저런 남성단체들이 생겨났다. 여성을 겨냥한 라이프스타일 페미니즘이 그랬듯이, 이런 단체들도 가부장제를 비판하거나 남성중심주의에 저항하기보다는 남성들이 상처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공간으로 기능했을 뿐이다. 미래의 페미니즘 운동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성차별주의에 저항하는 남성들은 누구든 그에 합당한 인정과 존중을 받는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남성과 연대해 투쟁하지 않고서 페미니즘 운동은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문화적인 식체계에 페미니즘은 곧 반남성운동이라는 억측이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에 반대한다. 남성의 특권을 벗어던지고 페미니즘 정치를 기꺼이 포용한 남성은 투쟁의 소중한 동료이지 페미니즘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다. 반면 여성이라 해도 성차별주의적 사고와 행동에 젖은 채 페미니즘 운동에 잠입한 여성은 운동에 해

이기울인 노력덕에 모든 여성들의 삶은 이전보다 나아질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들이 계급 권력을 손에 넣는 동안 그밖의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남았다는 사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해 직장환경을 개선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노력이 어떻게 계급이 이익으로 치환되는지 잘 보여준다.

계급 문제를 제기한 최초의 활동가들 가운데 레즈비언 페미니즘 사상가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누구나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자신의 관점을 전할 줄 알았다. 그녀들은 애초에 생계를 의탁할 남편의 존재를 기대할 수 없었다. 또 일터에서 모든 여성들이 겪는 온갖 어려움에 대해 이성애자 여성들보다 더 민감하게 인식했다. 1970년대 초반 살렛 벤치⁹와 낸시 마이런¹⁰이 역은 『계급과 페미니즘 Class and Feminism』 같은 작품집에는 여러 페미니스트 그룹에서 계급 문제와 맞닥뜨린 다양한 계급의 여성들이 쓴 글이 담겨 있다. 이 글들은 저마다 계급은 단지 돈 문제가 아님을 강조한다. (당시는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던) 리타 매브라운¹¹은 『최후의 지푸라기 The Last Straw』에서 이렇게 명확히 밝혔다.

“계급은 생산수단과의 관계라는 마르크스의 정의의 훨씬 뛰어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계급은 당신의 행동과 기본전제, 당신이 어떻게 처신하도록 배웠는지, 스스로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계급으로 구성된 페미니스트 그룹에서 활동해 온 여성들은 계급 문제와 맞서지 않으면 모든 여성들이 단결해 가부장제와 싸우는, 자매애를 토대로 한 정치적 유토피아가 절대 출현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다.

페미니즘의 제에 계급 문제를 포함하자 계급과 인종간 교차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인종과 성별, 계급이 사회체제로 제도화된 우리 사회에서 흑인 여성은 명백히 경제라는 계급제의 말단을 차지했다. 초기 페미니즘 운동에서 노동자 계급에 속한 고학력자 백인 여성들은 다른 모든 계급의 흑인 여성들보다 더 눈에 띄었다. 이 백인 여성들은 운동 내에서 소수였지만 경험에서 우러난 목소리를 냈다. 그들은 인종과 계급, 젠더 권력에 저항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다른 인종의 특권 계급 동지들보다 더 잘 알았다. 그들은 경제 상황을 바꾸기 위한 투쟁이 어떤 것인지도 잘 알았다. 그들과 특권 계급 여성들은 적절한 행동 방향과 페미니즘이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사안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쟁했다. 한번도 좌파의 자유투쟁에 참가해 본 적 없었던 특

⁹ Charlotte Bunch, 1944~ . 미국의 페미니스트 작가이자 인권운동가. -역자주

¹⁰ Nancy Myron, 1943~ . 여성동성애와 페미니즘 운동에 대한 글을 쓰는 작가. -역자주

¹¹ Rita Mae Brown, 1944~ . 미국의 작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 추리소설작가로도 유명하다. -역자주

나혁명적인세력은서로충돌할수밖에없었다. 그러나페미니즘운동이진보하면서고학력자백인여성들로구성된특권그룹이백인남성과동등한계급권력을손에넣게되자, 계급투쟁은페미니즘운동에서중요성을잃고말았다.

특권계급여성들은대중의관심을끄는부류였기에페미니즘운동초기부터자신들의관심사를‘최우선’과제로부각시킬수있었다. 그들은대중매체를매혹했다. 노동자계급여성들이나대다수여성들이가장중시하는문제에대해주류언론은전혀주목하지않았다. 베틀프리단은『여성의신비』⁸에서여성이전업주부가정에속박되고예속된다고느끼는데서오는불만을“이름없는문제”라고이름붙였다. 이문제를여성전체의위기인양제시했지만실제로는소수의고학력자백인여성들의위기였을뿐이다. 그들이가정에속박될지도모른다는위험에대해불평할때, 이나라의수많은여성들은일터로향했다. 저임금에장시간노동을하면서도모든집안일을도맡아야했던여성노동자들중다수에게전업주부가될권리는오히려‘해방’처럼보였을것이다.

인종에관계없이특권계급여성이가정밖에서일할수없었던것은젠더차별이나성차별주의적억압때문이야 아니라, 그들이구할만한일이노동자계급여성들에게도문이열려있는, 특별한기술이필요없는저임금직종이어서였다. 고학력자엘리트여성들은상당수의중하위층그리고노동자계급여성들과같은일을하느니차라리전업주부가되는편을택했을뿐이다. 때로는이런여성들가운데일부가들을깨고직업전선에뛰어들어자신의교육수준에못미치는일을하며남편과가족의저항에부딪치기도했다. 이러한저항때문에그들은집밖에서마주치는노동문제를젠더차별문제로바꾸었으며가부장제에저항하고같은계급의남성들과동등한권리를누려야한다는주장을페미니즘이계급투쟁대신정치강령으로채택하게이끌었다.

특권계급인개혁주의백인여성들은처음부터같은계급의남성들이누린다고생각한자유와권력을똑같이원한다는걸알았다. 가정에서의가부장제남성중심주의에대한그들의저항은계급을떠나남성중심주의가지긋지긋한여성들을몽치게했다. 하지만특권을가진여성들만이가정을벗어나일자리를구함으로써경제적으로자족할수있는소득을손에넣으리라기대하는호사를누렸다. 노동자계급여성들은자기네임금으로는결코해방될수없다는사실을잘알았다.

개혁주의적한계에도불구하고, 여성노동자들이임금은더많이받고직장내젠더차별과성희롱은덜겪는환경을만들기위해특권계급여성들

를입히는위험한존재다. 그런점에서의식화모임이거둔가장강력한성공은, 모든여성에게내면화된성차별주의, 다시말해가부장제적사고와행동에대한충성과현신을직시하고페미니스트로거둔나라고추구한것이다. 이러한개입은여전히필요하다. 페미니즘정치를선택한사람이라면누구든이런단계를꼭거쳐야한다. 외부의적과맞서려면그전에내면의적부터변화시켜야한다. 우리를위협하는적은성차별주의적사고와행동이다. 여성이자신의성차별주의를직시하지도바꿔내지도못한채페미니즘정치의기치를내건다면페미니즘운동은끝내소멸해버릴것이다.

3 장: 자매애는여전히강력하다

‘자매애는강력하다’는구호가처음등장했을때정말이지굉장했다. 내가페미니즘운동에본격적으로뛰어들던건대학교 2 학년에올라가면서부터였다. 스탠퍼드대학으로옮기기전 1 년동안여대를다녔는데, 그덕분에여학생들만있는강의실과남녀가섞인강의실에서여학생들의자존감과자기주장이어떻게다른지경험할수있었다. 스탠퍼드에서는어느강의실에서든남학생들이주도권을잡았다. 여학생들은발언도잘하지않았고학습을주도하는경우도별로없었던데다발표를해도종종뭐라고하는지잘들리지않을정도로작게말했다. 그들의목소리에는패기와자신감이없었다. 설상가상으로남자교수들은수시로여학생이남학생보다지적능력이떨어지므로‘위대한’사상가나작가등이될리없다고말했다. 앞서다녔던여대에서는대부분이여자인교수진이학생들과그들자신을위해세워놓은학업성취도기준에따라학생들의지적능력과가치를지속적으로독려해줬기에그런분위기가몹시충격적이었다.

사실나는가장좋아했던백인여성영문학교수님에게큰은혜를입었다. 그녀는우리학교에는글쓰기심화프로그램이없어서내가적절한지도받지못할것이라고판단했고, 내가스탠퍼드대학으로옮겨공부하게끔격려해주었다. 그녀는내가언젠가는뛰어난사상가이자작가가되리라믿어주었다. 스탠퍼드에오자사람들이계속해서내능력에의문을제기했고, 나조차도스스로를믿지못하는상태에이르렀다. 그러고얼마뒤페미니즘운동이캠퍼스를뒤흔들었다. 여학생들과여자교수들은강의실안팎에서일어나는젠더차별을철폐하자고주장했다. 우아, 지금생각해도치열하고도근사한시절이었다. 그때나는작가틸리올슨²에게서생애최초로여성학수업을들었다. 틸리올슨은무엇보다학생들이노동자계급여성

⁸ 미국의페미니스트이자사회심리학자베틀프리단 (Betty Friedan, 1921~2006) 이쓴책. 원제는『The Feminist Mystique』로, 국내에는『여성의신비』라는제목으로소개된바있다.-역자주

² Tillie Olsen, 1912~2007. 1 세대미국페미니스트이자작가.-역자주

들의 운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게끔 이끌었다. 당시 학자였고 훗날 앤섹스턴³의 전기를 쓴 다이앤 미들브룩⁴은 현대 시 수업 시간에 내가 쓴 시 한편을 누가 썼는지 적지 않은 채 모두에게 나눠 주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은이 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맞혀 보라고 했다. 성별을 근거로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게 하는 시도였다. 그때 열아홉살인 나는 첫 책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 흑인 여성과 페미니즘』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놀라운 변화들은 여성들이 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페미니즘 운동이 없었더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토대는 당시 우리가 “내부의 적”이라 불렀던 내면화된 성차별주의에 대한 자발적인 비판 위에 세워졌다. 우리 모두가 가부장제적 사고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기고, 가부장제에서 인정받기 위해 언제나 여성들끼리 서로 경쟁해야 하고, 서로를 질투심과 공포, 증오에 찬시선으로 바라보도록 사회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성차별주의적 사고 탓에 우리는 서로의 처지를 공감하기보다 서로를 가혹하게 벌주려 했다. 그러나 페미니즘은 우리 여성들이 자기 혐오를 떨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의식을 단단하게 엮어 매던 가부장제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가부장제 문화에서 남성들의 유대는 인정과 지지를 받는다. 사람들은 남성들이 집단을 만들면 단결하고,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고, 개인적인 성취와 인정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아주 당연시해 버린다. 하지만 가부장제에서 여성들의 유대는 불가능했다. 그런 행동 자체가 반역 행위였다.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들의 유대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었다. 우리는 남성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다. 우리가 여성 작가의 작품을 가르치지 않는 교수들에 맞선 것은, 그 교수가 싫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강의실과 커리큘럼에만 연한 젠더에 대한 편견을 제대로 물아내고 싶어서였다.

1970년대 초반, 남녀공학 대학에서 학생들이 페미니스트로 변모했듯이 일터와 가정에서도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에게 더 이상 자신과 자신의 몸을 남자의 소유물로 인식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결정권과 효과적인 피임, 임신 선택권, 강간과 성희롱의 근절을 요구하기 위해 우리는 단결해야 했다. 여성이 겪는 고용 차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여 공공 정책을 개선해야 했다. 여성의 내면화된 성차별주의적 사고를 끄집어 내 이를 뜯어고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 강력한 자매애를 만들 기 위한 첫 걸음이었다.

³ Anne Sexton, 1928~1974. 풀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여성 시인으로 정신 질환을 앓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역자주

⁴ Diane Middlebrook, 1939~2007. 스탠퍼드대에서 오랫동안 여성학을 가르치며 성전기 작가이자 시인. -역자주

적이든 자신의 몸매에 신경을 쓰고 살을 골칫거리로 여기도록 사회화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다양한 사이즈와 체형을 가진 여성이 예쁘게 입을 만한 옷을 파는 가게들도 있으나 대개 이런 곳에서는 패션 업체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판매하는 옷보다 훨씬 비싸게 판다. 최근 들어 패션 잡지가 점점 더 과거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남성 필자가 쓴 기사들이 늘어간다. 페미니즘 시각에서 작성했거나 페미니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사들은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패션도 성차별주의적 감수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흘러간다.

원숙한 나이에 접어들 수 많은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한 대체 모델을 모색하기에, 이러한 성차별주의적 변화들은 공공연하게 인식되진 않는다. 하지만 성차별주의적으로 정의된 미의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투쟁을 그만둔다면, 우리 몸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해준 페미니스트의 개입이 낳은 눈부신 성과가 그대로 무너질지도 모른다.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성차별주의적 인 기준을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인지 모든 여성들이 전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위험을 완전히 없애 버리지도, 그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 내지도 못했다.

가부장제적인 감수성이 미용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도록 좌시한다면, 십대를 포함한 젊은 여성들은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아름다움과 치장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할 것이다. 딱딱한 페미니스트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의 욕망을 묵살해 결국 페미니즘 정치가 훼손돼 버렸다.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이런 고지식 함은 이제 보기 드물지만 대중매체는 페미니스트들의 생각 인양이를 전파한다. 페미니스트들이 미용 산업으로, 패션 업계로 돌아가지 속적인 혁명에 불을 지피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해방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이다.

7 장: 페미니즘 계급 투쟁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계급 문제와 그로 인한 여성들의 분열에 대해 인종 문제보다 더 오래 전부터 논의해 왔다. 새롭게 형성된 여성 해방 운동 내에서도 대체로 백인이 주류인 그룹에서 여성들을 가르치는 가장 뚜렷한 기준은 다름 아닌 계급이었다. 노동자 계급 백인 여성들은 페미니즘 운동에도 계급 위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기본적으로 기존 계급 구조를 유지하되 여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는 여성 해방 운동 개혁파, 그리고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낳은 패러다임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상호성과 평등을 기본으로 하는 모델을 세우자는 좀 더 급진적이지

페미니즘운동의태동기때이십대초반이었던여성들이이제사십대후반을지나오십대에들어섰다. 페미니즘은여성의몸을바라보는시각을바꿔주어여성들도나이들을좀더긍정적인경험으로받아들이게되었지만가부장제사회에서나이든여성으로의현실, 특히생물학적으로더이상아이를가질수없는현실과직면하자, 수많은여성들이여성미를정의하는고루한성차별주의적인기준을다시받아들였다.

현재미국에는역사상그어느때보다마흔을넘긴이성애자독신여성의수가 많다. 이들이남성의관심을차지하기위해더젊은여성들(이들중대다수는페미니스트가아니고앞으로도그렇일이없을것이다)과경쟁하다보면여성의미에대한성차별주의적인기준을따르게된다. 성차별주의적으로정의된미의기준을다시미화하려는움직임은분명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적패션업계와화장품업계의이익과맞아떨어졌을것이다. 대중매체도그에부화뇌동한다. 영화와텔레비전프로그램, 광고에나오는, 배불리먹을수만있다면무슨짓이든할것같은비쩍마르고급발로염색한여자들의이미지가미의표준이되었다. 여성스러운아름다움에대한성차별주의적이미지들로가득찬복수심에불타는역풍은페미니스트들이거둔상당한진보를되돌리려위협하고있다.

요즘여성들은생명을위협하는섭식장애문제에대해미국역사상그어느때보다확실히인지하긴하나슬프게도, 여전히어린소녀부터상당히나이든여성까지많은이들이날씬해지기위해무작정굶는다. 거식증은책과영화등의주제로흔하게사용됐다. 그러나아무리무시무시한경고를해도자신의진가와아름다움, 내면의가치가결국마른몸매로결정되리라는여성들의믿음은사라지지않는다. 현대의패션잡지는거식증의위험을다루는기사를실으면서동시에독자들에게이상적인아름다움과욕망의대상으로비쩍마른젊은여성들의이미지를퍼붓는다. 이혼란스러운메시지는누구보다도페미니즘정치를받아들인적없는여성들에게치명적이다. 그러나최근들어페미니스트들은여성의몸이지닌자연스러운아름다움을있는그대로긍정하는풍조를조성하기위해새롭게노력하고있다.

오늘날소녀들의자기몸에대한혐오는페미니즘운동이등장하기이전만큼이나심하다. 페미니즘운동으로수많은유형의여성친화적인잡지가속속발간되었지만페미니즘을지향하는어떤패션잡지에서도미의기준을대체할만한새로운이상형을제시하지는않았다. 대안도없이성차별주의적인이미지만비난한다면그것은실패한개입이다. 비판만으로는달라지지않는다. 사실많은페미니스트들이아름다움의기준을비판해왔지만, 여성들은뭐가건강한선택인지점점더혼란스러워졌을뿐이다. 나는중년에접어들면서그어느때보다체중이늘었으나자기혐오에찌든성차별주의적몸매를목표로삼지않고체중을줄이기로했다. 요즘패션업계에서는, 특히소비자입장에서봤을때뽀뽀마른십대소녀들만을위해디자인한것같은옷밖에없으니연령을불문하고모든여성이의식적이든무의식

혁명적인권운동의뒤를이어 1970 년대와 80 년대에일어난페미니즘운동은나라의얼굴을바꾸었다. 이런변화를가능케했던페미니즘활동가들은모든여성의복지에관심을쏟았다. 자매애로드러난여성들의정치적연대가여성의경험을긍정하는데그치지않고공동의고통에대한연민을나누기까지한다는사실을우리는잘알았다. 페미니스트들의자매애는어떤형태든지가부장제로인한모든불의에대항해투쟁했던경험을공유하며다져졌다. 여성들의정치적연대는항상성차별주의를약화시키고가부장제를전복시킬관을짜다. 여성들이종속적인지위의여성들을지배하고착취하는권력을스스로기꺼이벗어던지지않았더라면, 인종과계급의경계를넘어모두를아우르는자매애는불가능했다는사실을명심해야한다. 여성들이다른여성들을지배하기위해계급이나인종적특권을이용하는한, 페미니즘의자매애는완전히실행되지못한다.

1980 년대들어내면화된성차별주의를벗어던지게하는페미니즘의식화를거치지않은채기회주의적으로페미니스트임을자임하는여성들이점점늘어나강자가약자를지배해야한다는가부장제의명제가그들과다른여성들과의관계에도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 특히원래참정권이없었으나이제는특권을손에쥔백인여성들이, 내면화된성차별주의를버리지않은채계급권력을얻자여성들간의분열이심화되었다. 유색인종여성들이사회전반에만연한인종차별주의를비판하고인종차별주의가어떻게페미니즘이론과실천의틀을짜고거기에영향을미치는지에주목하자고호소할때, 수많은백인여성들은머리와가슴의문을걸어닫고자매애라는이상으로부터매물차게등을돌렸다. 그리고여성들사이의계급갈등문제에있어서도상황은마찬가지였다.

거의가계급특권을지닌백인여성들의토론이긴했으나페미니스트들이소외계층여성의예속화와인간성말살에동참하지않겠다며가사도우미를고용하는것이옳은지그른지토론하던모습이지금도생생하다. 물론그중일부는피고용인들과긍정적인유대관계를형성해, 더큰맥락에서보자면여전히불평등하긴하나서로에게도움을주는관계를만들었다. 어차피유토피아에도달할수없기에자매애를포기하기보다는모두의이해관계를고려한, 현실적인자매애를창안한것이다. 이것이바로여성들사이에서맺어진페미니스트연대가어렵게이뤄낸결과였다. 안타깝게도, 페미니즘운동내부에서기회주의가팽배할수록, 페미니스트들이거둔결실을대단찮게여기고그성과를당연시할수록이런연대의형성과지속을위해열심히고민하는여성들이점점줄어들었다.

수많은여성들이자매애의신념을간단히포기했다. 한때가부장제를비난하고이에저항했던여성들이성차별주의자남성들과다시결탁했다. 급진적성향의여성들은여성들사이에서벌어지는치열하고적대적인경쟁에배신감을느껴순순히물러서기도했다. 그리고이시점에서모든여성의삶을긍정적으로변화시키겠다는목적을지녔던페미니즘운동은점점

계층화되었다. 운동의 구호로 외쳤던 자매애는 여성들에게 점점 중요치 않아졌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힘이었던 여성들의 정치적 연대는 그 후로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처럼 다시 한번 여성들의 정치적 연대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현대 페미니즘 운동 초기에, 우리는 정치적 연대를 실현하려면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자매애라는 비전만 가지고 있었다. 경험과 노고는 물론이고, 실패와 실수에서 얻은 교훈들을 통해 이제 우리는 페미니즘 정치에 발을 갖들인 입문자들에게 우리의 연대를 만들고,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이론과 공유된 실천 사례를 갖고 있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잘 모르는데다, 성차별주의를 더 이상 문제시하지 않는 그릇된 인식 또한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비판의식을 키우는 페미니즘 교육이 지속되어야만 한다. 페미니즘 이론가들은 어린 여성들이 자라면서 저절로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겐 길잡이가 필요하다. 이 사회의 여성들 대부분이 자매애의 가치와 힘을 망각하고 있다. 새롭게 거듭난 페미니즘 운동은 다시금 ‘자매애는 강력하다’는 가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여성들 중에서도 급진적인 세력들은 자매애의 결속을 다지고 여성들의 페미니즘 정치 연대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인종과 계급의 벽을 넘어 단결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여성들이 서로를 지배하지 않아도 자아 실현을 이루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이론과 실천을 계속해서 정립하고 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매일 매일 일상에서 자매애가 완전히 실현 가능한 것이며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4 장: 비판의식을 키우기 위한 페미니즘 교육

여성학 강의가 개설되기 전이나 페미니즘 문학이 등장하기 전, 여성들은 개별적으로 모임을 꾸려 페미니즘을 공부했다. 이런 모임에서 여성들은 성차별주의에 대한 분석과 가부장제에 저항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아우르는 페미니즘 이론을 처음으로 만났다. 살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전부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가 왜 특정한 관점을 갖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는지의 식적으로 탐구하든 말든, 사고와 실천을 형성하는 체계는 언제나 그 주변에 놓여 있다. 페미니즘 이론은 처음부터 성차별주의적 사고가 어떻게 작용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

이던지가 크고 우락부락하며 늙고 추하다는 인식을 퍼뜨리며 여성 해방 운동을 폄해했다. 실제로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은 체격도 체형도 다 달랐다.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었다. 평가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각자의 다름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음에 우리는 얼마나 흥분했던가.

페미니즘 등장 초기에는 패션과 외모에 관심을 완전히 끊은 활동가들이 많았다. 이들은 하늘하늘한프릴이 달린 옷이나 화장에 관심을 보이는 여성들에게가혹할 정도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대개는 선택지가 주어졌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선택이 가능해지자 이왕이면 편안하고 활동이 용이한 옷을 입었다. 여성들의 미용과 스타일에 대한 선호와 편안함과 편의성을 조화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았다. 여성들은 (당시만 해도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었던) 패션계에 다양한 체형을 위한 옷을 만들어 내놓으라고 요구해야만 했다. (페미니즘 활동가들이 여성작가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묵직한 주제를 다룬 기사들을 더 실으라고 요구하여) 여성지들도 변화했다. 미국역사상 최초로 여성들이 구매력을 이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소비자로서의 자신들의 힘을 확인하게 되었다.

명백히 성차별주의적 산업인 패션업계를 변화시키려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난생 처음으로 외모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병적이며 목숨까지 위협하는가를 짚어보게 됐다. 이에 폭식증과 거식증이 집중 조명되었다. 이들은 반대되는 ‘외모’를 만들어 내지만, 목숨을 위협하는 이런 질환들은 같은 원인에서 비롯한다. 페미니즘 운동 때문에 성차별주의적 인의 학계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무시로 일관했다. 하지만 페미니스트들이 의료 센터를 열어 여성 중심의 적극적인 건강 관리 positive health care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의약업계도 패션업체처럼 수많은 여성 환자들이 자신들의 몸을 더 세심하게 보살피고 존중해주는 진료 시설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성의 몸과 여성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계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는 것은 모두 페미니스트의 투쟁이 거둔 직접적인 결실이다. 의료 서비스 문제 제극, 우리 몸을 진지하게 다루는 문제를 놓고 여성들은 의료 산업에 지속적으로 대항하고 맞서는 중이다. 의료 분야야말로 페미니즘 정치를 지지하든 안하든 페미니즘 투쟁이 대다수 여성에게 지지를 받는 몇 안 되는 분야다. 부인과 질환, 남성보다 여성이 더 취약한 암들 (특히 유방암) 그리고 최근에는 심장 질환 분야에서 여성들의 단합된 힘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나이를 막론하고 모든 여성이 얼마나 예쁜가에 쫓지 않는 가로 여성을 판단하려는 강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기에 섭식 장애를 종식하려는 페미니스트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 집착이 문화적 상상력마저 움켜쥔다. 1980년대 초,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에서 멀어졌다. 여성이라 하면 누구나 페미니즘의 개입으로 일구어낸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갱신된 성차별주의적 미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현대

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해가 모든 여성이 임신 선택권을 가진 세상을 만드는 노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지탱하기 위해 임신 선택권에 집중하는 페미니즘은 꼭 필요하다.

6 장: 내면의 아름다움과 외모의 아름다움

여성의 몸에 대한 성차별주의적인 사고를 깨부수려는 도전은 현대 페미니즘 운동의 개입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여성 해방 운동 이전에는 젊고 늙은 모든 여성들이 성차별주의적인 사고를 주입받아 우리의 가치가 외모에만 달려 있으며 어쨌거나 보기 좋아야 하고 특히 남성이 보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믿었다. 건강한 자존감과 자기애를 키우지 않으면 여성은 절대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이해한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문제의 본질로 곧장 파고들었다. 우리가 스스로의 몸을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건실적인 전략을 제공한 것이다. 많은 시간이 흐른 요즘에야 브래지어를 착용할지 말지 편안하게 선택하지만 30 년 전만 해도 이런 결정이 얼마나 획기적인 것이었는지 모른다. 여성들은 건강에도 안 좋고 불편하며 우리 몸을 구속하는 브래지어와 거들, 코르셋, 가터벨트 등을 벗어 던졌는데, 이는 여성의 몸이 지닌 아름다움과 건강을 되돌려달라 요구하는 급진적이면서도 일종의 의식 같은 행동이었다. 오늘날 그런 제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여성들은 우리의 이런 주장이 획기적인 것이었음을 그런가보다 하고 받아들일 뿐이다.

좀 더 깊이 파고들자면 이러한 의식으로 인해 여성들은 언제 어느 때나 편안한 옷을 입게 되었다. 일 때문에 노상 몸을 굽히거나 꾸그려 앉아야 했던 많은 여성들은 작업복으로 바지를 입게 된 것만으로도 열광했다. 원피스나 치마가 항상 불편했던 여성들도 이런 변화를 환영했다. 요즘에야 어릴 때부터 입고 싶은 대로 옷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시시해 보일 지도 모른다. 수많은 성인 여성들이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다면서 발목이 꺾이는 불편한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이런 변화에 제화 업계는 굽 낮고 착화감 좋은 여성용 구두를 디자인해 내놓았다. 화장을 강요하는 성차별주의적인 전통이 사라지면서, 여성들은 거울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페미니즘의 개입으로 의복과 인체 혁명이 촉발되면서 여성은 우리 몸이란 본디 타고난 그대로 사랑받고 추앙받을 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여성이 치장을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아무것도 더할 필요가 없었다. 처음에는 화장품 업계와 패션 업계의 자본가들이 페미니즘 때문에 자기네 사업이 망할 것이라며 기겁을 했다. 그들은 대중매체에 자금을 대고, 페미니스트들

을 해변화를 이끌어낼지 남녀 모두에게 설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그 시절 우리는 부모와 사회에 의해서 차별주의적 사고를 받아들이도록 사회화되었다. 우리는 대개 우리 인식의 기반에 대해 시간을 들여 차분하게 고민해 보지 않았다. 페미니즘 사상과 이론 덕분에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처음에 페미니즘 이론은 구전되거나 조잡하게 만든 소식지와 소책자로 전파되었다. (여성들이 쓰고, 인쇄하고, 마케팅을 비롯해 모든 단계에서 제작에 관여하는) 여성 출판이 점점 발전하면서 페미니즘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1970 년대에 쓴 책 『나는 여자가 아닌가요 — 흑인 여성과 페미니즘』을 1981 년에 출간했는데, 책을 펴낸 사우스엔드 프레스 출판사는 소규모 사회주의 단체로 구성된 최초의 절반이 여성 페미니스트들이었으며 남성 구성원들도 모두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곳이었다.

여성의 역사를 복원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동시에 페미니즘 문학을 쏟아낸 공이야말로 현대 페미니즘이 거둔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성과였다. 젠더 차별의 결과, 문학이든 학술이든 어느 분야에서든 여성이 쓴 글은 역사적으로 거의 혹은 아예 관심을 받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페미니즘 운동으로 커리큘럼에 편견이 작용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거나 무시되었던 작품들이 상당수 재발견되었다. 대학에 여성학 강의가 신설되면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제도적 정당성도 갖췄다. 흑인 문화 연구에 이어 생겨난 여성학은 편견 없이 젠더와 여성에 대해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흔히 여성학 강의에서 교수들이 남성 작가의 작품을 쓰레기 취급한다는 고정관념과는 달리, 예나 지금이나 그런 일은 없다. 실령 여성들의 작품이 남성들의 작품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더라도, 남성들의 작품만큼이나 뛰어나고 재미있는 작품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성차별주의적인 사고에 개입할 뿐이다. 남자가 쓴 소위 위대한 문학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때는, 미학적 가치를 따지는 과정에서 작품에 편견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뿐이다. 내가 들은 그 어떤 여성학 강의에서도 남성 작가의 작품이 별 볼 일 없다거나 엉뚱한 소리라는 식으로 평가절하한 적이 없었고 그런 강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 페미니스트들은 남성 작가로만 채워진 학술이나 문학의 정전에 대해 비판하면서 젠더에 근거한 편견들을 폭로할 뿐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폭로는 여성 작가들의 작품을 재조명할 여지를 만들고 여성이 쓴 작품과 여성에 대해 쓴 작품이 새로이 등장할 이 시대의 무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성학이 제도 학문으로 자리를 잡자 페미니즘 운동에 가속이 붙었다. 전국 강의실에서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 사상을 배우고 이론서를 읽고 자신들의 연구에 페미니즘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학원 시절 논문 준비할 때,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던 나는 당시에는 널리 읽히지 않던 흑인 여성

작가토니모리슨⁵에 대해 쓰기로 정했다. 페미니즘 운동 전에는 흑인 여성 작가의 문학 작품에 대한 진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앨리스 워커⁶는 명성을 얻고 난 후부터 조라닐허스턴⁷의 작품을 복권하는 작업에 참가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허스턴은 미국 문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흑인 여성 작가로 등극했다. 페미니즘 운동은 여성들이 거둔 학문적 성과에 대한 존중, 과거에 쓰인 그리고 현재 쓰이는 여성 저작물에 대한 인정, 그리고 커리큘럼과 교육학에 자리한 젠더에 따른 편견을 철폐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혁명을 일으켰다.

여성학이 제도화되자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이 널리 퍼졌다. 여성학은 열린 사고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페미니스트로 거듭날 수 있는 합법적인 장소로 자리했다. 여성학 수강생들은 거기에서 뭔가를 배우고자 했다. 그들은 페미니즘 사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다. 우리 중 많은 학생들이 정치적으로 각성한 곳도 바로 여성학 강의실이었다. 가부장제가 정에서 자란다는 남성 중심주의에 맞서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페미니즘 사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하지만 단지 착취나 억압 체계의 피해자가 되거나 거기에 저항한다고 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혹은 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지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대학에 입학하기 한 참 전에 페미니즘 정치를 신념으로 받아들였지만 페미니즘 강의실에서 비로소 페미니즘 사상과 이론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그곳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흑인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글로 쓰라는 격려도 받았다.

페미니즘 사상과 이론은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주 생산돼 왔다. 그리고 이는 여성들이 끊임없이 다양한 발상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패러다임을 검증하고 다시 고쳐왔다는 점에서 공동작이었다. 일례로 흑인과 유색인종 여성들이 페미니즘 사상을 형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인종에 대한 편견을 문제 삼았을 때, 특권 계급 여성들은 자신들이 진짜 여성의 경험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결합이 있을 수 있다는 개념을 접하고 일단 이를 부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페미니즘 이론은 변화했다. 많은 백인 여성 사상가들이 재고의 여지 없이 자신이 가진 편견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이는 대단한 변화였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자 거의 모든 페미니즘 분과들이 인종과 계급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이론에 반영하게 되었다. 페미니즘 운동과 페미니스트 연대에 진심으로 전념해 온 여성 연구자들은 여성이 처한 현실을 분석하는 이론을 생산하는데 열정을 쏟았다.

⁵ Toni Morrison, 1931~. 흑인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미국 작가. -역자주

⁶ Alice Walker, 1944~. 『컬러풀』로 흑인 여성 작가 최초로 풀리처상과 전미도서상을 수상했으며, 흑인 민권 운동에 참여했던 인권 운동가이자 페미니스트. -역자주

⁷ Zora Neale Hurston, 1891~1960. 미국의 흑인 여성 문인이자 인류학자로 대표작으로는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가 있다. -역자주

다. 빈곤층 여성과 노동자 계급 여성들은 대부분 임신 선택권 관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임신 중단을 수술을 받을 길이 사라진다. 돈이 있어야만 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대도 계급 특권을 지닌 여성들은 여전히 돈이 있으니 상관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여성들은 그런 계급 권력이 없다. 요즘은 과거 어느 때보다 빈곤층이나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여성들이 많아졌다. 안전하고, 저렴하고, 때로는 무상인 임신 중단 수술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모두 잃는다. 임신 중단 수술이 돈 많은 여성들의 전유물인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면 임신 중단을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공공 정책도 귀환할지 모른다. 이미 보수 성향을 지닌 여러 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계급에 상관없이 여성이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속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신 중단을 할지 말지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은 임신 선택권의 여러 측면 중 하나일 뿐이다. 임신 선택권의 여러 측면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개개인의 연령과 삶의 조건에 따라 바뀌기 마련이다. 성욕이 왕성한 2~30대 여성은 언제든 원치 않는 임신에 직면할 수 있으니 피임약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할 테고 그때문에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한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을 권리를 임신 선택권과 관련된 문제 중 가장 중요시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이 완경을 하면 의사들에게 자궁 절제를 권유받기도 하는데 그러면 임신 선택권과 관련해 문제가 가장 절실할 것이다.

대중적인 페미니즘 운동에 불을 다시 지피려면 임신 선택권을 페미니즘의 제한 가운데에 놓아야 한다.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을 여성들이 선택할 수 없다면 삶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새로워진 페미니즘 운동은 임신 선택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슈를 그 어떤 개별 이슈보다 우선시할 것이다. 그렇다고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한 임신 중단 수술을 중점에 두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단순히 그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 모든 여성이 성교육과 예방 의학, 피임약과 피임 기구에 접근이 더 쉬워진다면 원치 않는 임신 을 하는 사람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임신 중단 수술의 필요성도 줄어들지 않겠는가.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저렴한 임신 중단 수술을 받는 문제에서 한번 밀리게 되면 여성들은 앞으로 임신 선택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장을 꺾어야 한다. 임신 중단 반대 운동은 근본적으로 반 페미니즘 운동이다. 페미니즘 정치에 헌신하는 여성이 스스로는 임신 중단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임신 중단을 찬성하고 임신 중단이 필요하다는 여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를 지지할 것이다. 언제든 지효과적인 피임을 할 수 있었던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불법적인 임신 중단 수술로 일어난 비극을 목격해 본 적 없는 이들은 임신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착취 앞에 여성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취약한 지 실감하지 못한다. 모든 연령의 여성과 투쟁에 연대한 남성에게 왜 이러한 권리가 필요한지 이해시키려면 임신 선택권에 수반되는 광범위한 문제들에 대해 지속

갈수있었다. 책임감있는피임은나처럼다른여성의선택은존중하지만이 문제에맞닥뜨린개인이반드시임신중단수술을할필요는없다고생각하는많은여성들을해방시켰다. 나는성해방운동이한창일때도원치않은임신을하지않았지만내또래들중많은이가피임약을신경써서철저하게복용하는것보다임신중단수술을하는편이더낫다고봤다. 그래서피임의수단으로임신중단수술을택하는일이빈번했다. 여성의피임약복용은적극적으로성관계를갖기위한선택이라고곤장받아들여졌다. 남자들은피임문제를좀더진지하게고민하는여자들을해픈여자라고취급했다. 어떤여자들은성행위로일어나는일들은그냥내버려두었다가훗날‘문제’가생기면수술로해결하는편이더간단하다고여겼다. 오늘날에는반복적인임신중단수술이나에스트로겐수치를높이는피임약장복이나돌다위험을배제할수없다는사실을알았다. 그러나여자들은성적자유를위해다시말해선택할수있는권리를위해기꺼이위험을떠안았다.

임신중단권문제야말로그리스도교근본주의에도전장을던졌기때문에대중매체의관심을끌었다. 여성은아이를낳기위해존재한다는개념에곤장받기를든것이다. 지금껏임신중단권만큼여성의몸이국가적인관심대상이된적도없었다. 임신중단권은교회에대한직접적인도전이였다. 페미니즘사상가들이관심을촉구했던재생산과관련한다른모든문제는대중매체로부터무시당하기일쭉였다. 제왕절개와자궁절제로인해발생하는광범위한의학적문제들은대중매체에게근침도는소재가아니었다. 정작페미니즘사상가들은여자의신체를통제하고그렇게하여자녀들마음대로여성의몸을다루는자본주의·가부장제·남성중심주의적의료계에주목하기를촉구했다. 지독히도보수적이고대부분반페미니즘적인대중매체가보기에이런분야에서벌어지는젠더불평등문제는관심을갖기에는너무급진적으로보였을것이다.

1960년대후반에서1970년대초반에활동했던페미니스트활동가들은여성이임신선택권을보장받기위해1990년대까지도투쟁해야하리라고는상상도못했다. 당시활동가들은페미니즘운동으로비교적안전한피임약의사용을용인하고안전하고합법적인임신중단수술을받을권리를누릴수있는문화혁명을일으키면앞으로이런권리가더이상문제시되지않으리라믿었다. 그러나조직적이고급진적인페미니스트들이이끌었던대중을기반으로한정치적운동이종말을고하자, 근본주의자들의종교해석을발판으로조직된우익정치전선에서반페미니즘역풍이몰아닥쳤고이에임신중단문제가다시정치적의제로떠올랐다. 여성의자기선택권에다시의문이제기된것이다.

안타깝게도임신중단권반대세력은정부가지원하는저렴하고, 필요하다면무상으로받을수있는임신중단수술을맹렬하게겨냥한다. 그결과인증을불문하고계급특권을가진모든여성들은계속해서안전한임신중단권즉, 자기선택권을누리지만빈곤층여성들은고통을겪을수밖에없

여성학이제도학문으로인정받은일은페미니즘사상의발전에중요한역할을했지만, 이과정에서새로운문제점들이생겨났다. 이론과실천에서직접적으로출현한페미니즘사상은배타적인전문용어를만들어내는메타언어적인이론에밀려갑작스럽게사람들의관심에서멀어졌다. 이론은오로지학계사람들을위해서만쓰였다. 일군의페미니즘사상가들이특정집단에‘속한’사람들만이해할수있는이론을쓰는엘리트집단을만들려고뚝뚝뚝친것처럼보였다.

학계밖여성과남성들은더이상중요한청중으로여겨지지않았다. 페미니즘사상가이론은더이상페미니즘운동과이어지지않았다. 학계에서의정치와출세지상주의가페미니즘정치에그늘을드리웠다. 페미니즘이론이학계라는게토에안주하면서그외부와외연결고리는약해졌다. 학계에서는에나지금이나연구가진행되고있으며때로통찰력이담긴결과물이나타나기도하나이러한통찰은대중에게거의알려지지않는다. 그결과페미니즘사상이학문으로고착되어탈정치화가진행되면서페미니즘운동이약화하였다. 급진성을상실한페미니즘운동은젠더에초점을맞춘다는것말고는여느분과학문과다를바가없어진듯하다.

사람들에게지식을전달하고, 페미니즘사상과페미니즘정치에대한이해를돕는글은다양한문체와형식으로쓰여야한다. 특히청년문화를다루는글이필요하다. 그러나학계에서이런글을쓰는사람은아무도없다. 젠더정의의를위한투쟁이만들어낸변화를보수주의자들이다시되돌리려고기를쓰는바람에이미대학에서여성학강좌가위기에처해있긴하나포기할것이아니라오히려지역공동체를기반으로페미니즘공부모임을시작해야한다. (전도하는종교인들처럼) 집집마다찾아다니며자료를나눠주고시간을들여서페미니즘이대체무엇인지설명하는대중적인페미니즘운동을상상해보라.

페미니즘운동이정점에달했을때, 성차별주의적시각을담은어린이책들도마위에올랐다. 사람들은‘편견에서해방된’어린이책을 썼다. 그러나우리가비판적인시선으로경계하기를늦추자성차별주의가다시금고개를쳐들었다. 아이들은신념과정체성이아직형성되는과정이므로어린이문학은비판의식을키우기위한페미니즘교육에서가장결정적인부분을차지한다. 그리고대개아이들은놀이터에서젠더에대한편협한사고를일상적으로접하게된다. 페미니즘활동가들은어린이를대상으로하는공교육분야에서편견이배제된커리큘럼이사용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해야한다.

미래의페미니즘운동은반드시페미니즘교육을모두의삶을구성하는중요한요소로인식해야한다. 스스로의힘으로부를축적했든지투쟁의동맹자인부유한남성들에게기부를받았든지간에, 경제적으로여유가있는여성페미니스트들이생겨났다. 그러나소녀소년과성인남녀를위해페미니즘원칙에입각한학교는단한곳도설립되지못했다. 모두에게페미니즘

을 가르치는 대중기반의 교육운동을 일구는데 실패했기에 우리는 가부장제 주류 대중매체가 페미니즘을 전파하는 모습을, 그것도 대개 부정적으로 전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페미니즘 사상과 이론을 모두에게 가르친다는 말은 우리가 학제를 넘어서고 심지어 문자언어마저 넘어서야 한다는 뜻이다. 시중에 나온 페미니즘 관련 서도 읽기 버거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디오북과 노래, 라디오, 텔레비전 모두가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을 퍼뜨리기 위한 수단이다. 또한 우리에게만 단순히 여성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망이 아닌, 페미니즘 텔레비전 방송망도 필요하다. 페미니즘 텔레비전 방송망을 만들기 위한 기금을 모으는 과정은 페미니즘 사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다. 그런 방송망을 소유할 수 없다면 기존 방송망에서 시간대를 살수도 있다. 잡지 「미즈 Ms.」의 경우 오랫동안 성차별주의자인 남성들이 일부 소유했으나 지금은 페미니즘에 깊이 헌신하는 여성들이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을 향한 한 걸음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제공하는 대중운동을 조직하지 않으면 페미니즘 이론과 실천은 주류 언론이 만들어낸 부정적인 정보로 인해 힘을 잃고 말 것이다. 페미니즘 운동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했는지 직접 나서서 널리 홍보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시민들은 페미니즘이 어떤 결실을 거두었는지 모를 것이다. 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지배의 문화가 페미니즘이 공동체와 사회 복지에 건설적으로 기여한 공을 가로채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미니즘이 우리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무수히 많은 것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페미니즘 사상과 실천을 공유해야 페미니즘 운동을 어나갈 수 있다. 페미니즘 지식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5 장: 우리의 몸, 우리 자신 — 임신선택권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되었을 무렵 운동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졌던 이슈들은 (대부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웠던) 고학력 백인 여성의 경험과 직결되어 있었다. 페미니즘 운동이 인권 운동과 성해방 운동에 뒤이어 출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여성의 몸을 둘러싼 문제들을 중요시하는 게 타당해 보였다. 대중매체는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에서 브래지어를 볼태우는 여성들부터 임신중단을 요구하는 여성들로 이어지는 이미지가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인식을 온 세상에 퍼뜨렸지만 이런 이미지와 반대로 페미니즘 운동을 촉진한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섹슈얼리티 문제였다. 다시 말해 여성이 언제 그리고 누구와 섹스할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

였다. 여성의 몸에 대한 성적 착취 문제는 사회주의 운동이든 인권 운동이든 사회정의의 위해 싸우는 급진적인 운동의 내부에서도 흔하게 발생했다.

이른바 성혁명이 정점에 달했을 때 자유연애 (보통은 원하는 상대와 원하는 만큼 섹스한다는 뜻이었다) 라는 이슈로 여성들은 원치 않은 임신 문제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자유연애를 둘러싼 센터링 등에 대해서는 하기에 앞서 여성은 피임과 임신 중단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했다. 계급 특권을 지닌 백인 여성들이야 대개 이 두 가지 보호 장치를 모두 누렸지만, 대다수 여성은 그렇지 못했다. 계급 특권을 지닌 여성들 중에도 원치 않은 임신을 너무나 수치스러워한 나머지 신뢰할 만한 의료 서비스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잦았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 사이에 임신 중단 권을 요구했던 여성들은 불법적인 수술로 인한 비극이나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재앙을 목격한 이들이었다. 우리 중 많은 이가 느닷없이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삶이 바뀌어버린, 재능 있고 창조적인 여성들의 예가 많지는 않다. 우리는 비통해하고, 분노하고, 자신의 운명에 낙담하는 그녀들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이에 우리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피임을 할 수 없다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가 없다면 여성과 남성에게 진정한 의미의 성해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됐다.

둘이 쳐보면, 임신 선택권보다 임신 중단 권을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이 운동의 최전선에 선 여자들어가진 전반적인 계급적 편견을 여실히 보여준다. 임신 중단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여자들과 관계된 문제지만 임신 중단만큼이나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대중에게 충격을 줄 만한, 재생산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더 있었다. 기본적인 성교육에서부터 산전 관리, 여성이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예방의 의료 서비스, 강제 불임과 불필요한 제왕절개나 자궁절제, 그에 따르는 합병증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걸린 문제였다. 계급 특권을 지닌 백인 여성들은 이중에서 원치 않은 임신에 따르는 고통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임신 중단 문제를 부각했다. 그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단 수술이 필요한 유일한 집단이 절대 아니었다. 앞서 지적했다시피 그들은 빈곤층 여성과 노동자 계급 여성들보다는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을 방법이 훨씬 많았을 것이다. 그 시절 흑인 여성을 비롯한 빈곤층 여성들은 대개 불법 시술소를 찾았다.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을 권리는 ‘백인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임신 중단 권은 재생산 문제에 있어서 이 나라 여성들이 당면한 유일한 문제도, 최우선 시할 문제도 아니었다.

여성의 성해방으로 가는 길을 닦은 공을 따지자면 임신 중단 권보다는 안전을 백 퍼센트 보장할 수는 없어도 효과가 뛰어난 피임약 개발이 (이는 남성과 학자들이 개발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성차별주의자였다) 더 큰 기여를 했다. 내가 십대 후반이었을 무렵 피임약 구입이 처음으로 대중화됐는데, 덕분에 내 또래 여성들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한 공포와 수치심을 피해

벨룩스
모두를위한페미니즘
2000 년

kr.theanarchistlibrary.org

가정내에서 일어나는 가부장제 폭력은, 좀더 힘있는 개인이 다양한 강제로 다른 구성원을 통제해도 무방하다는 믿음에 토대한다. 이러한 광의의 가정 폭력에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 동성간의 폭력, 아동에 대한 성인의 폭력이 모두 포함된다. ‘가부장제 폭력 patriarchal violence’이라는 용어는 흔히 쓰이는 표현인 ‘가정 폭력 domestic violence’과 달리, 듣는 이에 게 가정내에서 자행되는 폭력이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적 사고, 남성 중심주의와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가정 폭력이라는 용어는, 집밖에서 벌어지는 폭력보다는 사적이고, 어떤 점에서 덜 위협적이고, 덜 야만적인,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지칭하는 ‘순화된’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집밖에서보다 집안에서 구타당하고 살해당하는 여성이 더 많으므로 가정 폭력의 실상은 결코 그렇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가정 폭력을 성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아동에 가해지는 폭력과는 별개이고 동떨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은 남편 혹은 남자 친구에게 공격받는 어머니를 보호하려다가 학대당하기도 하고 폭력이나 학대를 목격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동일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주장을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듯이 남자가 여자와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가정 폭력이 성차별주의의 직접적 산물이며 성차별주의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가정 폭력도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의 논리를 선뜻 이해하지 못한다. 젠더에 대한 사고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페미니즘 운동이 그 어떤 폭력도 거부한다는 광범위한 의제를 표방해야 한다고 믿는 소수의 페미니즘 이론가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게 가해지는 가부장제 폭력을 우선적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가부장제 하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폭력 가운데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가장 끔찍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이런 유형의 폭력에만 집중한다면 페미니즘 운동을 더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가부장제 폭력이 성차별주의에 찌든 남녀가 아동에게 휘두르는 폭력이라는 현실을 은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개혁주의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어떻게든 부각하기 위해 여성을 언제나 그리고 유일한 피해자로 묘사하곤 한다. 아동에게 지독한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 중 여성이 많다는 사실에는 제대로 주목하지 않는 데다, 이것이가부장제 폭력의 또 다른 형태임을 외면한다. 이제 우리는 아이가 가부장제 폭력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때 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의 목격자가 될 때도 학대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잘 안다. 모든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여성에 의한 가부장제 폭력에 대해서도 분노해 이를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과 동일선상에 놓았더라면, 대중이 가부장제 폭력을 반남성적의 제라고 치부하면서 이를 묵살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며 이는 앞으로 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연구결과에서 여성은 비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고 한들 어릴 때 여성에게가부장제 폭력을 당했던 피해자라면 여성이 비폭력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안다. 단지 아동은 여성 폭력의 대상이 되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 집단적인 목소리를 쉽게 내기 힘들 뿐이다. 여자와 남자가 휘두른 폭력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의료시설을 찾은 기록마저 없었다면 여성 폭력을 입증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을지 모른다.

나는 『페미니즘 — 주변에서 중심으로』의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장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종식하기 위해 지속되어 온 페미니즘 투쟁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종식하기 위한 운동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페미니즘 운동은 주로 남성이 저지르는 폭력에 주목했고, 그 결과 남자는 폭력적이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는, 남자는 가해자고 여자는 피해자라는 성차별주의적인 고정관념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이런 고정관념 탓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지배하는 쪽이 강하기에 지배당하는 쪽에 힘을 행사해도 된다는 식의 인식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영구화한다는 사실을 못본척한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여성이 다른 사람을 강압적으로 지배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도 간과하거나 무시하게 한다. 여자가 남자보다 폭력을 덜 행사한다고 해서 여성 폭력의 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폭력을 없애려면 이 사회에서 폭력 사용을 지지하는 집단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주시해야만 한다.”

어떤 어머니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더라도 자녀들, 특히 아들들에게 사회 통제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용인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 어머니는 가부장제 폭력과 결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어머니는 사고방식을 바꿔야만 한다.

확실히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을 지배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소수이지만 하나 남자를 때리는 여자도 있다) 많은 여성들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해도 좋다고 여긴다. 대다수의 부모가 자녀에게 물리적 혹은 언어적 폭력을 가한다. 아이의 일차 양육자는 여성이므로 지배문화의 위계 체계에 따라 권력을 부여받은 여성들이 (이를테면 부모자식 간처럼)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현재의 지배문화는 모두에게 폭력을 사회 통제 수단으로 허용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을 내면화시킨다. 남녀 관계든 부모자식 간이든 기존의 위계 질서가 흔들리면 지배자들은 (실행에 옮기건 아니건 간에) 언제든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적 처벌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지배를 유지한다.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에 대해 언론은 꾸준히 관심을 쏟았다 (O.J. 심슨 재판처럼 재판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 대중에게 왜 이런 폭력이 일어났는지 근본 원인을 설명하거나 가부장제에 의문을 품도록 하지는 않았다. 성차별주의적 사고는 남성 중심주의를 뒷받침하

고그로인한폭력을지지한다. 노동자계급이면서실직자인많은남성은백인우월주의·가부장제하에서는자신의일에서권력을맞보지못하므로자신들이절대적인권위와존경을얻을수있는유일한장소인가정에서대리만족하라고부추겨진다. 남성들은지배계급남성들에의해사회화되어일터와같은공적세계에서는지배받지만가정이나연인사이같은사적세계에서는응당권위를누려남성성을회복할수있다고믿는다. 실직자가저임금노동자로편입되는남성들이많아지고일터로나오는여성들이늘어날수록, 어떤남성들은성차별주의적인성역할위계내에서자신들이권력과지배력을유지하려면폭력을행사하는수밖에없다고생각한다. 어떤식으로든남성이여성을지배할권리가있다고믿는성차별주의적사고를떨쳐내지않는한,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은계속정상적인것으로취급될것이다.

초기페미니즘활동가들은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과제국주의적군국주의간의유사점을인지하지못했다. 남성의폭력에반대하는사람조차때로는군국주의를용인하고심지어는이를지지했기때문이었다. 착한편에서서나쁜편과싸우는상상을하건다른나라에강제력을행사하는제국주의의병사를상상하건, 성차별주의적사고가소년들을‘킬러’로사회화하는한여성과아이들에대한가부장제폭력은사라지지않을것이다. 최근몇년동안다양한계급출신의젊은남성들이끔찍한폭력행위를저질렀을때이런행동에대한전국민적비난은있었지만이런폭력행위를성차별주의적사고와연관짓는시도는찾기어려웠다.

나는『페미니즘 — 주변에서중심으로』에서남성만폭력을수용하고, 용인하고, 영구화하는게아니라고, 남성만폭력의문화를만들어내는게아니라고강조하며폭력에관한장을끝맺었다. 나는폭력을용인하는분위기에여성도일익을담당한다는사실을직시하고이에책임질것을촉구했다.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에만관심을촉구하거나군국주의를남성의폭력성이표출된또다른방식으로만치부하면우리는폭력문제를제대로파악하고다룰수없으며실행가능한저항전략과해결책을이끌어내기도어려울것이다. …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혹은국가나이지구에대한남성폭력의심각성을축소할필요는없다. 그보다는남성과여성모두가미국문화를폭력으로물들였다는사실을인정해야하고그러한문화를변화시키고재창조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 전쟁이나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 아동에대한성인의폭력, 십대에대한폭력, 인종차별로인한폭력등어떠한방식의폭력이든사회통제수단으로폭력을행사한다면남녀를불문하고반대해야만한다. 여성에대한남성의폭력을종식하기위한페미니스트들의노력은모든형태의폭력을종식하는운동으로확장되어야만한다.”

그리고특히부모라면비폭력적인방식으로자식을양육하는법을배워야한다. 폭력사용외에난처한상황에대처하는다른방도를모른다면우리아이들은자라서도폭력행사를저버리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

미국내수많은사람들이폭력문제를심각하게받아들이지만이문제를가부장제사고나남성중심주의와연결짓기를단호하게거부한다. 페미니즘사상은이에대한유일한해결책을제시한다. 그리고그해결책으로모두를도울수있는지없는지는우리손에달려있다.

12 장: 페미니즘남성성

현대페미니즘운동이처음시작되었을무렵, 운동내에는극렬반남성분파가있었다. 이성애자여성들은잔인하고, 불친절하고, 폭력적이고, 바람피우기를일삼는남성과의관계에서쳐페미니즘운동에뛰어들었다. 그런남성들가운데는사회운동에참가한급진적사상가들도다수있었는데, 이들은노동자와빈곤층의이익을대변했으며인종간정의를옹호했다. 그러나유독젠더문제에서만은자신들과대립각을세운보수주의자들만큼이나성차별주의적이었다. 이런상황에분노한여성들은페미니즘을찾았다. 그리고이들은그분노를여성해방운동의촉매로활용했다. 운동이진보하고페미니즘사상이발전하면서각성한페미니즘활동가들은남성들이문제가아니라가부장제와성차별주의, 남성중심주의가진짜문제라는걸깨달았다. 문제가단지남성들에게있지않다는사실을직시하기란쉽지않았다. 현실을직시하려면좀더정교한이론화작업이필요했다. 성차별주의가유지되고영구화되는데여성들도동참하고있다는사실부터인정해야했다. 남성과의파괴적인관계에등돌리는여성들이늘어날수록전모를파악하기가더쉬워졌다. 개별남성들이가부장제가부여하는특권을내려놓는다해도가부장제와성차별주의, 남성중심주의를토대로한체제는여전히공고할테고거기서여성들은계속착취당하고억압당할것이명백해졌다.

보수적인대중매체는끊임없이여성페미니스트들을남성혐오자로묘사했다. 페미니즘운동내에반남성분파나그런정서가보인다싶으면페미니즘에흠집을내기위해대중매체는그사실을집중조명했다. 페미니스트를남성혐오자로몰아세우는이면에는페미니스트가모두레즈비언이라는전제가 깔려있었다. 미국사회의동성애혐오정서에호소하며대중매체는남성들사이에퍼진반페미니즘분위기를강화시켰다. 현대페미니즘운동이시작되고 10 년가까이됐을때에야페미니즘사상가들은가부장제가어떤식으로남성에게해를끼치는지논의를시작했다. 페미니즘정치를

남성중심주의를 맹렬히 비판하면서도 그 외연을 넓혀가부장제가 남성들에게 성차별주의적 남성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해 남성들 역시 모종의 권리를 박탈당했다는 인식을 포괄했다.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남성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강력한 대중적 힘을 발휘했다.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을 두려워하고 증오한 이 남성들은 재빨리 세력을 집결해 페미니즘 운동을 공격했다. 그런데 페미니즘 운동 초기부터 소수이기는 해도 페미니즘 운동이 미국 역사상 남성들이 지지했던 여느 급진적인 운동 못지 않게 가치 있는 사회 운동이라는 걸 깨달은 남성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동지로서 우리와 함께 투쟁하고 함께 연대했다.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한 이성애자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받아들이려 애쓰는 남성들과 연인 사이가 되기도 했다. 그들이 페미니스트로 전향하느냐 마느냐로 이치밀한 관계가 시험대에 오르거나 끝날 위험에 말려들게 되고는 했다.

페미니즘 운동 내의 반남성분파는 성차별주의에 반대하는 남성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그런 남자들 때문에 모든 남성은 억압자라거나 모든 남성은 여성을 혐오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은 억압자/피억압자라는 단순한 범주화로 남성과 여성을 극단적으로 갈라놓음으로써 손쉬운 계급 상승과 가부장제 권력 배분을 노렸던 페미니스트들의 이익과 합치했다. 이들은 모든 여성을 피해자로 재현하기 위해 모든 남성을 적으로 간주했다. 남성에 대한 적대는 일부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의 계급 특권과 계급 권력을 향한 욕망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수단이었다. 모든 여성들에게 남성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던 이 활동가들은 여성이 남성과 공유하는 돌봄의 유대도, 성차별주의자인 남성이 여성을 묶어두는(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경제적·감정적 결속도 무시하려 들지 않았다.

남성을 투쟁의 동지로 인정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페미니스트들은 결코 대중매체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남성을 적으로 규정하고 악마화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우리의 이론적 연구도 반남성주의자 여성들의 관심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남성다움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에 대한 반동으로 반여성주의 남성 운동이 시작되었다. 나는 ‘남성해방운동’에 관해 쓰면서 이 운동의 이면에 자리한 기회주의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남성들은 자신을 성차별주의의 피해자라고 규정하며 남성해방에 주력했다. 이들은 경직된 성역할이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든 근본원인이라고 했으나, 그들은 남성성에 대한 개념을 바꾸고자 하면서도 여성이 당하는 성차별주의적 착취와 억압에는 그리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요모조모 살펴보면 남성 운동은 여성 운동의 가장 부정적인 모습을 빼닮았다.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반남성주의 분파의 규모는 작았으나 여성 페미니스트는 남성을 혐오한다는 대중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게다가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남성 혐오 운동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성중심주의에 쏠리

는관심을다른곳으로돌릴수있었다. 페미니즘이론이남성성에대해좀더
해방적인비전을제시했다면, 누구도이운동이반남성주의성향을띤다고
호도하지못했을것이다. 페미니즘운동은남성이성차별주의에반대하려
면무엇을해야할지나 기존의남성성이어떻게대체되어야할지같은문제
에효과적으로대처하지못했기에다수의남녀를끌어들이는데실패했다.
페미니즘운동혹은남성운동은가부장제적남성성에대한대안으로지금
보다좀더‘여성화’된남성성을내세웠다. 이여성화라는개념은성차별주
의적발상에서비롯되었기에애초에대안으로는부적절했다.

뭐든간에남성성의비전은유일무이한존재로서자기자신에대한자존
감과자기애를정체성의기본으로삼아야한다. 지배의문화는자존감을무
너뜨리고, 타인을지배할때비로소존재감을느낀다는사고방식이뿌리내
리게한다. 가부장제남성성은남성들에게그들의존재이유, 그들의자의
식과정체성이타인을지배하는능력에있다고가르친다. 이런현실을바꾸
려면이지구를, 권력을갖지못한남성들을, 여성과아이들을지배하는남
성중심주의를남성들은비판해야하고이에맞서야한다. 이와동시에페미
니즘남성성이무엇인지명확하게이해해야만한다. 그것이어떤모습인지
알수없다면어떻게그렇게되겠는가? 하지만여성이든남성이든페미니즘
사상가들은아직도페미니즘남성성이무엇인지명확하게이해하지못했
다.

사회정의를위한혁명적운동이그러했듯이, 우리는해결책을제시하
기보다문제를규정하는데더능하다. 가부장제적남성성은남자들을병적
으로자기도취적이게하고유치하게굴게하고, 단지남자로태어났다는이
유로주어지는 (어느정도상대적인) 특권에심리적으로의존하게끔부추
긴다. 많은남자들이자기충족적인핵심정체성을세우지못했기때문에이
러한특권이사라지면자기삶이위협받는다고느낀다. 그렇기때문에남성
운동은남자들에게어떻게자신의감정을되찾는지를가르치고내면의잃
어버린소년을되찾아영적이고정신적인성장을도모하라고적극적으로
격려했다.

이제껏남자아이들에게말을걸어, 성차별주의에뿌리를두지않은정
체성을키우는법을알려주는적절한페미니즘도서들은없었다. 성차별주
의에반대하는남성들이소년시절, 특히사춘기남자아이들의성장에중심
을두고비판의식을일깨우는교육을한적은없다. 이러한교육의공백으로
인해이제남자아이의양육에대한논의가전국민적관심사로대두해도거
기에페미니즘적관점은길자리도없고설사일부를차지한대도거의찾기
힘들었다. 비극적이게도, 우리는엄마는아들을온전하게키울수없고, 사
내아이들은규율과권위에대한복종을강조하는가부장제군국주의적남
성성의‘도움’을받아야한다는위험한여성혐오적명제가부활하는모습을
지켜보고있다. 남자아이들에게는건강한자존감이필요하다. 그들에겐
사랑이필요하다. 그리고현명하고자애로운페미니즘정치라면남자아이

들의 삶을 구원하는 유일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가부장제는 그들을 치유하지 않는다. 가부장제가 그럴 수 있었다면, 남자 아이들은 모두 문제 없이 잘 성장했을 것이다.

미국 대다수 남성들은 자기 정체성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느낀다. 설령 가부장제에 매달린다고 해도 그것이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감지하기 시작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고, 일한 만큼 보상도 받지 못하고, 여자들이 더 많은 계급 권력을 쥐는 상황에서 돈 없고 힘 없는 남자들은 자기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는 결코 자신의 약속을 책임지지 못한다. 수많은 남성들은 가부장제의 약속이 실은 불의와 지배에 뿌리를 두며 약속이 지켜진 대도 자기네를 영광에 이르게 해주지 않는다는 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해방적 비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에 괴로워한다. 남성들이 애초에 그들의 영혼을 말살해 버린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의 사고방식을 되새기며 해방 운동을 맹비난하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소년 시절에 그랬듯이 길을 잃고 헤맨다.

소년과 남성을 보듬어 안으면서, 소년과 여성이 꿈꾸는 모든 권리를 소년과 남성도 누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페미니즘 남성성을 수용하는 페미니즘이라면 미국 남성들을 새로 태어나게 할 수 있다. 특별하게도 페미니즘적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삶을 돌보고 긍정하는 방식으로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페미니즘 남성성이 널리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 법을 보여줄 새로운 전략, 새로운 이론, 길잡이가 꼭 필요하다.

13 장: 페미니스트 부모되기

아동 문제에 대한 페미니즘적 접근은 현대 급진주의 페미니즘 운동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다. 여성들은 성차별주의적으로 아이를 키우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반성차별주의 운동이 필요 없는 미래 세상을 꿈꾸었다. 처음에는 주로 성차별주의적 성역할과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성역할이 고정되는 방식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페미니스트들은 항상 여자 아이에게 집중되는 성차별주의적 인편견에 대한 공격 그리고 대안 이미지에 노력을 집중했다. 때때로 페미니스트들은 남자 아이를 성차별주의에 물들지 않게 키워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남성이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은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는 식의 주장으로 흘렀다. 남자 아이들이 언제나 더 많은 특권과 권력을 원한다는 전제는 페미니스트들이 여자 아이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끔 계속 부채질했다.

페미니즘사상가들이맞닥뜨리는주요난관중하나, 가족내성차별주의의주요전파자가대개여성양육자라는사실이었다. 성인남성양육자가없는가정에서도여성들은자녀에게성차별주의적사고를주입해왔고이는지금도그러하다. 역설적이게도여성이가장인가정은으레모권중심적일것이라고쉽게단정한다. 실제로는가부장제사회에서가장인여성들은집안에남성이없다는사실에죄의식을느끼고자녀들, 특히남자아이들에게성차별주의적가치를전수하기에더욱열을쏟는다. 최근들어보수적인주류전문가들은편모는남자아이를제대로양육할수없다고하면서, 이를인종과계급을막론하고젊은남성들이폭력을행사하는근본적인원인으로꼽는다. 물론이는전혀사실이아니다. 우리사회에서가장자애롭고동시에강인한남성들중편모가정에서자란사람들도 많다는사실로이를알수있다. 같은이야기지만, 많은이들이여자혼자아이를, 특히아들을키우는데어떻게그를가부장적인남성으로키우겠느냐고생각한다. 이또한결코사실이아니다.

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적지배의문화에서아이들은권리를누리지못한다. 페미니즘운동은미국사회운동가운데우리의문화가아이들을사랑하는문화가아니며부모가자식을자기의지대로조종하는소유물로본다는사실에주목한최초의운동이다. 우리사회에서는성인이아이에게폭력을행사하는일이흔하다. 문제적인것은, 대부분의페미니즘사상가들은일상적으로아이들에게가해지는폭력의주범이주양육자여성인경우가 많다는현실에관심이쏠리는것을원치않아했다는사실이다. 페미니즘운동이가정에서의남성중심주의때문에성인남성이아동을성적으로학대할수있는상황이조성되기도한다는사실을드러낸것은대단히중요하고가히혁명적인성과이지만사실수많은아동이성인남녀모두에게언어적육체적폭력에일상적으로시달리고있다. 모성적가학증 maternal sadism 은중중어머니가아이를감정적으로학대하는상황으로이어지는데, 아동에대한성인여성의폭력이라는문제에대해페미니즘이어떻게비판과개입을할수있는지아직이론적으로제시된적은없다.

아동이인권을누리지못하는지배의문화에서는힘있는사람들이, 다시말해성인남성과여성이독재하듯아이를지배할수있다. 의료기록을통해이사회의원들이매일학대당한다는사실을알수있다. 게다가그런학대중상당수가목숨을위협할정도로심각한수준이다. 많은아이들이죽어간다. 여성들또한이런폭력의영구화에결코남성못지않게기여했다. 성인여성이아동에게폭력을행사한다는사실을페미니즘운동이직시하려들지않으면페미니즘이론과그실천사이에심각한간극이생긴다. 남성중심주의만강조하면페미니즘이론가들을포함한여성들이여자가다양한형태로아동을학대하는현실을쉽사리무시하게한다. 우리모두가부장적사고에익숙해힘있는자가힘없는자를지배할권리가있으며어떤수단으로든힘없는사람을복종하게만들수있다는지배의윤리학을자연스레받

가부장제적현실은조금도흠집이나지않았을것이며, 가부장제를지지하는세력이페미니즘을가혹하게공격할필요도없었을것이다.

가부장제적대중매체와성차별주의지도자들은거듭해서페미니즘은죽었다고, 페미니즘은더이상아무의미가없다고말한다. 그러나현실로 눈을돌리면사방에서모든연령의여성과남성들이계속해서젠더평등에대해고민하고, 스스로를제한하거나구속하는게아니라자신을해방해줄새로운젠더역할을계속모색하고있다. 그리고그들은이러한문제에대한답을구하기위해계속해서페미니즘을찾는다. 선구적인페미니즘은우리에게미래를향한희망을준다. 페미니즘사고는상호관계와상호의존의운리를강조함으로써우리에게불평등이초래한결과를바꾸고동시에지배를중식할방법을제안한다. 상호성이일상인세계에서는때때로모두가평등하지않더라도그불평등의결과가반드시복종과식민지화, 비인간화는아닐것이다.

성차별주의와그에근거한착취와억압을끝장내기위한운동으로서의페미니즘은생생하게살아숨쉬고있다. 비록대중기반의운동역량은갖추지못했지만그러한방향으로운동을새롭게시작하는것이우리의첫번째목표다. 우리삶에서페미니즘운동이계속이어질수있도록선구적인페미니즘이론은우리가살아가는자리, 우리의현재를고심하게끔끊임없이생산되고재생산되어야한다. 여성과남성은젠더평등이라는목표에있어큰걸음을내디뎠다. 그리고자유를향한이러한전진은더멀리나갈힘을줄것이다. 우리는용감하게과거로부터교훈을얻고, 페미니즘원칙들이우리의공적사적삶의모든영역을아우름미래를위해노력할것이다. 페미니즘정치의목표는지배를중식하여우리가있는그대로자기자신으로살아가게끔우리를해방하는것이다. 얼마든지정의를사랑하고, 평화로운삶을누릴수있도록말이다. 페미니즘은모두를위한것이다.

아들일정도로사회화되었기때문이다. 이에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의위계질서안에서여성에대한남성의지배가용인되듯이아이에대한어른의지배도용인된다. 그리고어느누구도아이를학대하는어머니에게관심이쏠리기를진심으로원치않는다.

나는이따금씩예전에참석했던근사한파티에서있었던일을이야기하고는한다. 파티참석자중에어린아들을훈육한다며아이가말을들때까지아이의연한살을세게꼬집고놓아주지않는어떤여자가있었다. 그리고이를본사람들은아이를엄하게키운다며이구동성으로그녀를칭찬했다. 나는그녀의그런행동이바로아동학대라고지적하면서그녀는그남자아이가훗날여성을학대하는남성으로자라도록씨앗을뿌리는셈이라고도말했다. 내이야기를들던사람들에게이점을확실하게짚었다. 만약어떤남자가여자의행동을통제하기위해그녀를세게꼬집으며힘으로제압한다고이야기했다면곧바로이를학대라고인지했을것이다. 하지만상처입는대상이아동일경우, 이런부정적인지배를용인한다. 이런일은예외적인사건이아니다. 아동에대해이보다훨씬더가혹한폭력이어머니에의해아버지에의해매일자행되고있다.

이나라의아이들은진정위기에직면해있다. 페미니즘이이끌어낸변화와가부장제사고가충돌하면서집집마다남성의지배를정상으로여겼던시절보다가정이더더욱치열한전장으로변화하고있기때문이다. 페미니즘운동을축매로가부장제가정에서남성이아동을성적으로학대했으며지금도마찬가지라는사실이폭로되었다. 이러한폭로는페미니즘운동에참여한성인여성들이심리치료를받는과정에서자신들이학대의생존자임을인지하고이문제를치료과정이라는사적인장에서공론의장으로끌어내면서시작되었다. 이런폭로덕에현재벌어지는학대에아이들이능동적으로맞설수있는윤리적도덕적분위기가형성되었다. 하지만단순히아동에대한남성의성적학대에만주의를촉구하는것으로는, 이러한학대가남성중심주의와직결되며가부장제가사라지지않는한계속될것이라는인식을대중이받아들일만한분위기를조성할수없었다. 아동에대한남성의성적학대는여성에의한학대보다많이일어나며더많이보도되지만, 그렇다해도아동에대한여성의성적학대도남성의학대만큼이나심각하다는사실을인식해야한다. 그리고페미니즘운동에서도남성의학대행위를비판하는만큼학대를일삼는여성역시철저하게비난해야한다. 성적학대뿐아니라아동에대한폭력은다양한방식으로행해진다. 그중가장일반적인형태가언어폭력과정신적학대다.

모욕을줘서수치심을느끼게하는행위는또다른학대를낳는토대가된다. 남자아이들은주로성차별주의적남성성규범에맞지않는행동을할때이러한학대의대상이된다. 그들은대개성차별주의자인성인들(특히어머니들) 과다른아이들에게창피를당한다. 만약남성양육자가반성차별주의적인사고와행동이벤사람이라면아이들은일상에서페미니즘을경험

할수있다. 페미니즘사상가와활동가들이아이들에게성차별주의적편견이행동을판단하는기준이되지않는교육현장을제공할수있다면소년들과소녀들은건강한자존감을키울수있다.

페미니즘운동은아이들을위한다양한활동을전개했는데, 단지젠더평등을이루기위해서만이아니라아이와더좋은관계를맺기위해남성도육아에똑같이참여해야한다는문화적인식을일궜다는점이가장긍정적인성과일것이다. 미래의페미니즘연구는반성차별주의자남성의육아가아이들의삶의질을어떻게향상했는지그모든것을증명할것이다. 동시에우리는페미니즘육아전반에대해서, 반성차별주의적환경에서자녀를양육할수있는현실적인방안에대해서, 그리고무엇보다이런가정에서자란아이들이훗날어떤사람이되는지에대해서연구해야한다.

선구적인페미니즘활동가들은모성애와어머니로서의여성의노고를인정하는차원높은문화를조성하기위해꾸준히노력해왔으면서도남성양육자의중요성과가치를절대간과하지않았다. 남성의육아참여에대한찬사를여성의어머니역할의긍정적인면을편취하고평가절하하는것으로받아들인다면결국괴해해보는쪽은여성이다. 페미니즘운동이시작됐을무렵페미니스트들은육아를여자들을좀더자유롭게만들고자신을더긍정하게이끄는게기가되어줄직업과대척점에놓고서는어머니역할을격렬하게비난했다. 그러나 1980 년대중반몇몇페미니즘사상가들이어머니역할을경시하고임금노동을과대평가하는풍조에맞섰다. 『페미니즘 — 주변에서중심으로』에서이주제에대해이렇게정리했다.

“여전히성차별주의가만연하고, 개인간에질투와불신, 적대감, 악의를조장하는불필요한경쟁이이루어지는사회풍조에서의노동으로인해스트레스를받고좌절감을느끼며때로는완전히불만족스러워진다. ... 임금노동을즐기고좋아하는여성들이많지만, 그들은이일에서시간을너무빨려다른만족감을추구할여유가없다고느낀다. 일하는덕분에어느정도경제적으로독립을하거나경제적자립까지도할수있대도, 대다수의여성들은일에서인간적인욕구를온전히채울수없었다. 그결과여성들은누군가를돌보면서만족감을얻을수있는일을찾는과정에서가족의중요성과어머니역할의긍정적인측면들을재평가하게되었다.”

역설적이게도페미니즘사상가들이어머니역할을좀더균형있게그리려고노력을기울이자주류가부장제문화가한부모가정특히여성이가장인가정에대해맹비난을퍼부었다. 이러한비난은복지문제와관련될때특히혹독했다. 싱글맘들이정부에서받는보조금이나취꼬리만한임금으로도얼마나수완 좋게아이를키우는지보여주는자료를싸무시한채, 가부장제문화는유독문제있는편모가정을골라그게일반적인양비난하고는이가정에가장이자수장으로남자가있어야만이런문제를해결할수있다고주장했다.

택을본다면결국여성이패배하는것이라는비이성적인두려움을떨치지못한이들은, 대중이페미니즘을의심하고무시하도록영똥하게거느림이되었다. 그리고남성을혐오하는여성들중에서는남자들과함께하느니라리페미니즘이발전하지않는것이낫다는이들도있었다. 하루빨리남성들이페미니즘의기치를들고가부장제에맞서야한다. 지구에서안전하고영속적인삶을영위하려면남성들이페미니스트로전향해야한다.

페미니즘운동은연령과남녀를불문하고모든사람들이성차별주의를철폐하기위해노력해야진보한다. 이런노력을실천하기위해꼭어떤단체에가입할필요는없다. 우리가선그곳에서페미니즘을위한행동을하면된다. 우리는가정에서, 우리가사는지역에서, 우리자신과우리가사랑하는이들을가르치며페미니즘을위한노력을시작할수있다. 과거페미니즘운동은여성과남성개개인에게변화를위한청사진을제대로제시하지않았다. 페미니즘정치의취지와방향에대해서는확고한믿음을바탕으로하더라도, 페미니즘적변화를이끌어내는전략만큼은다양해야한다.

페미니즘으로가는길은하나가아니다. 사람마다살아온배경이천차만별이므로각자의삶에공감할것을페미니즘이론이필요하다. 흑인여성페미니즘사상가로서나는페미니즘투쟁이흑인의삶을개선하는데매우중대한역할을한다는점을모든흑인이받아들일수있는구체적인관심사와전략을찾아내기위해서, 반드시흑인의삶에서의젠더역할을비판적으로검토해보아야한다고생각한다.

선구적인급진적페미니즘은우리모두에게제국주의-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내에서우리가어떤위치에서있는지정확하게판단할수있게끔젠더와인종, 계급의관점에서각자의삶을용감하게되돌아보라고격려한다. 오랜세월동안많은여성페미니스트들은젠더가어떤이의상황을결정하는유일한요소라는그릇된전제를고수했다. 이러한아집을깨뜨리는일도페미니즘정치를위한결정적전환점이었다. 덕분에여성들은인종과계급이라는장벽에가로막혀여성운동이대중화되지못했던과정을직시할수있게되었다.

우리는이제페미니즘투쟁을다시시작할준비를마쳤다. 페미니즘운동만큼가부장제가여성과남성의행복을얼마나위협하는지확실하게보여주는것도없기에반페미니즘역풍은여전히존재한다. 만일페미니즘운동이성차별주의와남성중심주의의영구화가어떤위험을내포하는지제대로알려주지않았다면페미니즘운동은실패했을것이다. 페미니즘에반대하는목소리가커질일도없었을것이다. 가부장제대중매체는페미니즘교실에서남성은환영받지못한다는거짓말을계속퍼뜨리고있지만, 실은페미니즘을공부하고그사상을받아들이는남자들이점점늘어나고있다. 페미니즘운동에서의이런의미심장한변화가가부장제에더욱위협적으로작용한다. 앞서강조했다시피페미니즘운동이여성에게만집중했다면

에서 평등을 갈망하는 순간조차 사적인 분야에서는 가부장제 체제가 온전하게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러나 선구적인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일찍이 운동 초기부터 가부장제와 결탁하거나 하다못해 페미니즘 운동의 일부 주장에 대한 가부장제의 지지(가령, 여성에게 일을 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결과적으로 여성의 입장이 취약해질 것이라 보았다. 우리는 삶을 지배하는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획득한 권리는 다시 쉽게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임신 선택권 문제에서, 특히 임신 중단 문제에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 현실을 이미 알고 있다.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 시민권을 쟁취했다 한들, 여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실제로 보다 더 잘 지내고 있으며 지배 구조가 변했다고 생각하게 한다면 이는 위험한 일이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페미니즘에 등을 돌리면서 이러한 구조는 다시 공고해진다.

극단적인 반페미니즘 역풍도 페미니즘 운동을 약화시켰다. 이 역풍의 주역은 페미니즘을 맹비난하며 결국 운동을 훼손하기 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여성들이었다. 가령, 최근에 출간된 대니얼 크리텐던¹⁵은 『우리 어머니들이 말해주지 않은 것들 — 왜 행복은 현대 여성을 피해가는가』는, 여성은 항상 가정에서 살림을 하며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어머니가 되어야 하며, 남녀의 사고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음을 인정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페미니즘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현대 여성이 직면한 불만은 모두 페미니즘 운동 탓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절대 가부장제나 남성 중심주의, 인종 차별주의, 계급 착취 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다. 반페미니즘 책들이 쉬운 말로 쓰여 광범한 독자에게 다가가는 데 반해, 그들의 메시지에 맞설 만큼 대중적인 페미니즘 이론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급진주의 페미니스트들, 특히 이제 중년에 들어선 서른다섯에서 예순다섯 사이의 우리 같은 여성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페미니즘이 그들의 삶에 미친 건설적인 영향에 대한 놀라운 증언을 듣게 된다.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삶을 더 고단하게 만들었을 뿐이라는 대중의 오해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전히 가부장제적 사고와 행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페미니즘의 사고와 실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성의 삶을 훨씬 복잡하게 만드는 일인 것이 사실이다.

선구적인 페미니스트들은 늘 남성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지만 남성들이 성 차별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위축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젠더 전쟁은 여전히 일상적이다. 남성을 투쟁의 동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그러니까 남성이 페미니즘 정치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해

페미니즘에 몰아닥친 역풍 가운데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비난만큼 아동 복지에도 해로운 것도 없었다. 그 어떤 가족 형태보다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성된 가부장제가 족을 높게 치는 문화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네 가족이 일반적인 가족 형태에 부합하지 않을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다. 남성이 가장이라 한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며 아동 복지가 더 잘 이뤄지는 것도 아니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가부장제가 정을 이상화하는 인식은 여전히 공고하다. 아이들은 사랑이 가득한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지배자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라면 사랑을 꽃피울 수 없다. 부모가 혼자든 아니든,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가장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랑이 넘치는 부모라면 자신의 아이를 자존감을 가진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할 것이다. 앞으로의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세상의 부모들에게 성 차별주의를 종식하는 것이 어떻게 가족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 보여줘야 한다. 페미니즘 운동은 가족 친화적이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인이든 가부장제적으로 아이를 지배하지 않아야 비로소 아이가 안전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정을 꾸릴 수 있다.

14 장: 결혼과 동반자 관계를 해방하기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정점을 찍었을 때 결혼 생활 역시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다수의 이성애자 여성들이 페미니즘 운동에 뛰어들든 배경에는, 친밀한 관계 특히 젠더 차별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오랜 결혼 생활에서 경험한 남성 중심주의가 자리했다. 페미니즘 운동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숫처녀가 아니거나 연인이거나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은 여성은 비난하면서도 남자는 성적 욕망을 품거나 그 욕망을 행동으로 옮겨도 용인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중 잣대와 충돌했다. 성해방 운동은 결혼 제도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을 더욱 고취시켰으며 특히 안전하고 저렴한 피임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초기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사적인 유대와 가족 관계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계급과 인종을 불문하고 가부장적인 부모로부터 든 남편으로부터 든 이런 관계에서 여성들이 남성 중심주의의 맹공을 받기 때문이었다. 어떤 여자가 성 차별주의적인 남성 상사나 자신을 지배하려는 타인의 시도에 적극적으로 맞선다 해도 막상 집에서는 동반자의 뜻에 굴복할 수도 있다. 오랜 결혼 생활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성애자 여성들과 레즈비언들의 연대로 이루어진 현대 페미니즘 운동은 결혼 생활을 또 다른 형태의 성노예제라고 비판했다. 그들은 친밀함과 보호, 존중 같은 요소를 제물로

¹⁵ Danielle Crittendon. 캐나다 출신의 언론인이자 저술가. -역자주

남성이가정을지배하는우두머리가되는, 결혼이라는전통적인성차별적 결합을집중조명했다.

초기많은여성페미니스트들은남성들의변화가가능성에대해회의적이었다. 어떤이성애여성들은성차별주의자남성들과불평등한관계를맺느니라차리독신이나레즈비언이되겠다고결심했다. 어떤이들은일부일처제때문에여성의몸이결혼한남자의소유물이라는인식이강화된다고보았다. 우리는비일부일처제를선택하거나결혼자체를거부하기도했다. 우리는비록가부장제사회일지라도국가가승인하는결혼을택하지않고남성파트너와함께살면남성들이여성의자주성에대해건전한중심을표하리라믿었다. 페미니스트들은성노예제를끝내자는주장을지지했고, 부부간성폭행에관심을가질것을촉구하면서, 그와동시에여성이성적욕망을당당하게표현하고성관계를요구할권리와성적만족을추구할권리를옹호했다.

정숙한여자는성에관심이없어야한다고배우며자랐기에섹스에무관심해진동반자와는만족스러운섹스를할수없다는바로그이유때문에페미니즘적사고를받아들이는이성애자남성들도많았다. 이남성들은페미니즘운동이여성배우자에게성에대해해방적인패러다임을제시해주었기에더만족스러운성생활을누릴수있게되었다며고마워했다. 페미니즘사상가들은여성의성생활로여성의도덕성을재단하려는생각들을불식시킴으로써처녀가아닌여성에게찍는낙인을없앴것만아니었다. 그들은여성의성적만족감을남성의만족감만큼이나중요하게보았다. 페미니즘운동은여성에게성적으로만족하지못했을때굳이좋은척하지않아도된다고설득했는데이런주장은남성의성적결함을폭로하겠다고위협한셈이었다.

이런위협을잠재우기위해성차별주의자남성들은대부분의페미니스트들이레즈비언이라거나‘끝내주는썸’이면어떤페미니스트든지제정신을차릴것이라고꿇임없이주장했다. 실제로페미니즘의반란으로인해가부장제적인관계에서남성과의성관계에만족하지못하는여성들이많은사실이드러났다. 친밀한유대관계에있어서도대부분의남성들은남자들에게성적행동패턴을바꾸라는요구보다는여성을성적으로더능동적으로바꾼, 여성섹슈얼리티의페미니즘적변화를더기꺼이받아들였다. 페미니즘의의제로이성애문제가떠올랐을때수없이논의된주제가바로전혀없는섹스였다. 이성애자여성은남성의강압적이고여성의즐거움을배려하지않는섹스에넌덜머리가난상태였다. 페미니즘이여성의성적패락을중요시한덕분에여성들은남성의성적행동을비판하고이에맞설수있는언어를갖게됐다.

성적자유면에서여성들은광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다. 일부일처제에대한비난은성병의유행으로여성이자유분방한성생활을누리기가어려워지자서서히잊혀졌다. 남성이여성을속이는것이용인되는가부장제

는반응을보면, 그관계를잘모른다는사실이더욱분명해진다. 대중매체는왜이런폭력이발생하는지를가부장제적사고와연결짓지않은채그저묻기만한다.

비판의식을함양하기위해대중적인페미니즘교육이필요하다. 안타깝게도지금까지는계급엘리트주의가페미니즘적사고의방향을잡았다. 대부분의페미니즘사상가/이론가는엘리트들로둘러싸인대학에서연구할뿐이다. 우리는대부분어린이책을쓰지도, 초등학교에서가르치지도, 공교육교육과정에건설적인영향을미치게끔적극적인로비활동을하지도않는다. 나는누구나쉽게납득하는페미니즘사상을만드는페미니즘운동의일부가되고싶었기에어린이책을쓰기시작했었다. 읽거나쓸줄모르는모든세대의사람들한명, 한명에게메시지를전하는데에는오디오품도좋다.

페미니즘의메시지를널리전하기위해가가호호문을두드리는집단적인노력은, 페미니즘정치는급진적일수밖에없다는기본전제와더불어새로운모습으로새로이시작하는운동에필수불가결하다. 급진적인면은대개음지로밀려나게마련이므로, 페미니즘의메시지를퍼뜨리고싶다면페미니즘을양지로끌어올리기위해최선을다해야한다. 페미니즘은성차별주의와그에근거한지배와억압을끝내려는운동이며젠더차별을근절하고평등한사회를만들기위해노력하는투쟁이므로근본적으로급진적인운동이다.

페미니즘활동가들이모든방면에서나타나는성차별주의를몰아내기위한노력을그만두고오로지개혁에만집중하자페미니즘운동에내재된급진성을둘러싸고혼란이빚어졌다. 수많은‘페미니즘들’이있을수있다는주장은, ‘파워페미니스트’라는용어를최초로사용한집단중에서도지위와특권계급의권력을추구한여성들의보수적이고자유주의적인정치적이해에부합한것이였다. 이들은페미니스트가임신중단에반대할수있다고주장한최초의집단이기도했다. 이는또하나의그릇된주장이다. 여성이자신의몸을스스로통제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는것이야말로페미니즘의기본원칙이다. 여성개인이임신중단을하느냐마느냐는순전히선택의문제다. 임신중단을하지않는다고해서반페미니스트가되는것이아니다. 여성에게선택할권리가있다는것이야말로페미니즘의원칙이다.

기생적인계급관계와부와권력을향한탐욕으로여성들은빈민, 노동자계급여성들의이해를배신하기에이르렀다. 한때페미니즘사상과함께했던여성들이이제공공복지에반하는정책을지지한다. 그들은자신들의입장에아무런모순도느끼지않는다. 이들은단순히각자생각하는페미니즘에나름의‘브랜드’를달았을뿐이다. 페미니즘을라이프스타일이나상품으로여기게되면서절로페미니즘정치의중요성은희석된다. 오늘날수많은여성들이페미니즘을제외한시민권만을원한다. 이들은공적인분야

만이 목표표를 이루려면 운동은 젠더 평등의 제를 뛰어넘어, 모든 여성들, 특히 빈곤층 여성들을 겨냥할 수 있는 문맹 퇴치 운동 같은 기본적인 활동부터 시작해야 했다. 이 세상에는 페미니즘 학교도, 페미니즘 대학도 없다. 그리고 이 런 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적도 없었다. 여성들이 일 자리를 얻고 경력을 쌓게 하는 차별 철폐 조치의 주요 수혜자인 교육받은 백인 여성들은, 기존 체제의 단물을 모두 빼먹었기에 페미니즘 원리를 설립이념으로 삼는 교육 기관의 창설에는 의욕이 없었다. 이런 교육 기관이 월급을 많이 줄 리 없 을 터였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부유한 페미니즘 활동가들조차 사재를 털어서라도 기본적인 기술조차 배우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과 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려 하지 않았다.

선구적인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광범위한 페미니즘 운동, 그러니 까 소녀와 소년, 여성과 남성, 모든 계급을 가로지르는 운동의 필요성을 통감했지만, 정작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져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선구적인 페미니즘 이론조차 정립하지 못했다. 요즘 학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페미니즘 이론은 대부분 자기들만 아는 은어 같은 어려운 학술 용어로 쓰여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읽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페미니즘에 대해 기초적인 것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초등학교도 이해할 만 한 페미니즘 입문서도, 다채롭고 풍부한 자료로 구성된 페미니즘 책도 구할 수 없다. 그런 게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운동을 재건하고 싶다면 이런 책부터 만들어야 한다.

페미니즘 옹호자들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소유하거나 기존 방송 사고정 코너를 잡아서 페미니즘을 소개할 만큼 자금을 만들지 못했다. 텔레비전이 나 라 디 오 프로그램 을 아무리 봐도 페미니즘 과 관련 해서 는 어디 서 도 다루 지 않는다. 우리가 페미니즘에 대한 메시지를 널리 퍼뜨리려고 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사람들이 여성 젠더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것이 설령 페미니즘적 관점을 전혀 담고 있지 않더라도 페미니즘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지레 짐작한다는 것이다. 젠더 문제를 부각하는 라디오 프로그램과 몇몇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있지만 그 정도로 페미니즘을 집중 조명한다고는 할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현대 페미니즘이 거둔 성과 중 하나가 누구나 젠더 문제나 여성 문제를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 이긴 하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게 꼭 페미니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 운동은 우리 사회가 여성과 아동에 대한 남성의 폭력 문제를 직시할 수 있는 문화 혁명을 일으켰다.

대중 매체가 가정 폭력 장면을 연이어 보여주고 그에 관한 논의 또한 도처에서 진행중이지만, 대중은 남성이 저지르는 이러한 폭력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남성 중심주의를 끝장내고 가부장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이 나라 대다수 시민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주의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남성 폭력 사이의 연관성을 잘 모른다. 그리고 계급을 막론하고 젊은 남성이 가족, 친구, 동급생 등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에 이 사회가 보

문화에서 에이즈 처럼 남성이 여성에게 옮기기가 더 쉬운 치명적인 질병들이 출현하자 이성애자 여성은 다양한 파트너를 고르기가 더 힘들어졌다. 명백하게도, 가부장제 하의 이성간의 결합에서 일부 일처제를 강조할수록 커풀은 성 차별주의적 패러다임을 벗어나기가 더 힘들다. 게다가 수많은 여성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 하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벗어난 여성은 피해를 입는 반면 남성은 간단히 더 많은 권력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설령 여성들이 다른 짝이 있는 남성과 도스스럼없이 섹스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남성들은 짝이 있는 여성에게 성적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혹여 관심을 갖더라도 그 여성의 짝인 남성에게 계속해서 특권을 양도하며 심지어 그녀와 사귀려 할 때 상대방 남성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까지 한다.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에 도 불구하고, 일부 일처제를 거부할 자유가 있는 여성들은 그러한 자유를 누리든 아니든, 여성의 몸이 남성의 소유라는 통념에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그러한 통념을 없애기 위해 애쓰고 있다. 페미니즘 운동이 성적 쾌락에 대한 성 차별주의적 통념을 비판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듯이, 이 또한 여성과 남성이 좀 더 만족스러운 성적 관계를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성적 유대 관계에 일어난 본질적 변화는 남자도 집안일과 육아를 똑같이 분담해야 한다는 의식 변화 같은 가정 내에서의 다른 변화로 이어졌다. 요즘은 실제로 하든 안 하든 간에 남자도 가사 노동을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이 많다. 젊은 여성들도 가사 노동 분담을 토론거리로도 보지 않는다. 그들에겐 가사 노동 분담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에서는 가사 노동 분담은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며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이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하고 있다. 대체로 남자들은 집안일과 육아에 대한 평등보다는 침실에서의 평등을 더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했다. 일단 계급 권력을 얻게 된 개별 여성이 자신도 하기 싫고 남성 동반자도 하려 들지 않는 가사 노동을 도우미를 고용함으로써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하지만 이성애 커플이 도우미를 고용해 성 차별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일'로 규정되는 일을 처리할 때, 대개 그 피고용인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건 여성의 몫이다.

여성의 삶에 유일하게 만족감을 주는 삶의 목적으로 여겨지던 어머니 역할에 대한 비판만큼 결혼과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의 본질을 변화시킨 요소도 없었다. 여성의 가치가 더 이상 출산을 하느냐 양육을 하느냐로 결정되지 않게 되자, 자녀를 원치 않는 맞벌이 부부가 동등하게 결합하는 평등 결혼 peer marriage 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아이가 없는 부부는 더 쉽게 동등해질 수 있었는데, 그 도 그럴 것이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어떤 일은 자동적으로 어머니의 할 일로 못 박아 보니 여성이 육아에서 젠더 평등을 이루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 운동이 할기를 떠자 그 전만 해도 모유 수유를 경시하던 가부장제적 의료계가 갑자기 모유 수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나아가 집요하게 강요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성애자든 레즈

비언이든 상관없이 아이를 낳는 여성에게 자동적으로 더 많은 육아 책임을 지우는 실례 중 하나일 뿐이다. 확실히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여성들은 아기가 태어나고 그들의 관계가 좀 더 성차별주의적인 것으로 추락한 경험을 겪었다. 하지만 커플들이 특히 육아 문제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평등해지기 위해 노력한다면 평등은 실현될 수도 있다. 물론 그러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육아를 열심히 하지 않는 편을 택했다.

아동복지와 젠더 평등의 관점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가 지니는 가치와 중요성을 환기한 것은 페미니즘 운동이 거둔 긍정적인 성과였다. 남성이 육아를 분담할 경우, 두 사람이 결혼을 했든 동거를 하든 따로 살든 간에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더 좋아진다. 페미니즘 운동 덕분에 전에 비해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들이 훨씬 많아졌으나 아직은 젠더 평등 비슷한 것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육아를 똑같이 분담하면 육아를 더 긍정적이고 성취감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일 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물론 일하는 부모, 특히 남성의 경우는 업무 분담 때문에 육아에 더 참여하고 싶어 도 현실의 벽에 가로막히고는 한다. 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변혁을 꾀하지 않는다면, 남성이 육아에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할애하도록 삶을 꾸릴 수 있는 세상에서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라면 남성들이 육아에 좀 더 열성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날이 오지 않는 한, 일한 만큼의 봉급도 못받으면서 과로에 시달리는 수많은 남성 노동자들은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과로에 시달리고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한 대란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성에게 육아를 떠맡길 것이다.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 아래의 노동 현실에서는 여성이 육아에 충실할 수도 없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일을 계속할 수도 있었을 여성들이 집에 들어앉게 되었다. 여성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남성 중심주의에 기반한 성차별주의 사고라기보다 우리가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두려움이다. 많은 여성들이 경쟁적인 출세 지상주의에 쫓겨 사랑하는 이들을 보살필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누구도 남성에게 육아 전담을 위해 직장을 관두라고 하지 않는 것만 봐도 이 사회에 성차별주의적인 성역할이 어느 정도 만연해 있는지 잘 보여준다.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 육아에 적합하다고 믿는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한편으로는 모성의 가치를 폄하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부모와 아이의 유대감 같은 모성이 주는 특별한 지위와 특권을 누렸기에, 페미니즘 사상가들의 바람만큼 육아에서 얻는 자부심을 남성들에게 쉽사리 내주려 하지 않았다. 어떤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서는 생물학적 결정론을 비판하면서도 어머니 되기에 관해서만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댔다. 그들은 육아에서 어머니만큼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며 아버지도 어머니만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성차별주의적 사고가 만연한 상황에 이러한 모순까지 더해

19 장: 페미니즘의 미래

진정으로 선구적이라면 우리의 상상은 구체적 현실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현실을 넘어 설 미래를 그릴 줄도 알아야 한다. 현대 페미니즘의 가장 큰 장점은 그 형태와 방향을 바꾸어 가는 방식에 있다. 진부한 사고 방식과 행동 패턴을 고수하는 사회 운동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선구적인 페미니즘의 뿌리는 196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성 해방 운동이 갖 시작되었을 당시, 급진적/혁명적 정치 운동을 꿈꾸던 선구적인 페미니스트 사상가들이 출현했다. 그들은 운동을 이끌며 백인 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 시스템의 힘을 약화하고 이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기존 체제 하에서 여성의 시민권을 쟁취하기 위한 개혁주의적 싸움도 지속했다. 그들은 지배의 문화에 찌든 이 세상을 공동체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바탕이 된 참여적 경제의 세상으로, 인종과 젠더에 따른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상호성과 상호의존에 대한 인정이 지배적인 정서를 이루는 세상으로, 지구의 생명을 지키며 모든 사람이 평화와 안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태도의 비전이 실현된 세상으로 바꾸는 꿈을 꾸었다.

급진적/혁명적 페미니즘의 비전은 운동이 발전하면서 더 명확해지면서도 더 복잡적으로 바뀌어 갔다. 하지만 이 비전은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면서 체제 내 변화를 이끌어 낼 때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개혁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절대론으로 인해 종종 불투명해졌다. 어떤 개혁주의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젠더에 근거한 경제적 불평등을 뜯어고쳐 특권 계급 남성 노동 등 한 권리를 얻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떤 이들은 운동의 역량을 개혁에 집중하면 여성의 삶에 더 의미 있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간단히 믿어버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페미니즘 투쟁의 급진성을 포기하면서 페미니즘 운동은 주류 인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공세에 보다 취약해지고 말았다.

계급 권력 획득이나 한층 더 진계급 이동의 가능성에 현혹된 개혁주의 활동가들이 기존의 사회 체제 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체제를 해체하는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여성들은 더 줄어들었다. 한쪽에서는 कै털 길리건 같은 페미니즘 사상가들이 질리지 않고 여성이 더 다정하고 더 윤리적이라고 말했지만, 여성들이 자신보다 더 힘없는 다른 여성들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도 무지 그말에 동의할 수 없다. 여성들이 자신이 속한 정체성이라 생각 하는 같은 민족이나 인종 집단에 보이는 보살핌의 윤리는, 그들이 공감할 수 없고 동질성이냐 연대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치지 않았다. 특권층 여성들은 (예외도 있었지만 대부분 백인이었다) 노동자 계급과 빈곤층 여성들의 종속이 지속되도록 하는 일련의 움직임에 재빠르게 동참했다.

선구적인 페미니즘은 모든 여성의 운명을 바꾸고 그들이 각자 개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 내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삼았다. 하지

그리스도교를 비판한다는 사실만 조명할 뿐 다양한 여성 페미니스트 집단이 거둔 영적인 깨우침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페미니즘이 반종교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페미니즘은 가부장제 종교 사상이 변화하도록 이끌어 더 많은 여성들이 신성과의 연결을 찾아 내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페미니즘적 영성 실천은 대개 원가족이나 여러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부장제의 공격으로 상처입은 여성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찾은 치유 과정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영적인 질문에 확언을 얻은 것도 페미니즘 치유법의 맥락에서였다. 이러한 영적인 탐구는 본질적으로 사적인 경험이라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영성, 즉 영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앞으로의 페미니즘 운동은 페미니즘적 영성에 대한 지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더 나은 전략을 세워야 한다.

대안적 영적 세계를 선택한 덕분에 수많은 여성들이 가부장제 종교에 맞서고 저항하면서도 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제도화된 가부장제 교회나 사찰은 페미니즘의 개입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회는 지금까지 젠더 평등을 위해 해오던 노력을 내팽개치기 시작했다. 종교적 근본주의의 발흥이 진보적 영성을 위협한다. 근본주의는 사람들에게 불평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믿게끔 부추길 뿐 아니라, 여성의 몸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고히 한다. 이에 임신 선택권에 대한 탄압이 뒤따른다. 이와 동시에 종교적 근본주의는 여성과 남성의 성에 수많은 형태의 성적 강제를 용인하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억압적인 통념을 불어넣는다. 반드시, 페미니즘 활동가들은 조직화된 종교를 주시하고 비판과 저항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페미니즘을 긍정하는 경이로운 영적 전통들이 현재 이 세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데도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실천에 대해 알 기회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가부장제 종교가 영적인 편안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가부장제 종교는 대중매체 특히 텔레비전을 성공적으로 활용해 자신의 메시지를 널리 전파한다. 가부장제 종교가 유일한 영적 안식처라는 인식에 대항하려면 대안 영성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페미니즘적 영성은 시대에 뒤떨어진 신념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지를 제공했다. 다양한 방식으로 신을 드러내고, 신성한 여성성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삶의 중요성을 긍정하거나 재긍정하는 법을 찾을 수 있었다. 모든 형태의 지배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영적 탐사와 동일시함으로써 우리는 정의와 해방을 위한 투쟁과 영적 인식론을 하나로 이어주는 영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영적인 충만함에 대한 페미니즘의 비전은 자연스럽게 진정한 영적 삶의 토대가 된다.

지니, 육아 문제에 맞닥뜨리면 젠더 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리만 무했다.

요즘 들어 대중매체는 끊임없이 결혼이 다시 유행한다는 메시지를 퍼뜨리고 있다. 결혼은 결코 구닥다리 유물이 아니었다. 결혼이 다시 유행한다고 할 때 그 진짜 의미는 성차별주의적 의미가 강화된 결혼이다. ‘돌아왔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성차별주의적 토대에 세워진 결혼은 속부터 끓아 있으며 그 관계가 오래가기 힘들다는 게 명백하므로 페미니즘 운동은 이런 현실로 애를 먹고 있다. 성차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결혼이 점점 더 성행하고 있다. 이런 결혼은 가정에서 페미니즘 반란의 촉매로 작용할 불행과 불만의 씨앗을 품고 있는 한편, 이러한 결혼이 순식간에 끊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점에서 과거의 결혼과는 다르다. 요즘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젊은 나이에 헤어진다.

결혼과 동반자 관계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제 남성 중심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결별과 이혼을 낳는 일등 공신이 되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다룬 최근 연구들을 보면, 하나같이 젠더 평등이 두 사람이 서로를 긍정하게 하는 환경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긍정은 더 큰 행복을 만들어 내고 싶었던 결혼이 영원히 지속하지 않을 지라도 유대의 토대가 된 동지로서의 우정은 계속 유지된다. 앞으로의 페미니즘 운동은 가부장제 결혼 생활에 대한 비판에 시간을 덜 쏟는 대신 대안 제시에 더 주력할 것이다. 평등과 존중이라는 원칙, 그리고 동반자 관계를 실현하고 오래 지속하려면 상호 만족과 성장이 필수라는 믿음의 원칙 위에 세운 동료애적 관계 peer relationships 의 가치를 알리는 데 힘쓸 것이다.

15 장: 페미니즘 성정치 — 상호 자유의 윤리학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기 전, 성해방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왕성한 성적 활력을 드러내기란 불가능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여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차별주의적 사고를 주입받는다. 즉 성욕과 성적 쾌락은 늘 그리고 오로지 남성의 전유물이며 여성으로서의 덕목을 지니지 못한 여성들이나 성적 욕구나 갈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배운다. 성차별주의적 사고는 여성을 성녀 또는 창녀로만 구분했으며 여성이 건강한 성적 자아를 구축할 만한 토대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페미니즘 운동은 곧장 전형적이고 성차별주의적인 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맞섰다. 마침내 무렵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누구나 믿을 만한 피임 기구를 쉽게 구하게 되었다는 점도 운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민을만한피임기구가등장하기전에는여성이성적으로자기주장을하는경우언제나원치않은임신과불법적인임신중단의위험이라는‘징벌’로이어졌다. 민을수있는피임기구가존재하기이전의여성들이감내해야했던각종성병과공포를세상에알려줄증거들을우리는충분히모이지못했다. 여성이섹스할때마다임신의위험을감수해야하는세상, 남성은섹스를원하고여성은그걸두려워하는세상이라니나로서는떠올리는것만으로도공포스럽다. 이런세상에서욕망하는여성은자신의욕망과두려움이겹쳐진다는사실을알았을것이다. 우리는남성의성적접근을여성들이어떤방법으로물리쳤는지, 지속적인부부간성폭력에여성들이어떻게대응했는지, 원치않은임신을처리하기위해어떻게죽음까지무릅쓰는지에대해알려줄자료를충분히축적하지못했다. 하지만우리는페미니즘성혁명의등장으로말미암아여성섹슈얼리티의세계가완전히바뀌었다는사실은잘안다.

엄마들이감내했던성적고통과괴로움, 성에대한지독한두려움과증오를목격해왔던우리가더욱주체적으로성적욕망을표현하게됨과동시에자유와쾌락, 환희를약속하는페미니즘운동에뛰어들게되다니실로근사했다. 요즘에는여성이성욕을표현할때이를가로막는장애물이별로없기에우리문화에서가부장제가여성의몸과섹슈얼리티에퍼부은공격에대한역사적인기억은삭제돼버릴위험이있다. 이렇게기억이희미해진것을타입신중단권을불법화하려는세력은임신중단수술금지가여성의섹슈얼리티에얼마나치명적으로작용할지제대로논의도않은채, 태아를죽일지말지에만초점을맞추려고기를쓴다. 우리는여전히성적쾌락이라고는모르는, 섹스가오로지상실이자위협, 위협, 소멸인줄아는세대의여성들과함께살고있다.

여성이성적자유를누리려면민을만하고안전한피임기구가반드시있어야한다. 그렇지않으면여성은성행위의결과를완전하게통제할수없다. 한편여성이성적자유를누리기위해서는자기몸에대한지식을갖추는한편성적자기결정권의의미도숙지하고있어야한다. 섹슈얼리티와관련한초기페미니즘운동은여성지원할때, 원하는상대와섹스할수있는권리를얻기위한정치투쟁에과도하게집중한나머지, 반성차별주의적방식으로우리몸을존중하는법이나해방된섹스란어떤것인지가르쳐주는비판적페미니즘의식화교육은좀처럼이뤄지지않았다.

1960년대말 1970년대초, 여성들은성적자유와성적문란함을같은것으로여기게끔부추겨졌다. 당시에는그리고지금까지도이성애자남성들대부분은성적으로해방된여성은어떤요구도없이특히정서적친밀감같은걸안달하지않고쉽게섹스에동의하리라고멋대로생각했다. 그리고상당수의이성애자페미니스트들도가부장제남성이주입한틀에서자의행동을끼워맞췄기에똑같이오해했다. 그러나여성들이성적문란함과성적해방이절대같지않다는사실을깨닫기까지그리오래걸리지않았다.

성성의비전으로회귀하려는노력을비정치적이며감상적이라고보았다. 운동내부에서의이러한분열은가부장제종교에대한도전과해방된영성사이의연결고리를눈여겨보는여성들이점점늘어나면서이내종식되었다. 미국사람들은대부분자신을그리스도교인으로여긴다. 다른어떤종교보다성차별주의와남성중심주의를용인하는그리스도교교리는우리가이사회에서익혀나가는젠더역할에다방면에서영향을미친다. 우리의종교적믿음이새롭게바뀌지않으면우리문화를페미니즘적으로절대전환할수없을것이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창조중심적그리스도교영성의각성은그자체로페미니즘운동과연결됐다. 매슈폭스는『원복 Original Blessing』에서이렇게설명한다. “가부장제종교들과종교의가부장제적패러다임은최고 3500 년동안인류문명을지배했다. 창조중심적전통은페미니즘적이다. 그러한영성에서는지혜와에로스가지식이나금욕보다더중요하다.”자연환경/생태주의에관심이있는페미니스트들과인권문제에집중하는페미니스트들사이에서발생한갈등에대해이야기하다보면이런이원론은불필요하다는사실이드러난다.

정의를추구하는정치운동은우주가더충만하게발전하는과정의일부분이고자연은인간이자기인식과잠재된변화의힘을인식하는기반이다. 해방운동은조화와균형, 정의, 찬양에대한우주적감각을더충만하게발전시킨다. 이는진정한영적해방을위해서는우주를향한찬양과치유의식이필요해서인데, 이는다시개인의변화와해방으로이어질것이다.

해방신학은억압당하고착취당하는집단을해방하는것이신의의지에대한헌신을반영하는핵심적인신앙행위라고본다. 가부장제를철폐하기위한투쟁이야말로신의뜻이다.

근본주의가부장제종교는예나지금이나페미니즘사고와실천의확산을막는장벽이다. 사실, 페미니즘사상가, 특히여성의임신선택권을지지하는사람들을살해하라고부추기고범행을묵인한우익종교근본주의자들보다페미니스트들을악마화하는집단도없다. 처음에페미니즘이그리스도교를비판하자수많은여성이운동에서멀어졌다. 이후그리스도교인페미니스트들이성경과그리스도교신앙에대해창조중심적인새로운비판과해석을내놓자여성들은페미니즘정치와화해하면서도그리스도교적실천을계속시켜나갈수있었다. 그러나이활동가들은다수의그리스도교신자들을포용해페미니즘과그리스도교신앙사이에존재하는갈등이전혀불필요하다는사실을이해시킬만한페미니즘운동을완전하게조직하지못했다. 유대교나불교, 이슬람교등다른종교를믿는페미니스트들도마찬가지다. 이런운동들이일어나기전까지는조직적인사부장제종교가언제까지고페미니즘의성과를깎아내릴것이다.

현대페미니즘운동은초기에는영적세계에제대로관심을기울이기보다는시민권과세속적인성과에더집중했다. 주류대중매체는페미니즘이

18 장: 페미니즘적영성

페미니즘은예나지금이나변함없이영적인실천을도모하는저항운동이다. 나는페미니즘이론과그실천을받아들임으로써자아실현에는자기애와자기인정이필요하다는사실을완전하게인지했지만, 그전부터그와동일한메시지를공정하는영적인길에발을들여놓고있었다. 남성중심적인종교의성차별주의에도불구하고여성은영성의실천에서위안과안식을구할수있는여지를찾아냈다. 서구교회의역사를통틀어여성들은남성의방해를받지않고신과함께할수있는, 남성의지배없이도신에봉사할수있는장소를찾는수도원생활방식에의존했다. 날카로운영적통찰력과신성한명석함을두루갖춘신비주의자노리치의줄리언(Julian of Norwich)은현대페미니즘운동이태동하기도훨씬전에이런글을남겼다. “우리의구세주는우리의참된어머니로, 우리는그안에서끝없이태어나고그없이는결코세상에올수없습니다.”구세주는언제나오직남성이라는인식에감히대항한노리치의줄리언은, 신성한여성성으로되돌아가는여정에오르며, 가부장제적종교에속박된여성 이해방되도록힘을써주었다.

페미니즘운동은초기부터가부장제적종교를비판해반향을불러일으켰고이로써미국전역에서신앙심의본질을변화시켰다. 다시말해페미니즘은서구의형이상학적이원론(세상은언제나두가지범주로, 이를테면세상은열등한것과우수한것, 선한것과악한것으로나뉜다는가설)이억압과성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등온갖집단의이데올로기적토대가되었고, 이것이결국유대그리스도교신앙체계의기본개념을형성해간격을밝혀냈다. 숭배의방식을바꾸려면영성의비전을다시세워야했다. 페미니즘이가부장제종교를향해비판의수위를높여갈즈음문화전반에서뉴에이지영성으로눈을돌리는움직임이출현했다. 뉴에이지영성단체에서그 가르침을따르는사람들은, 수세기동안서구의정신세계를지배했던그리스도교근본주의에서벗어나다른해답을구하고다른영적전통을구하기위해동양으로눈을돌렸다. 타락과구원의개념에뿌리를둔가부장제영성을밀어낸자리에삼라만상의영성이들어섰다. 힌두교와불교, 부두교등다양한영적전통에서여자들은여신중심의영성으로회귀하게하는영적신성의이미지를찾아냈다.

페미니즘운동이막시작되었을무렵에는페미니즘운동이정치에만고착해야하며종교적이어서는안된다고여겼던활동가들의주장으로인해충돌이빚어졌다. 전통적인사회주의정치단체에서활동하다급진적페미니즘운동에뛰어든여성들은대부분무신론자들이었다. 그들은신성한여

페미니즘운동이한창‘뜨거울’때급진주의레즈비언활동가들은, 가부장제문화환경에서여성 이해방된이성애를경험할수있을지에대해문제제기를하며이성애자여성들에게남성과의유대를재고해보라고계속해서요구했다. 이러한문제제기는페미니즘운동에도움이되었다. 이는이성애자여성에게는이성애적상황을끊임없이비판적으로경계하게이끌었고, 레즈비언들의강점을긍정적으로부각하면서도취약점도드러내는식으로레즈비언들을주목하게했다. “페미니즘이론이고레즈비어니즘은실천이다”라는유명한구호에마음이끌려남성과의관계에서여성과의관계로 옮겨간이성애자여성들은이내이런관계에서도다른관계만큼정서적으로교감하기위해노력을기울여야하며그외에도갖가지어려움이따른다는사실을깨달았다.

레즈비언관계가이성애관계만큼, 혹은그보다더좋은지는두사람이동성이라는사실로정해지는게아니다. 모든관계에는지배하는쪽과복종하는쪽이있다는가학파학적 SM 전제를기반으로하는지배의문화에영향을받은로맨스와동반자관계의관념을얼마나깨부수느냐에달려있다. 이성애관계처럼레즈비언들의성적자유분방함도성해방과동일시될수는없었다. 개인의성적취향과관계없이이들을동일시해감정적인고통을 겪은여성들은섹스에대해환멸을느꼈다. 그리고남성중심주의와성폭력사이의관계를고려해보면남성과사귀는여성들이자신의성적불행에대해가장할말이많다는것도전혀놀랍지않다.

성적자유를돌려싸고벌어진일들에대한환멸로인해, 수많은페미니즘사상가들은이러한경험들이나동성친구나동료가직면한파탄난관계를외면하고떠나갔다. 이때이들의마음속에는모든성행위, 특히남성과맺는성관계에대해억눌린적개심이자리잡게되었다. 한때여성들에게‘적과의동침’을다시생각해보라고외롭게목소리를냈던급진주의레즈비언들에게이제남성과의관계에환멸을느끼고동성과유대를맺기로택한이성애자여성들이합류했다. 갑자기섹슈얼리티에대한논의, 특히성행위에대한모든종류의논의가모든성교는성적으로강제된것이며남성의성기삽입은강간이라는식으로흘렀다. 한동안이런이론과이를설파하는카리스마넘치는몇몇여성들이새롭고남다른성적정체성을정립하고자애쓰는젊은여성들의의식에지대한영향을미쳤다. 이런여성들중상당수가양성애를택하거나여성성이성적접촉방식을전적으로결정하기로합의하는남성과의관계를택했다. 하지만대다수젊은여성들은페미니즘에만단히등을돌렸다. 그리고는성적자유에대해진부한성차별주의적개념으로돌아갔는데, 때로는복수하는심정으로그러는듯보이기도했다.

그러므로성적패락과위험, 성적자유와굴레사이에서발생하는긴장의결과로서불거진충돌과모순이성적가학파학증의매력적인근거로작용한것은당연한일이다. 페미니스트의섹슈얼리티에대한질문은궁극적으로권력문제와단단히이어져있다. 페미니즘사상가들이평등에대해아

무리입아프게이야기를해도, 정작성욕과성적열정의발현문제만오면 성적무대에서피어오르는권력과무권력의역학이억압자와피억압자의 단순화된개념을붕괴시켰다. 레즈비언페미니스트가성적인가학피학적 관계를맺는다는사실, 즉권력이있는자와권력이없는자의입장이용인되는부치와웍의세계가존재한다는폭로만큼페미니스트가이성애를비난했던근거를뒤흔든것도없었다.

실제로, 페미니즘운동에참가한여성들이레즈비언이건이성애자건 성적가학피학적관계를맺으면서해방된여성이될수있느냐하는문제로 싸우기시작하자, 섹슈얼리티에관한모든급진적인페미니즘논의는끝이 나고말았다. 이문제는가부장제적포르노그래피의의미와중요성에대한 의견차이와얽혔다. 페미니즘운동을분열시키고붕괴시킬정도의파괴력을 가진문제와직면하자, 1980 년대가저물어갈즈음섹슈얼리티에대한 급진적인페미니즘담론은더이상공개적으로논의되지않게되었고, 사적 인자리에서만이주제로토론이이루어졌다. 섹슈얼리티에대한공개적인 논의가페미니즘운동을황폐화시킨것이다.

섹슈얼리티에대해공개적으로가장활발하게이야기한페미니스트들은보수적인경향이있었는데어떤이들은청교도적이고섹스에반대하기 까지했다. 페미니즘운동은여성의성해방을추구하고장려하던장에서성 폭력과피해자문제에더집중하는공개적인논의의장으로그성격이급격 하게변했다. 한때여성의성적자유를누구보다열렬하게옹호했던주류의 원로여성페미니스트들이이제는성적패락을하찮은것으로취급하며, 금욕을권장하기시작했다. 공개적으로여성의성욕과성생활에대해목소리를내고글을쓰던여성들이점점페미니즘성정치에서발길을돌리거나거리를두게되었다. 그리고어느새페미니즘운동은과거그어느때보다본래 반反섹스주의인것으로인식되었다. 결국성적열정과성적패락에관한선구적인페미니즘담론은대다수사람들에게무시당한채무대뒤로밀려났다. 이에여성과남성은그빈자리를가부장제가제시하는성적자유로채웠다.

성혁명과페미니즘운동에도불구하고우리는많은이성애자여성들이 단지남성이원한다는이유로섹스를한다는것을, 남성이든여성이든젊은 동성애자들의성적취향을사적으로든공적으로든있는그대로공정하는 환경이여전히마련되어있지않다는것을, 성녀아니면창녀라는성차별주의적도식이여전히남성과여성의에로틱한환상을채우고있다는것을, 가부장제적포르노그래피까지금도대중매체의모든부분에스며들어있다는것을, 원치않은임신이증가추세에있다는것을, 침대들이대개불만족스럽고불안전한섹스를한다는것을, 이성애자든동성애자든오랜세월부부생활이나동반자관계를맺어온여성들이섹스리스로사는경우가많다는것을잘안다. 이모든사실들을종합해볼때우리는섹슈얼리티에대한새

민임을전파했지만정작모두에게사랑의해방적비전을제시할페미니즘 이론을만드는게얼마나중요한지심도있는글은쓰지못했다.

이제와돌이켜보면, 당시우리는사랑에관한, 특히이성애에대한긍정적인페미니즘담론을만들어내지못했기때문에, 가부장제대중매체가페미니즘운동이사랑보다는증오를발판으로하는주장이라고떠들수있는 여지를주고말았다. 남성과유대를맺고싶었던수많은여성들은그런유대를맺지도못했고그렇다고페미니즘운동에헌신할수도없었다. 실제로우리는여성도남성도페미니즘을통해사랑을알수있다는생각을널리퍼뜨 렸어야했다. 이제는그사실을안다.

선구적인페미니즘은현명함과사랑이넘치는정치다. 페미니즘정치의정신은지배를종식하기위한헌신이다. 사랑은결코지배와강압에기반한관계에뿌리내릴수없다. 가부장제적사랑의개념을매섭게비판한급진주의페미니스트들은결코틀리지않았다. 하지만여성에게든남성에게든 우리가사랑을찾는여정에서길을잘못들었다는비판이상의것이필요했다. 우리에게는대안으로제시할수있는페미니즘적비전이필요했다. 우리중많은이들이삶의사적인영역에서는사랑, 즉페미니즘적실천에뿌리를둔사랑을했지만사랑에대한좀더보편적인페미니즘담론을, 페미니즘 운동내에서사랑에적대적이었던분파들에집중된관심을분산시킬만한 담론을만들어내지못했다.

우리가대안으로제시하는비전의맥락은여전히근본적이고필연적인 진실과공명한다. 즉, 지배가있는곳에사랑이들어설자리는없다. 페미니즘사고와실천은동반자관계와욕아를 통한상호성장과자아실현의가치를강조한다. 누구나욕구를존중받고, 누구나권리를누리고, 누구든예속이나학대를두려워할필요가없는관계에대한이러한비전은, 가부장제가관계의구조를지키기위해고수하는모든것과반대된다. 우리여성들은대부분아버지나남자형제, 또는이성애자여성의경우연애관계까지사생활에서접하는친밀한관계에서남성의지배를경험했거나경험할가능성이 있다. 실제로여성과남성이모두페미니즘사고와실천을받아들일경우두 사람의감정적행복은더깊어질것이다. 진정한페미니즘정치는언제나우리를속박에서자유로, 사랑이없는곳에서사랑이넘치는곳으로이끈다. 상호동반자관계야말로사랑의토대다. 그리고페미니즘의실천은상호성의토양을만드는우리사회의유일한사회운동이다.

진정한사랑은서로에대한인지와포용에서비롯한다는사실에, 사랑이인정과애정, 책임감, 헌신, 그리고지식을모두품어야한다는사실에수긍한다면정의없이사랑이존재할수없음을이해하게된다. 이사실을깨달으면사랑이우리에게변화시킬힘을주고, 지배에저항할수있는의지를심어준다는사실도이해하게된다. 그러므로페미니즘정치를택하는것은, 곧사랑을택하는것이다.

깨우쳐야한다고 했다. 이런 통념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뒤흔들 수 있다는 인식을 뒷받침했다. 사람을 때리고, 행동을 제약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앗아가고도 “열정 때문에 저지른 범죄”라며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을 한다. 가부장제 문화에서 사랑은 소유의 개념 그리고 한쪽은 사랑을 주지만 하고 다른 쪽은 받기만 해도 된다는 지배와 복종의 패러다임과 연결되어 있다. 가부장제에서 이성애 중심주의적 결합은, 돌봄의 정서를 가진 젠더인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주어야 하고 권력과 공격성을 지닌 남성은 여성을 부양하고 보호해준다는 기본 전제를 토대로 한다. 그러나 이성애자가 가정에서 수많은 경우에 남성을 돌봄에 보답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가진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가족을 통제하고 강압하는 폭군이 됐다. 페미니즘 운동 초창기에 이성애자 여성들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려고 사랑의 유대를 끊기 위해서 운동에 뛰어들었다.

페미니스트들이 여성들에게 아이들만 바라보고 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아이들은 여성들의 완전한 자아 실현을 가로막기 위해 사랑이 놓은 또 다른 덫에 불과했다. 당시 페미니즘이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남편 대신 자식에게 애정을 쏟는 어머니란 언제든 자식에게 잔인하고 부당한 벌을 내리는 전제적이고 부조리한 괴물이라고 했다. 젊어서 페미니즘 정치를 찾은 사람들은 대개 지배적인 어머니에 반기를 든 경우였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자칫하면 답습할지도 모르는 그런 여성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었다. 우리가 다르게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아예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었다.

사랑에 대한 초기 페미니즘 운동의 비판은 꽤 단순했다. 그때는 사랑에 대한 가부장제의 그릇된 관념에 구체적으로 저항하기보다 그저 사랑이 문제라는 식으로 인식했다. 우리는 사랑을 처분해 버리고 그 빈 자리를 권력과 권리에 대한 관심으로 채우려고 했다. 그때는 아무도 우리에게 마음의 황폐해져 결국 우리가 페미니즘 반란이라는 명분으로 거부했던 가부장제적 남성이나 부치들처럼 감정적으로 폐쇄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페미니스트들은 사랑에 대해 재고하며 그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해야 했지만 오히려 사랑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 버렸다. 사랑을 원했던 여성들, 특히 남성과의 사랑을 원한 여성들은 사랑을 구할 방법을 찾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다. 이런 여성들 중 상당수가 페미니즘이 사랑의 중요성도, 가족 관계도, 공동체에서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도 거부한다고 느꼈기에 페미니즘 정치를 떠나갔다.

선구적인 페미니즘 사상가 마저 여성들에게 사랑에 대해 뭐라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페미니즘 — 주변에서 중심으로』에서 나는 페미니즘 운동 리더들이 운동에 사랑의 정신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썼다. “페미니즘 운동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사랑과 공감을 보여줄 능력이 있어야 하며, 행동으로 그런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며, 대화를 성숙하게 끝내거나 갈 수 있어야 한다.” 그 당시 나는 ‘지배의 형태를 바꾸는 사랑이라는 행위’에 대한

로운 페미니즘 담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해방된 성적 실천이란 어떤 것인지 탐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해방된 성생활 그리고 성적 쾌락과 충만을 서로의 선택과 합의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가장 잘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각자의 성차별주의적 사고를 벗어던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이성애의 희열을 경험할 수가 없다. 아직도 수많은 여성과 남성이 남성의 성행위가 음경의 단단함과 지속에만 달려 있다고 믿고 있다. 남성의 성행위에 관한 이런 인식 자체가 성차별주의적 사고에 얽매인 결과다. 남성이 여성의 섹스얼리티가 남성의 욕구에 봉사하고 남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성차별주의적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 많은 여성 또한 삽입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성해방에 대한 담론과 현대 페미니즘 운동이 한창일 때, 여성들은 남성들이 다른 모든 분야에서 의평등은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섹스얼리티 문제만큼은 그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남성들이 침대에서 성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여성과 즐거움을 주고받고 싶어 하지만 그녀의 성행위가 (즉 그녀가 섹스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남성의 욕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성차별주의적 전제는 끝내 버리지 않았다. 성욕이 강하고 성적으로 해방된 여성과의 섹스는 재미있지만, 이들 여성들이 섹스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고 선언하는 순간 재미는 없어졌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성애자 남성은 성욕을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는 남성들이 지닌 여성의 몸이라면 누구든 상관 없다는 생각뿐 아니라, 여성의 몸이 남성의 것이라는 성차별주의적 패러다임을 계속 고수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해방된 관계라면 양자가 응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 그리고 얼마나 자주 관계를 가질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남성이 자신의 성적 욕구에 자기아닌 다른 사람도 부응해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파트너의 성적 복종을 요구하는 태도도 계속될 것이다.

진정으로 해방된 페미니즘 성정치라면 언제나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놓아야 한다. 이러한 주체성은 여성이 자신의 성적 신체가 타인에게 봉사하기 위해 항상 대기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절대 성립할 수 없다.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일부 여성들을 비롯한 어떤 여성들은 자신의 성을 물건이 나서 서비스와 자유롭게 교환하는 행위를 그들이 해방됐다는 지표로 삼는다. 이들은 여성이 달리 물질적 필요를 충족할 방법이 없어서 성매매를 할 때 언제든지 자기 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의 공간을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대다수 이성애자 여성들은 아직도 남성이 그들을 원해야만 여성으로서 자신의 섹스얼리티가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성차별주의적 전제를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성애자 여성들이 이런 믿음을 버리고자 한다면 동성

간의 성적 접촉과 자위, 독신 생활 또한 가부장제 문화에서 남성과 관계를 맺는 것만큼 생기 넘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야만 한다. 한때는 페미니즘이 이끌어낸 변화를 지지했던 다수의 나이든 여성들은 자신들을 버리고 더 젊은 여성을 찾아 떠나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품게 하는 남성들과 어떤 식이든 성적 접촉을 가지려면 성차별주의적으로 주조된 여성성과 성적 매력의 통념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결과면 여성이 남성의 욕망의 대상이든 아니든, 우리가 성적 인간 가치와 힘을 지닌 존재라고 스스로를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성적으로 해방된 것이라고 오래 전부터 주장했던 급진주의 페미니즘 사상가들의 판단은 옳았다. 가부장제가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사회에서 성적 감정과 정체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보여줄 페미니즘 이론이 다시금 우리에게 필요하다.

섹슈얼리티에 대한 페미니즘 담론이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정치는 여전히 이론과 실천의 결과로서 상호 간 행복의 비전을 제시하는 유일한 사회 운동이다. 우리는 성적 욕망을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성적 쾌락 속에서 삶을 긍정하는 정신을 발견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을 토대로 하는 존재의 성애학을 필요로 한다. 성적인 유대는 우리에게 고립과 고독에서 벗어나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손짓한다. 성적 갈망의 긍정적 표현들이 우리를 이어주는 세상에서라면, 우리는 각자의 성장을 지지하고 긍정하는 성적 실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성적 실천에는 난교든 금욕주의든, 어떤 특정 한 성적 정체성이나 취향을 가졌든, 상대의 성별이나 인종, 계급, 심지어 성적 취향이 무엇이건 간에 로틱한 끌림이 불꽃처럼 튀는 특정한 누군가와 관계할 때만 불붙는 미지의 욕망을 탐색해볼 수도 있다. 섹슈얼리티에 관한 급진주의 페미니즘 담론은,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운동이 다시 한번 시작되게끔 반드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16 장: 완전한 행복 — 레즈비어리즘과 페미니즘

여성 해방 운동과 성 해방 운동 중 무엇이 먼저 시작되었는지 선뜻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가끔 있다. 어떤 활동가들에게는 두 운동이 서로 뒤섞여 동시에 존재했다. 적어도 최초로 현대 페미니즘 운동의 선봉에 섰던 수많은 양성애자와 레즈비언 여성들은 확실히 그랬다. 이들은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에 합류한 것이 아니었다. 레즈비언은 대부분 정치에 '뛰어들지' 않았으며, 보수적이었고, 급진적인 행동을 취할 생각도 없었다. 여성 해방 운동의 최선봉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레즈비언과 양성애자 여성들은 계급, 인종, 섹슈얼리티의 고정된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미 좌파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기에 페미니즘 운동으로 흘러들었다. 그들이 젠더와 욕망

17 장: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 — 페미니즘의 심장

사랑을 알고 싶은 여성과 남성이라면 페미니즘부터 열렬히 사랑해야 한다. 페미니즘적 사고와 실천 없이는 사랑의 결속을 만들어 낼 토대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운동 초기에는 이성애 관계에 깊이 실망한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 해방을 외쳤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사랑을 속삭이던 남자가 결혼을 하자마자 멋진 왕자님에서가부장제적인 영주로 변모하자 배신감을 느낀 사람들이었다. 이런 이성애자 여성들은 그들의 분노와 회환을 가슴에 담은 채 페미니즘 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들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낭만적 연인 관계에서 배신감을 느낀 레즈비언의 고통에 동병상련을 느꼈다. 그 결과 운동 초기부터 페미니스트들이 사랑에 관해 이야기 할 때면 낭만적 사랑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한 여성은 자유로워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식화 모임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은 그 가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를 가부장제적인 연인과 사랑에 빠지게 하고, 그 연인은 우리의 사랑을 이용해 우리를 정복하고 종속하려 하기 에 유혹적인 덫과 다름 없다. 남성과의 성경험을 갖기 전에 페미니즘 운동에 참여했던 나는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남성을 향한 강렬한 분노와 증오심에 어안이 벙벙했었다. 하지만 그 분노의 근원은 곧 이해되었다. 나만 해도 가족들 위에 군림하는 아버지 대한 직접적인 반발로 십대 시절 페미니즘 사고를 받아들였으니 말이다. 군인 출신에 운동 선수였으며 교회의 집사였고 가장에 바람둥이였던 아버지는 전형적인 가부장이었다. 나는 엄마의 고통을 목격했고 결국 국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었다.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모욕하든 얼마나 폭력적으로 대하든 엄마는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이런 일들에 결코 짜증을 내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의식화 모임에 참여했을 때 거기서 엄마 뺀 여성들이 고통과 서러움, 분노를 토로하며 사랑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마음이 이해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좋은 남자를 만나 사랑을 해보고 싶었다. 나만은 꼭 그런 사랑을 하리라 믿었다. 그러면서 도나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그도 페미니즘 정치에 헌신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1970년대 초, 남성과 함께 하고 싶었던 여성들은 그 남성을 페미니스트로 변모시켜야 하는 도전에 직면했다. 그들이 페미니스트가 되지 않는다면 행복은 오래 갈 리만 무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가부장제 문화에서의 낭만적 사랑은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힘과 통제력을 앗아간다. 페미니즘 사상가들은 사랑에 대한 이런 통념이 가부장제적인 남성과 여성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들중에는, 레즈비언이 이성애자여성만큼성차별주의자일수있다는현실을직시하기힘들어하던사람도있었다. 페미니즘은이론이고레즈비언니즘은그실천이라는유토피아적인발상은백인우월주의-자본주의-가부장제문화를살아가는대부분의레즈비언들도이성애자여성들처럼지배와복종이라는패러다임에의지해그들의파트너십을설정한다는현실을이기지못해거듭붕괴하였다. 그리고아무도종속될위험에처하지않고상호만족을이루는유대관계를맺기란이성애자들만아니라레즈비언들사이에서도똑같이어려웠다. 레즈비언의동반자관계에서가정폭력이벌어진다는사실이밝혀지자사람들은동성간의결합이라고해서자동적으로평등한것은아니라는사실을처음으로알아차리게되었다. 동시에레즈비언페미니스트들은그들이가학파학적인성행위를한다는이야기를이성애자여성들보다훨씬더공개적으로털어놓았다.

동성애자들이성애자든성적으로보수적인페미니스트들은지배와복종관계로함의된성관계는옳지않으며이는자유라는페미니즘의이상을배신하는행위라고인식한다. 그러나모든여성에게는자신이가장큰성적만족감을얻는성생활을자유롭게선택할권리가있다는전제를거부하고무조건선관하려드는그들의태도가말로실제로페미니즘운동을심각하게훼손하고있다. 이세상에는여자들끼리어떻게섹스를할수있는지결코이해하지못하는, 다른여자에게성적욕망을쏟아본적이없는, 그러나다른여자들이레즈비언이되든양성애자가되든자신의성적정체성을선택할권리를지지하는수많은여자들이있다. 대부분의여성들을포함한사람들이절대끌리지않을성행위를하는레즈비언이나이성애자들도마찬가지로지지받는다. 레즈비언의가학파학성행위를비난하는보수적인페미니스트들의태도의이면에는동성애혐오가숨어있다. 레즈비언이이사회에서인정받고이성애자들의마음이불편하지않도록엄격한도덕적규범을따라야만할것처럼구는여성들은결국동성애혐오를영속화할것이다. 확실히가학파학성행위는레즈비언의전유물인것처럼여겨지던시절에비해, 더많은이성애자여성들이공개적으로이에대해이야기하기시작하자페미니스트들의비난도그만큼덜가혹하고덜집요해졌다.

동성애혐오에대한싸움은언제나페미니즘운동의한축을차지할것이다. 왜냐하면이성애자여성들이레즈비언을계속경멸하며부차적인존재로보는한, 여성들이자매애를키워나가기란불가능하기때문이다. 선구적인페미니즘운동에서는레즈비언활동가들의노고를충분히인정해야한다. 급진적레즈비언들의투쟁이없었다면, 페미니즘의이론과실천은이성애중심주의의경계를밀어버리고그자리에자신의성정체성이나취향혹은그모두를막론하고모든여성들이원하는모습대로자유롭게살아갈공간을만들겠다고꿈도꾸지못했을것이다. 우리는앞으로도이유산을계속해서기리고소중히여겨야한다.

에대한전통적인개념에반기를들었을때, 그들은이미심리적으로는여성해방의기치를든것이나다름없었다.

단지레즈비언이라고페미니스트가되지않는다. 정치적으로변모할때는레즈비언이라는사실이상의무언가가필요하다. 착취당하는사람이라고해서좀더저항적인사람이되는것도아니다. 그랬다면이세상에서는(그리고지구상의모든레즈비언을포함한) 모든여성들이여성운동에참여하고싶어해야할것이다. 정치적각성과선택을경험한여성들은대개좌파정치에뛰어들게되었다. 그러나각계각층에서모인급진적성향의여성들은사회주의자모임과민권운동, 전투적흑인운동같은급진적인운동의그들에게가려져있었을뿐만아니라늘뒤치다꺼리를떠맡았기에자기자신을위한정의를추창할준비가이미되어있었다. 페미니즘운동에나설준비가되어있었던것이다. 그리고가장준비된사람들가운데에서도진정으로선구적이고용기있는이들은그때나지금이나수많은레즈비언들이었다.

나는첫성경험을하기도전에페미니즘을접했다. 그때나는십대였다. 여성의권리에대해서무언가를배우기도전에동성애에대해서는알고있었다. 종교적근본주의가뿌리내리고흑인들이격리되어살아야했던미국남부의좁고편협한세계에서는누가게이인지다알고지냈으며특별한지위를누리는이들도많았다. 계급권력을지닌남성인경우도적지않았다. 남성들의동성애는여성들의동성애보다더쉽게받아들여졌다. 내가살았던작고격리된흑인공동체에서는레즈비언도대개이성애자남성과결혼을했다. 그러나그들은자신의진짜모습을잘알았다. 그래서그들은은밀한작은술집이나파티장같은눈에잘띄지않는곳에서는진정한자아를드러냈다. 레즈비언이라고비난받았던여성들가운데한분이내멘토가되어주었다. 전문직여성이자독서가였고사색가였고파티걸이었던그녀는내가존경하던여성이었다. 아버지가그녀를“웃기는여자”라며우리의유대관계에대해불평을하자엄마는“사람들은타고난모습대로살권리가있다”며반박했다. 우리집맞은편에살았던게이남자가십대소년들에게잔인하게조롱받고괴롭힘을당할때도엄마는그남자가책임감있고다정한사람이고그를존중하고사랑해야한다고말씀하시며그를위해싸우셨다.

나는페미니즘이라는용어를알기훨씬전부터게이들의권리를옹호했다. 우리가죽은내가결혼을하지않을까봐걱정하기전부터내가레즈비언이아닐까걱정했다. 사실나는어디든내피가끓는곳으로가리라는걸에감했기에내멋대로진정한괴짜가되어가는중이었다. 첫책『나는여자가아닌가요 — 흑인여성과페미니즘』을 썼을때나는이미이성애자와양성애자, 그리고동성애자임을밝힌여성들과함께페미니즘운동에참여하고있었다. 그시절우리는젊었다. 그리고당시우리중어떤이들은우리의정치성과우리의몸을여성들과공유함으로써진심으로이운동에헌신하고있다는사실을증명하라는압박감을받았다. 그무렵모두가깨달은교훈이

있는데, 도덕관습을거스르는성행위를한다고해서그사람이진보적인사람이되는것은아니라는사실이였다. 첫책이나왔을때흑인레즈비언여성들에게격한항의를받아어리둥절했었다. 그들은내책에레즈비언니즘에대한언급이없다는이유로나를동성애혐오자라고비난했다. 그주제에대해다루지않았다는것이내가동성애를혐오한다는증거인건아니었다. 나는그책에서아예섹슈얼리티문제를다루지않았다. 아직준비가되지않았기때문이다. 그주제를충분히알지도못했다. 좀더알았다면책을 썼을테고그랬다면아무도내게동성애혐오자라는 딱지를붙일수없었을것이다.

소녀시절, 내가알던강인하고다정했던레즈비언들에게배운지금도 유효하고훈은, 여성이자신의안정과행복을위해남성에게기댈필요가없다는것이였다. 성적쾌락조차도말이다. 이교훈은여성들에게새로운가능성의세계를열어주었다. 그깨달음은선택과대안을제시했다. 지금껏남자와함께살아오면서성적으로나감정적으로만족스러웠든아니든, 남자없이도행복할수있다는상상을해본적이없기때문에, 성차별주의적남성과의관계에안주한여성들이얼마나많은지우리는결코알수없을것이다. 어떤여성이자기존재를정당화하고이를입증하기위해자신이란다른무언가를필요로한다면, 그녀는자기를확인하기위해자신의힘을누군가에게양도하는셈이나다름없다. 레즈비언여성들은내게어렸을때부터지금까지스스로자기인식을할수있는자유를요구해야한다고일깨워주었다.

이것이야말로급진주의레즈비언사상가들이페미니즘운동에불어넣어준특별한지혜다. 남성의허락이없어도, 남성에게성적으로인정받지않아도여성충만한삶을살수있음을머리로이해한예외적인이성애자여성들이있었다해도그들은이러한믿음을실천에옮긴경험을페미니즘운동에더해주지는못했다. 페미니즘운동초기단계에우리는‘여성으로정체화한여성 woman-identified woman’이나‘남성으로정체화한여성 man-identified woman’이라는표현을 썼는데, 레즈비언니즘을택하지않았지만남성으로부터실존을인정받는일을거부하는활동가들이있었기에, 이들을여성으로정체화한여성으로구분했다. 남성으로정체화한여성들은로맨틱한이성애에빠지면순식간에페미니즘원칙을내팽개치는이들을지칭했다. 그들은또한여성보다남성의편에섰으며, 늘남성들의시각으로상황을바라보았다. 샌프란시스코에서처음으로여성학을가르칠무렵, 급진주의레즈비언학생들이내게왜아직도남자에게‘빠져’있느냐고궁금해했다. 그러던어느날수업이끝나고주차장에서그녀들과한바탕설전이벌어졌다. 그런데그때자신의레즈비언정체성을명확하게알고있으면서도섹스산업에종사하며수많은남성과관계를해야했던, 또래들보다좀더나이가많은흑인레즈비언학생이이런말로페미니스트로서의내명예를옹호해주었다. “선생님은남자와섹스를하지만여성정체

화한여자야. 그건선생님의권리야. 하지만선생님은여전히우리와의대를함께하고있어.”

많은여성들이페미니즘운동에서떨어져나가던 1980 년대중반페미니스트모임에서는페미니즘정치를굳건하게지켜내는문제에대한논의가핵심주제였다. 여성들이점점더많은권리를획득해갔지만, 페미니즘운동의급진적인부분을담당했던선구적인레즈비언사상가들이나활동가들의존재와이들의노력은잊혀졌다. 페미니즘운동에서가장급진적이고용감했던레즈비언들은대부분노동자계급출신이었다. 그러니그들에겐학계에서활동하려할때요구되는학위가없었다. 페미니즘이학문으로정립되면서이성애중심주의적인위계가다시강화됐는데, 이위계질서내에서는설령학교밖에서여성운동에시간을쏟지않더라도화려한학벌을갖춘이성애자여성들이더존경받고더대접받고는했다.

그러나다름의문제, 인종과계급을포함해페미니즘이론과실천을확장하는문제에대해가장적극적으로자신들의관점을수정해온사람들은바로선구적인레즈비언사상가들이었다. 많은경우그것은그들이주류의기준에맞지않는다는이유로착취나억압혹은그두가지를모두당하는것이무엇인지경험을통해알고있었기때문이다. 선구적인레즈비언활동가들은이성애자동료들보다훨씬더적극적으로백인우월주의에이의의를제기했다. 게다가모든남성들과연대를강화하고자한것도그녀들이었다. 대다수의이성애자여성들은열성적인페미니스트건아니건자신과남성의관계에더신경썼다.

여성으로서우리가누구를사랑할지, 누구와몸을나누고함께살지선택할자유는동성애자인권과여성의권리를위해투쟁했던급진주의레즈비언들덕분에크게향상됐다. 페미니즘운동에서예나지금이나레즈비언들은모든유색인종여성들이성적취향이나정체성에상관없이인종차별주의에맞서고저항해야했던것처럼동성애혐오에맞서고대항해야했다. 동성애혐오를영속화하면서자신이페미니스트라주장하는여성들은백인우월주의적사고를고수하면서자매애를원하는여성들만큼착각에빠져있으며위선적이다.

주류대중매체는페미니즘운동을대표하는이미지로항상이성애자여성을선택했다. 이성애자로보일수록더좋아했다. 그여성има력적일수록, 그녀의이미지가남성들의시선을끌수록더좋아했다. 여성정체화한여성은이성애자든, 양성애자든, 레즈비언이든좀처럼남성의인정으로삶의우선순위를정하지않는다. 이에게부장제가우리를위협적으로느낀다. 남성의입장에서는동성애자든이성애자든간에그들의시선과욕망을가부장제, 즉성차별주의적남성들에게서거두어버린페미니스트여성보다는가부장제사고방식을지닌레즈비언이덜위협적이다.

오늘날에는이성애자페미니스트들처럼대다수의레즈비언들도급진주의정치에별로흥미가없다. 페미니즘운동에참여했던레즈비언사상가